



5

1990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0. 5호

(루계 511)



◆◆◆◆◆◆◆◆◆◆

차 례

◆◆◆◆◆◆◆◆◆◆

조국통일주제 작품을 왕성하게 창작하자	4
5월의 봄이 오면	6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 만세	7
온 나라의 기쁨속에	8
그날의 천막자리	8
내 삶의 이정표앞에서	9
《락원의 노래》 제 2 안	10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그이는 향도의 별	11
철학적무게를 가진 종자의 탐구	12
백두밀영고향집 앞에서	16
나는 백두산에서 자랐다	16
어머님의 군복앞에	17
무산지구의 영원한 찬가	18
돌아보니 되돌아보니	18
우등불가에서	19
옛 전장의 기념탑아래서	19
봄날에	20
새로운 기슭에서	21
생각	44
락원 사람들	45
그날의 의자앞에서	45
문을 더 크게 달자	46

내 삶의 구내길	46
락원사람들	47
탄광마을의 새 민요	47
열다섯해	48
소조원의 마음	53
《령북땅》과 작가의 창작적개성	57
5 월봄명절	62
어머니 오시다	63
새벽	71
건설자	72
너 없는 밤길 걸으며	74
조국방문의 나날에	75
내이름 묻지마세요	77
학교가는 아들을 보며	78
광주사람들 문을 걸지 않는다	78
비 그친 뒤에 (외 1 편)	79
신천의 물	79
김형에게	80

조국통일주제 작품을 왕성하게 창작하자

올해는 조국해방 45돛이자 민족분렬 45돛이 되는 해이다.

1940년대에 시작된 민족분렬이 1990년대까지 지속되고있는 비극적사태는 우리 민족이 그아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모두 하나가 되어 거족적인 통일운동에 펼쳐나설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온 민족의 통일변원과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북과 남사이의 장벽을 마르고 자유래왕을 실현하며 북과 남이 서로 전면개방할것을 주장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쌓아놓은 콘크리트장벽은 민족분렬과 북남대결의 상징이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이러한 장벽을 그대로 두고있다는것은 민족의 수치라고 하시면서 콘크리트장벽을 제거하고 북과 남사이의 자유로운 래왕을 실현하여 각계각층 인민들이 차별없이 상대측 지역을 자유로이 오가고 제한없이 접촉하고 활동할수 있도록 하며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서로 전면개방하는 길로 나갈데 대한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또한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북과 남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체없이 북과 남사이의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위하여 북과 남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새로운 방안들은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장애와 난관을 제거하고 전체 조선민족의 념원과 의지를 한데 모아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할수 있는 길을 밝혀주는 등대이며 기치이다. 지금 우리 작가들앞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펼쳐나선 북남인민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할수있는 조국통일주체의 문학작품을 더욱 왕성하게 창작하여야 할 무겁고도 절박한 시대적과업이 영예롭게 나서고있다.

오늘 우리 민족의 통일열망은 거족적인 통일운동으로 전환되어 북과 남, 해외에서 막을수 없는 직류로 도도히 굽이치고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일대양양기에 들어서고있다.

우리 문학은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새로운 방침들의 정당성을 예술적으로 진실하게 확증하는데 모를 박아야 한다.

작가들은 생활의 구체성속에서 조국통일방침을 구현하여 그 관철에로 인민대중을 불려일으킬수 있는 력사적현실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그려냄으로써 우리 인민의 통일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것이다.

지난해 남조선에서는 가혹한 파쑈적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인민들의 반미자주통일운동이 줄기차게 벌어지고 북과 남사이의 장벽을 마르고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을 실현하려는 기운이 그 어느때보다도 고조되였다.

이러한 가운데 남조선의 《전민련》 고문인 문익환목사가 평양을 방문하고 민간급대화의 첫 문을 열어놓은데 이어 《전대협》 대표인 림수경학생이 사선을 헤치고 평양축전에 참가하고 판문점을 통과하여 돌아갔다.

이것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이으려는 겨레의 막을수 없는 통일열망과 통일의지를 내외에 과시한 일대 사변이였으며 그 누구도 내 나라, 내 땅을 갈라놓을수 없고 통일의 날은 반드시 오고야만다는것을 만사람에게 생동하게 보여준 하나의 통일화폭이였다.

우리 작가들은 이 격동적인 사변들을 민감하게 문학작품에 반영하여 북남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신심과 기대를 안겨주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밝은 전망이 활짝 열리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은 걸음마다 생명의 위협이 뒤따르는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조국통일 3대원칙에 고무되어 갈라진 조국을 기어이 통일하려는 거레의 막을수 없는 열망을 지니고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몸바쳐 싸우는 주인공들의 세계관형성과정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현시기 조국통일주체의 작품창작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의 반동적본질을 형상을 통하여 철저히 밝히고 폭로단죄하는것이다.

최근 북남인민들의 통일열의가 비상이 높아지고있는데 겁을 먹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은 력사의 흐름에 도전하여나섰으며 반통일의 립장과 속심을 적라라하게 드러내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대화》요, 《통일》이요 하고 말은 많이 하고있지만 실제로는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고 분렬을 지속시키기 위한 반민족적행동을 집요하게 추구하고있다.

그들은 밖으로는 나라가 분렬된 상태에서 유엔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분렬을 국제적으로 합법화하기 위한 책동에 매달리고있으며 안으로는 《대화창구일원화》 간판을 걸고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접촉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탄압박해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콩크리트장벽과 함께 정치군사적장벽을 겹겹이 쌓아놓고 실속없는 대화와 정치적흥정으로 시간을 끌면서 통일의 길에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작가, 예술인들은 콩크리트장벽이야말로 민족분렬의 비극을 강요하는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의 남북대결정책의 산물이며 후세앞에 영원히 씻을수없는 민족의 수치라는것을 고발하고 이 장벽을 허물어내기 위한 투쟁으로 온 민족을 힘차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형상을 통하여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구태의연한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예리하게 폭로단죄하며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성업을 이룩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바쳐싸우고있는 주인공들의 성격을 훌륭하게 창조함으로써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미제를 력사의 심판대우에 세워놓고 침략자, 략탈자, 식민주의자로서의 본성을 낱알이 고발함으로써 미제를 끝없이 증오하며 이 땅에서 미제를 몰아내지 않고서는 조국통일도 실현할수 없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도 쟁취할수 없다는것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또한 남조선피뢰들의 반인민적죄행을 형상적으로 밝히는데도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최근에 이르러 남조선당국자들은 통일로로 지향하는 전인민적진군을 총칼로써 가로막아보려고 망동을 부리고있다.

우리는 그놈들의 교활성과 반인민적죄행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반통일적인 범죄를 감행하는것을 예술적형상으로 단죄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야말로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서슴없이 감행하는 민족의 원수이며 통일의 원수이라는것을 구체적인 생활을 통하여 예리하게 발가놓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강령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이 있으며 그것을 구현한 가장 현실성있는 통일방도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있다. 작가들은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신심과 기대를 가지고 통일의 그날을 확신성있게 내다보면서 건결히 투쟁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모습을 감명깊게 형상하는데 응당한 힘을 기울이어야 한다.

우리 문학은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이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 문을 여는데 이바지하는 형상창조에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이제 더는 한순간도 뒤로 미룰수없는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인 통일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하여 온 민족의 가슴마다에 통일의 열망을 세차게 불러일으켜야 할것이다.

5월의 봄이 오면

최장수

꽃향기 진동하는
5월의 봄이 오면
이 가슴 설레이네
조국광복의 서광이 밝게 비치던
동강의 봄, 그 봄날을 생각하며

얼마나 피타게 갈망했던가
철쇄와 총칼의 속박을 불사르고
제 땅 제 산천에 씨앗을 뿌려
이삭을 가꿀 희망의 새봄
온 겨레가 자유의 노래 부르며
가슴 펴고 활보할 조국의 새봄을

그 봄이 없어 가슴치던 세월에
꽃은 피어도 향기를 물렸고
해빛이 있어도 세상은 어두워
살아도 웃음없는 막막한 앞길에
희망의 봄빛을 뿌려준 동강의 봄

아, 그 봄은
키낮은 밀영의 귀틀집에서
한장의 조선지도를 펼치시고
우리 수령님 지새우시던 그 밤에 이어
얼었던 대지를 녹이며
희망차게 밝아왔나니

조국광복의 기치아래
비분에 사무친 동포들을 부르며
높이 울려 퍼진 조국광복회 선언
나라찾는 한길에 불러온
력사의 봄우뢰여

그 우뢰소리

얼음덮인 가슴마다
새날의 청신한 바람을 안겨주어
장군님따라 이 땅에 타오른
반일전의 세찬 불길
더 높이 타올랐거니

그 불길을 안고
광산의 막장에서 부두가에서
철공소의 모루와 불붙는 로앞에서
주먹을 억세게 틀어잡으며
장군님을 따라나선 투쟁의 대오여

피어린 결사의 언덕을 넘어
원썩들의 총칼숲을 헤치며
조국광복의 새봄을 맞이하려
대하처럼 굽이친 항일전의 불길속에
세기의 암흑은 불타버리고
이 땅우에 찬란히 새봄은 밝아왔나니

오, 봄이여
만발한 조선의 새봄이여
너는 장장수만리 불길속을 헤쳐온
우리 수령님의 그 해빛아래
이리도 파사로운 봄빛으로
온갖 꽃을 피우고 피우는것 아니냐

잊지 못해라
해마다 봄은 오고 가지만
동강의 그 봄은 가지 않아라
그날의 그 봄빛이 있어
내 조국은 그 언제나
행복의 꽃바다로 설레이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만세

아불 칼람 아자드

에베 레스트산이 장관이라 하여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주체의 위업을 이룩하시려
혁명의 횃불을 높이 드신 백두산엔
그 위용 건주지 못하리

사람들이여 아는가
백두산에 아로새겨진 독립의 역사를
위대한 **김일성** 주석께서
조선의 상징 백두산을 넘나드시며
천리혜안의 지략으로
항일대전을 승리로 이끄시었음을

그이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독립을 이룩하였네
그이는 진정 우리 시대의 위대한 수령
주체, 자주성, 천리마의 기치밑에
평화와 진보 화목을 이룩해가는 사회
누구나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인류의 이상사회 꽃피었어라

하기에 세상사람들
그이를 칭송하며
영원한 행복을 축원한다네
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진보적인민들 념원한다네
온갖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세계의 주인으로 자유롭게 살기를
그들은 갈망한다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세계의 수백만인민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칭송한다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창시하시여
사람을 모든것의 중심에 내세우시고
자주성을 나래치게 하신 그 업적을

그이는 참으로 위대하여라
그이는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스승
그이께서 지니신 그 품모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그대로 이어받으시었네

세상사람들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자력갱생해가네
주체, 자주성, 천리마의 기치
높이 추켜들었다네

파쑈는 사라져라
미제와 그 주구들 남조선에서 물러가라
조선의 북과 남은
하나로 통일되리

위대하여라 그대 평양은
누구나 우러르는 정다운곳
바로 여기서
현시대의 평화정책이 흘러나온다네

사람들 누구나 그토록 열렬히
조선방문을 소원하는것이여라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
받고싶은 마음 더더욱 간절하여

김일성 주석 만세!
영원한 행복을 축원합니다
(필자는 방글라데슈 민족박물관 상급행정관)

온 나라의 기쁨속에

김선

온 나라 감격의 눈길
뜨거운 마음이 함께 있었어라
8살의 어린 소녀
즉흥시로 설인사 드리며
어버이수령님 품에 안기던 그 순간에

4살과 9살의 어린이들이
순간에 멋진 그림들을 그려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하고
11살의 어린 서예가가
붓을 들어 단필로 인민의 마음 수놓을 때

기쁘시여 환히 웃으시며
어버이수령님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락원에서만
이런 재능있는 어린이들이 나올수 있다고
우리 나라와 같이 좋은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고 하실 때
인민의 마음 뜨겁게 설레였어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상을 그리며

웃음 함뱍 담으신 우리 수령님
이들과 하루종일 지냈으면 좋겠다고
꽃피는 봄날 다시 만나자고
그들이 쓴 글과 그림을 가지고가 보시겠다고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 찍어주실 때

아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기쁨이

온 나라의 기쁨이 되어
우리 인민들 한결같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한없는 은정에
목메여 목메여 설레였어라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을 한결음 늦추면
조국의 전진이 열걸음 떠진다시며
아직은 찾아보기 힘든
어린이들의 뛰어난 소질
어린이들의 특출한 재능
그 작은 싹마저 찾아주시고
사랑으로 꽃피워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아 그 사랑, 그 넓은 품이
8살의 《즉흥시인》을 낳고
4살의 《뛰어난 미술가》를 키워주시었네
아, 그 빛나는 예지, 그 위대한 령도가
조선의 미래
공산주의 미래를 앞당겨오시여라

새해 설맞이 공연장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계시지 않았어도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
어버이수령님곁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마음속깊이 함께 모시었네
어버이수령님의 기쁨속에
크나큰 행복, 크나큰 영광을 누리며...

그날의 천막자리

강현만

양지바른곳을 골라
정한 자리가 아니였구나
비바람 덜 받을 방향 가려
정한 자리도 아니였구나

잊지 못할 항일의 그날
투사들, 조국진군의 첫밤 보낸
아, 아직도 흔적 력력한
소백수풀의 천막자리 천막자리...

기어이 전해야 할
뜨거운 사연 안고있어서냐
기어이 물려줘야 할
고귀한 녀 안고있어서냐
세월의 눈비에

허리치는 락엽에
씻길수도 묻힐수도 없었던 항일의 자취

얼핏 봐도
방어진을 친듯
철옹성을 쫓친듯
사령부 큰 천막 한가운데 모시고
빙- 둘러친 크지 않은 천막자리들

깃든 사연 새길수록
승엄함에 가슴은 절로 부풀어
내 다시한번 둘러보노니
풀벌레 우는 소리에도 귀기울이며
사령부의 안전 위해
어둠속에서도 빛나던 투사들의 그 눈동자

메아리런듯 흥벽에 울려와라
 잠간 자리를 정해도
 잠간 눈을 붙여도
 장군님의 안녕 지켜
 마음의 격동장치 풀수 없었던
 투사들의 그 후더운 숨결소리

오, 뜻깊은 천막자리 천막자리
 태양을 중심으로 싸고 도는
 저 하늘의 별들의 자리인가
 조국의 향취에 흠뻑 취했을 그밤에도

방패되어 성세되어 불타던 투사들의 넋
 소중히 안고있는 그날의 천막자리여

너는 다시금 깨우쳐주누나
 광복의 그 길에 쏟아부은
 투사들의 간고함만이 아닌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따라 나아가는
 90년대의 총진군길에서
 서야 할 전사의 위치를!
 변치 말아야 할 충신의 신념을!

내 삶의 이정표앞에서

류동호

여기서만은
 정녕 여기서만은
 세월도 흐름을 멈추었더나

백두광명성을 맞이하던
 그날의 환희로 밀림은 설레고
 민족의 대통운에
 터질듯한 심장의 붓을 적시던
 투사들의 그 넋은
 구호나무 글발마다 살아 숨신다

오, 백두광명성
 찬란한 그 빛발을 안고
 조국이 걸어온 길 그 얼마나 영광찼더나
 말해다오 설레는 밀림이여
 전해다오 구호목의 빛나는 글발이여

걸음걸음 시련에 찬
 혈전의 천만리길에
 첩첩준령앞에
 등대처럼
 해빛처럼
 빛을 뿌리면 백두광명성

찬란한 그 빛발은
 투사들이 안고 온 조국
 백두의 푸른 하늘에 비겼던 미래를 안고
 조선이 오늘로 온것이 아니냐

이 가슴 벽차게 안아보노라

투사들이 약속한 그 미래
 백두광명성 그 빛발따라
 누리에 빛나는 어머니 내 조국을

오, 백두광명성
 태양의 그 빛발따라
 투사들이 가고
 우리 세대가 가고
 후대들이 가려니

백두밀영의 구호나무
 너는 흐르는 세월우에
 우리 혁명이 세운 삶의 이정표
 네 앞에서
 세월과 세대가 이어진다

새기노라 구호나무여
 백두광명성을 받들어
 불길속에서도 타지 않고
 폭풍속에서도 지워지지 않을
 이 신념의 글발은 덧새기노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따라서
 세월이여 세대를 이어
 조선이 가야 할 주체위업의 진군길에
 뚫는 이 신념 식지 말라고
 피뚫는 심장의 한복판에
 너를 세우노라
 내 삶의 빛나는 이정표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는것은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는 여기에 우리 조국의 끝없는 영예와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

김정일

숭고한 충성

《락원의 노래》 제 2 안

1977년 9월 어느날에 있는 일이다.

이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사엽하시는 당 중앙위원회의 집무실에는 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들이 여러명 앉아있었다. 모두 그이께서 부르신 일군들이었다.

그들은 방에 들어와서도 웬 일로 부르셨는지 모르고있었다.

이러한 그들에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한가지 중요한 과업이 있다고 하시면서 지금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국제적권위로 하여 해마다 많은 외국수반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데 그때마다 수령님께서는 외국수반과 함께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를 반복하여 보시게된다고 하시었다.

때문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령님께서 공연도중 조금도 피로를 느끼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하여 공연시간을 줄여서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 제2안을 하나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었다.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아버지수령님의 안녕을 것처럼 세심히 돌보시는 그 마음에 가슴이 뭉클하였다.

그러나 다음순간 작품을 줄일 방도가 막연하여 근심이 앞섰다.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로 말하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직접 종자를 잡아주시고 줄거리를 세워주시면서 작품을 완성시켜주신 기념비적명작이다.

주옥같은 명곡, 명작들로 조화를 이룬 작품을 보고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의 벗들도 예술의 극치라고 경탄해마지 않는다.

그런데 노래 한소절, 무용 한가락에 이르기까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친히 확정해주시고 몸소 옥을 다듬듯이 세련시켜주신 작품을 어떻게 줄일수 있겠는가.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생각할수록 그저 막막할 뿐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심중을 헤아리신듯 너그럽게 웃어보이시며 책상위에 작품의 대본을 펼쳐놓으시었다.

그리고 그들의 공리를 티워주시듯 부드러운 음성으로 어제밤에 생각해보니 6장의 방직공장장면을 없애고 2장의 과수농장장면에서 가무 《사랑의 꽃가루를 안겨주자요》를 빼도 될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런 방향에서 생각들을 해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였다.

그래도 그들이 신통한 안을 내놓지 못하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다같이 연구해보자고 하시며 손수 대본을 번지기 시작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서경부터 한장면 한장면 작품의 내용과 조화관계 등을 몇번이고 음미하시면서 한 대목을 자르시고는 친히 그 시간을 분과 초로 따져가시며 계산하시었다.

이러시기를 무려 두시간...

마침내 2시간반이 걸리는 이 작품에서 30분나마 잘라내시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전모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대서사시적화폭속에 반영한 큰 규모의 이 작품 공연시간은 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보통 장막물의 공연시간이 3시간, 지어는 4시간씩 걸린다는것을 념두에 둘 때 이 2시간이란 매우짧은 시간이였다.

일군들과 창작가들로서는 그 이상은 도저히 시간을 단축할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안도의 숨까지 쉬였다.

하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매 장면별로 시간을 계산해보시더니 제1부가 58분 40초, 제2부가 52분 15초인데 1 부와 2부를 합치면 1시간 50분 55초가 걸린다고 하시면서 아직도 시간이 길다고, 더 잘라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다시금 서경부터 한대목한대목 검토하시며 작품을 함축할 방도를 모색하시었다.

창작가들이면 누구나 체협하는바이지만 고도로 짜인 작품을 사상예술적으로 자그마한 손상도

주지 않으면서 줄인다는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그이께서는 다시 한초한초 시간을 따져가시며 작품을 줄이시기에 온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제1장 수도의 공원 장면에서 녀성군무 《노들강변》을 한절 자르면 40초가 없어지므로 공연시간이 1시간 50분 15초로 줄어들고 제2장 전쟁장면 다음에 나오는 방창과 독창 《조국에 몸바친 용감한 전사》에서 한절을 뺏으면 공연시간이 1시간 49분 35초가 될것이라고 하시며 한초한초 잘라내시여 마침내 13분 25초를 다시 더 자르시였다.

그리하여 이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옹근 4시간에 걸치는 고심어린 노력끝에 총공연시간 1시간반이 되는 《락원의 노래》 제2안을 완성하시였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제는 가지고 가서 관통연습을 해보라고 하시면서 갈피갈피에 단축할 시간을 친히 적으신 작품대본을 내주시며 미더운 눈길로 일군들을 바라보시였다.

그이께서 내어주시는 그 제2안의 대본을 그들은 류달리 뜨거운 마음으로 받아안았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위해 바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또 하나의 더없이 소중한 충성의 선물이기때문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그이는 향도의 별

니켈로 조르주

혁명의 성산 백두산
지심깊이 뿌리박고
창공에 치솟은 그대의 흰봉우리에
붉은 노을이 비꼰구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고향 백두산
하늘우에 높이도 솟았구나
그대 모습 정녕 장엄하구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위대한 향도성으로 높이 솟아
우리를 밝히며
향도의 별로 찬란히 빛나라

김정일

그이는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조선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라
공산주의길로 이끌어가시여라
그이께 영원한 영광을

위대한 향도자 **김정일**동지

그이께서 지칠줄 모르는 정력적인 활동으로
세기에 빛나는 위대한 업적 이룩하시고
주체의 혁명위업 대를 이어 완성하시나니
그이 향도의 별로 영원히 빛나라

탁월한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받드시여
정력적인 활동 벌리시나니
언제나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 훌륭히 실현되여라

그이께서는
조선인민의 투쟁을 이끄시여
주체사상의 승리를 마련해나가시나니
그이의 위업 조선의 혁명력사에 영원히 새겨지리

우리 시대의 위대한 향도의 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그이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노라

(필자는 중앙아프리카 사람임)

철학적무게를 가진 종자의 탐구

조재희

오늘 우리 소설문학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풍모를 형상적으로 밝힐수 있는 철학적무게를 가진 종자를 똑바로 골라잡는것을 중요한 방도로 내세우고 그것을 훌륭히 실현하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종자를 바로잡아야 작가의 사상미학적의도를 정확히 전달할수 있고 작품의 철학성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작품창작을 성공으로 이끄는 근본열쇠는 종자를 바로잡는데 있다.

종자를 바로잡는것은 특히 위대한 인간의 풍모를 형상한 소설의 인간학적 무게와 품위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형상한 소설문학은 력사문헌적특성만이 아니라 인간학적가치를 가져야 하며 예술작품으로 되여야 한다.

그것은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을 가장 높은 경지에서 실현하고 사상정서적감화력을 가져야 력사자료와 구별되는 자기의 독자성과 기능을 가질수 있기때문이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풍모와 활동이 예술적가치를 가지는 형상적화폭에 옮겨지려면 무엇보다도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을 근본적으로 담보하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를 골라잡는것을 선결문제로 제기하여야 하며 종자에 기초하여 형상의 꽃을 피워야 한다.

종자는 생활속에서 탐구된 형상의 씨앗이므로 형상의 원형으로 된다.

종자를 틀어쥐지 않고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풍모를 형상한 소설의 예술성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심오한 종자를 틀어쥐는것은 이 소설의 예술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이 소설은 또한 높은 예술성을 가져야 할뿐아니라 생활의 진리를 심오히 밝혀주는 참다운 인간학으로 되여야 하며 심오한 철학적깊이를 가져야한다.

이 소설은 자기의 인간학적 본성과 사명으로부터 철학적인 형상을 요구하며 따라서 철학적인 무게를 가진 종자를 요구한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풍모를 형상한 소설을 참된 인간학으로서의 철학적깊이를 가지도록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종자를 옳게 잡아야 하며 종자의 철학적무게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종자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 생활의 진리를 안고있는 정수적인 씨앗이므로 본성에서 철학적이다.

종자, 특히 철학적무게를 가진 종자를 탐구하는것은 인간학으로서의 철학적깊이가 요구되는 작품에서 근본요구의 하나로 된다.

종자탐구가 작품창작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또한 이 주제의 소설창작에서 적지 않게 나타나는 회상실기나 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문학적인 경향을 극복하는 관건적열쇠로 되기 때문이다.

소설창작과정은 이 주제의 창작에서 회상실기나 전기와 유사한 경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는것을 보여준다.

다시말하여 회상실기나 전기에서 누구나 다 보게 되는 감명깊은 력사적사건, 심금을 울리는 숭고한 생활들을 그대로 전달하는것으로 형상을 대치하는 현상이다.

여기서 소설가들은 감명깊은 사건과 일화들에 대한 단순한 윤색자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회상실기, 전기들에 대한 학습이 대중적으로 심화되어 영광스러운 혁명활동력사에서 있는 중요한 사건과 사실, 생활일화들을 누구나가 다 잘 알고있는 조건에서 심중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회상실기나 전기의 사실자료들을 윤색이나 하여옳긴 작품들은 독자들에게 새롭고 보다 깊은 감명을 줄수 없으며 자기의 교양적기능을 원만히 발휘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 혁명발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실자료들을 회피하고 독자들이 아직 모르는 사실이나 일화를 탐색하여 전달소개하는 방향으로만 나가서도 안될것이다.

물론 사적자료에 대한 새로운 탐색도 필요하다.

그러나 인간학의 본도는 누구나 잘 아는 중요

한 사실의 의의를 철학적으로 새롭고 깊이있게 분석하여주고 해명하여주는 거기에 있다.

바로 이것은 작가로 하여금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를 깊이있게 틀어쥔것을 요구한다.

종자의 탐구, 바로 여기에 실기식으로, 전기식으로 소설을 창작하는 그릇된 경향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본고리가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품모를 형상한 소설창작에서 우리 작가들은 종자를 바로잡고 그 철학적무게를 높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한다.

이 주제의 소설작품의 종자가 가져야 할 철학적무게는 첫째로, 혁명위업의 대가 이어지는 위대한 역사적전환기의 인간문제라는데서 나타나고 있으며 둘째로, 그것은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을 위하여나서는 전인민적의의를 가지는 인간문제라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이 두 측면은 하나로 통일되어 사상적알맹이의 철학적심오성을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단편소설 《고향길》(김병훈)이 탐구한 종자는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이 소설에서 작가가 탐구한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백두산에로의 걸음걸음은 조선의 운명을 미래에로 굳건히 이어준 혁명의 고향길이었다는데 있다.

조선의 운명을 미래에로 이어준 혁명의 고향길, 바로 여기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백두산답사행군이 가지는 본질을 인간학으로 심오히 천명한 생활의 사상적알맹이가 있다.

이 종자는 자기의 철학적무게로 하여 이 소설의 인간학적품위를 담보하는 근본요인으로 되었다.

이 종자는 무엇보다도 혁명위업의 대가 이어지는 위대한 역사적전환기의 인간문제를 뚜렷이 밝히고있다.

혁명위업의 대가 이어지는 역사적전환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혁명위업을 개척한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영원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 문제이다.

이 종자는 우리 혁명의 역사적뿌리인 항일의 혁명전통으로 우리 인민을 무장시키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 측면을 해결하고있다

또한 이 종자는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을 위하여 나서는 전인민적의의를 가지는 인간문제를 뚜렷이 파악하고있다.

전체 인민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가 이 종자에 깃들어있다.

그것은 조국과 인민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다.

조국의 미래가 어떻게 담보되는가 하는것은 전민족, 전체 인민의 생사운명과 관련되는, 거대한 문제이다.

이 종자는 조국의 미래에로 혁명의 명맥을 잇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인간문제의 전인민적인 폭과 깊이를 또한 철학적으로 담보하였다.

이처럼 우리 소설들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형상한 작품의 종자들을 이러한 근본특징을 가진 사상적알맹이로 골라잡음으로써 그 철학적무게를 확고히 보장하고있다.

우리 소설이 탐구하고있는 종자의 이러한 특징은 위대한 인간을 형상하는 작품에서 탐구되어야 할 종자의 근본특징을 명확히 밝혀주고있다.

그것은 우선 전인민적의의를 가지는 인간문제가 아니고서는 위대한 인간의 절대적지위와 결정적역할을 응당한 폭과 높이에서 밝혀줄수 없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인간의 품모를 밝히는데 이바지하는 종자를 틀어쥐려면 전체 인민의 령도자로서의 위대성이 보장될수 있도록 전인민적인 의의를 자지는 인간문제를 탐구하여야 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품모를 밝히려면 종자탐구에서 령도자로서의 품격과 함께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특징이 천명될수 있도록 혁명위업의 대가 이어지는 역사적전환기에 고유하게 제기되는 근본문제를 종자에 체현시켜야 한다.

전인민적의의를 가지는 인간문제와 혁명의 대가 이어지는 역사적전환기에 제기되는 근본문제, 이 량자의 결합속에서 생활의 진리가 폭넓고 심오하게 파악될 때 철학적무게를 가진 종자가 태어난다.

역사적전환기의 시대정신이 반영되고 전체 인민의 운명이 밝혀지면서 인간문제, 생활의 참된 진리가 심오히 천명될 때 그것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을 부각하는 무게있는 종자로되게 될것이다.

우리 소설문학은 자기의 실천적성과들으로써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한 소설이 탐구하여야 할 종자의 고유한 특징과 그 철학적무게문제를 밝혀줌으로써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미학실천적문제들을 해명하였다.

우리 소설문학은 또한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형상한 소설의 종자탐구방도에 대하여서도 일련의 귀중한 실천적경험들을 주고있다.

문학일반이 그러하듯이 위대한 인간을 형상한

소설의 종자도 생활속에 있다.

소설가는 사상적알맹이를 골라잡기 위하여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탐구한다.

우리 소설가들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생활을 주로 두 방향, 두 각도에서 깊이 파고들으로써 종자탐구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 하나는 우리 당과 인민의 지도자이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펼쳐가시는 위대한 생활을 경애하는 수령님과의 관계에서 깊이 파고들어 그 위대성을 밝혀주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를 찾아내는것이다.

위대한 인간인 인민의 지도자는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해나가는 참된 인간의 전형이다.

이것은 수령의 후계자의 생활이 무엇보다먼저 수령과의 관계에서 형성된다는것을 의미하며 수령의 후계자 생활을 조건짓는 주되는 내용이 또한 수령에 대한 문제를 내포하게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러므로 종자를 골라잡기 위한 소설가의 생활탐구는 무엇보다도 수령과의 관계에 모를 세우고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 소설문학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펼쳐가시는 생활의 이러한 특성에 립각하여 위대한 수령님과의 관계에 모를 세우고 그이의 위대한 생활에서 인간문제를 탐구해들어가고있다. 단편소설 《맑게 개인 가을날에》(김정), 《기억》(현승걸)과 같은 소설들은 생활탐구의 이러한 원칙적방향과 창작가적자세를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펼쳐가시는 위대한 생활을 경애하는 수령님과의 관계에 모를 세우고 깊이 파고드는데서 중요한것은 그이께서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지극한 효성이며 그 충성심과 효성이 전체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가지는 거대한 의의에 대한 철학적사색과 탐구이다.

수령의 혁명위업을 신념과 의지로 간직한 위대한 인간,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위대한 인간만이 인민의 지도자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위대한 인간인 인민의 지도자가 지녀야 할 품격과 자질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며 지극한 효성이다.

이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지니신 충실성과 효성의 남다른 숭고한 높이를 천명하지 않고서는 그이의 위대성을 밝힐수 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를 골라잡을수 없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효성, 그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기본품성이다.

때문에 일반적의미에서 충실성과 효성을 파악하는것만으로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형상한 소설에서 종자탐구가 원만히 진행된다고 말할수 없다.

그것은 응당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만이 지니신 충실성과 효성의 높은 경지를 밝힐수 있는 생활의 씨앗이어야 한다.

위대한 생활을 깊이 파고들어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과 효성의 숭고한 경지를 파악하는 소설가의 탐구는 또한 이 충성심이 위대한 력사적전환기에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을 위하여 가지는 거대한 사회력사적의의에 대한 철학적사색과 하나로 결합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지니신 충성심의 높이가 인간문제로 전환되고 철학적무게를 가진 종자로 되게 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근본요구이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지극한 효성의 숭고한 높이에 대한 파악, 그것은 아직은 그이의 사상정신적특질에 대한 탐구 그자체에 지나지 않는다.

종자는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 다시말하여 인간문제의 기본을 안고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이다.

그러므로 종자에 시대와 력사 앞에 생활의 진리를 두고 말하려는 작가의 주장이 담겨지지 않았을때 그것을 두고 아직 종자라고 말할수 없다.

문제는 충실성과 효성을 사회적문제성과 밀접히 결합시켜 인간문제로 전환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작가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충성심의 높이를 수령님의 혁명위업의 계승과 완성을 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가지는 거대한 사회력사적의의의 측면에서 더욱심화시켜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를 도출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생활을 인민대중과의 관계에 모를 세우고 깊이 파고드는데서 중요한것은 그이께서 지니신 인민대중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며 그 사랑이 전체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가지는 거대한 의의에 대한 철학적사색과 탐구이다.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스승으로, 지도자로 끝없는 존경을 받고계시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는 우리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사상가, 정치가, 전략가의 자질과 품모도 인민대중을 떠나서 있을수 없으며 그것은 인민대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에게서 배우며 그들을 이끄는 호상관계속에서만 형성되는것이다.

이 밀접한 호상관계의 근본원천은 인민대중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다.

인민대중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는것은 령도자로서 인민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위대한 천품이며 근본특질이다.

그러므로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사랑의 남다른 높이를 천명하지 않고서는 그이의 위대성을 밝힐수 있는 철학적인 씨앗을 골라칠수 없다.

인민에 대한 사랑, 그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의 기본품성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인민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파악하는것만으로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형상한 소설에서 종자탐구를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

그것은 웅당 그 어떤 혁명가도 따를수 없고 오직 그이께서만이 지니신 사랑의 높은 경지를 밝힐수 있는 생활의 씨앗이여야 한다.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과 효성의 귀감이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사랑을 파악할 때까지 생활에 대한 철학적사색과 탐구를 심화시키는것, 이것이우리 문학이 종자를 골라잡기 위한 생활탐구에서 견지하고있는 립장이며 방법이다.

그이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사랑의 파악, 그것은 아직 그이의 사상감정에 대한 탐구 그자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생활의 진리를 두고 시대와 력사 앞에 말하려는 작가의 주장과 결합되어야 한다.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인간문제로, 하나의 거창한 사회적문제성으로 전환될 때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인간이 지닌 숭고한 사상감정으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인민대중은 혁명위업의 대가 이어지는 력사적전환기의 인민대중이다.

다시말하여 수령을 따라 혁명을 하여온 인민들과 그들의 대를 이어 새롭게 력사무대에 등장한

새 시대의 인민대중들이다.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은 수령께 충직한 탁월한 인민의 지도자에 의하여 계승되며 따라서 수령을 따라 혁명을 하여온 로세대들과 함께 새 세대들은 다같이 인민의 지도자의 품속에 안겨진다.

이것은 력사적전환기의 인간문제에 대한 소설가의 구체적이며 진지한 철학적사색을 요구한다.

우리 소설문학은 인민대중과의 관계에서 펼쳐시고 계시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생활을 바로 이러한 방향과 각도에서 깊이 탐구함으로써 이 주제 소설의 종자를 성과적으로 골라쥐고있다.

단편소설 《출장길에서》(최재석)의 종자는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독창적인 우리 식의 경제관리체계창조에 깃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고심어린 탐구의 로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있는 이 소설은 인민대중과의 관계에서 그이의 위대한 생활을 깊이 파고들어 종자를 골라잡고있다.

소설에서 취급된 자재인수원과의 관계가 그러하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출장길에 오른 한 자재일군의 고충을 직접 목격하시는 과정에 인간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으로 일군들을 교양하시며 사람중심의 경제관리체계를 착안하신다.

작가는 여기서 주체사상을 완벽하게 체현하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인민대중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깊이 알게 되었으며 그것으로 하여 사람중심의 경제관리체계를 탐구하시는 위대한 생활의 근저에서 의의있는 사상적알맹이들 골라칠수 있었다.

소설은 인민대중과의 관계에서 그이의 위대한 생활을 깊이 파고들어 종자를 골라쥔으로써 위대한 사상을 제시하시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품모를 감동적으로 밝힐수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 소설문학은 오늘의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철학적무게를 가진 종자탐구에 계속 진지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품모를 형상하는데서 보다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며 이 주제의 소설문학에 대한 높아가는 인민들의 사상미학적요구에 응당한 보답을 해야할것이다.

백두밀영고향집 앞에서

-한 해외동포의 수기 중에서-

김석

구름너머 저 멀리 아득한곳
이름모를 지역의 어두운 길가에서
눈물속에 자라난 이몸
고향도 몰랐습시다
조국도 몰랐습시다

허나 조국은
나를 알고있었습니다
백두의 산상에 추녀를 높이 들고 서있는 집
이 고향집은 언제나
나를 불러주고있었습니다

사무치는 그리움 다 터치며
백두밀영고향집으로 오르는 이 순간
마치도 내 고향집 프락에 들어서는듯
마음은 부풀어 어리광치고

어서 오라 부르는듯
열려진 부엌문으로
마음은 벌써 들어섭니다
금시 가마목에 불을 지피면

내 마음도 끓어오를듯합니다

키낮은 책상우에 놓인
쌍안경과 조선지도에서
나는 보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고향을 찾았으며
어떻게 우리가 조국을 찾았는지
조선의 행복 넘친 오늘과
찬란한 래일도 보았습니다

아직도 귀기울이면 들려오는듯합니다
천고의 밀림에 메아리쳐간 항일의 총성
우리모두에게 새 삶을 주고
조국을 찾아준 그 메아리를

한걸음 옮겨도
새 삶의 숨결이 높뛰고
한번 머리들어 바라보아도
영광의 절정에 내가 올라선듯
귀중한 내 조국을 알게 하는
백두밀영고향집이여

나는 백두산에서 자랐다

박희구

내 여기 오르니
어느덧 회여진 나의 머리카락
해빛과 바람으로
백두는 쓰다듬어주고...
이 마음에는 나의 한생
백두의 품에서 흘러온듯

티없이 맑고 깨끗한 천지
저 영생의 젖줄기 마시여
나의 온몸엔 식을줄 모르는
뜨거운것이 굵이쳐흐르는가

여기서는 멀리 흘러간 그 시절
눈앞에 가까이 보여온다

이 분화구의 불길인양 하늘 뒤덮던
그 붉은 기폭의 한끝이
배움의 교정에 선 나의 어린 가슴에
붉은 넥타이로 날리고

성스러운 이 령봉우에 이끌려
나를 올려세워준 디딤돌이던가
언제나 걸음걸음 내 새겨온
항일의 피어린 회상기의 그 한자한자...

내 붓을 들고
금나락의 물결속에 서있어도
천길막장에서 암벽을 뚫어가도
내 걸은 그 모든 평범한 길마저

백두에서 시작된 혁명의 한길에 이어준
승고한 품

진정 내 삶의 자욱
흘러간 세월속에 묻혀버린것 아니구나
눈에 띄우지 않는 그 작은 자욱도
받들어 전사의 영예로 빛내여주는
혁명의 품이어

행복하구나
이런 품에 또한 여생을 맡기었거니
백두는 눈보라로 몸을 감싸주며
나의 피를 뚫어주고
나의 노래 불새 되어
들끓는 생활의 격랑을 누비며 나래치리라

머리숙여 감사를 드린다

그 무엇을 준대도 아니 바꿀
이 하나의 부석에도 한포기의 풀에도
뜨겁게 불을 비빈다

아, 당과 수령을 위하여
살아 한생을 투쟁속에 바쳐나가는 혁명가들
백두는 무변광대한 품을 열어 그들에게 안겨준다
만대에 빛날
혁명의 재부의 산악을!

천하를 굽어 거연한
위훈의 이 상상봉에 올라
혁명하는 보람으로 세차게 높뛰는 가슴
나의 심장속에서 뜨거이 울려나오는
오늘과 래일의 궁지높은 목소리 -
나는 백두산에서 자랐다!

어머님의 군복앞에

-조선혁명박물관에서-

김휘조

다가서니 포연내 상기 풍길듯
어머님 군복앞에 생각합니다
대사하의 언덕에 총탄이 튀는 언덕에
장군님을 보위하시여
한몸 방패가 되시던 그 순간을,

아닙니다 그것이 어찌 순간이리까
집집마다 밝은 바람벽에 걸어놓은
새 달력의 명절같은 날과 날들이고
학교가는 저 붉은 넥타이 아이들
꿈많은 나이를 다 합친 세월입니다
이제 또 먹을 새 나이도 다 합친,

눈부신 해빛아래

하늘이 웃고 땅이 웃고
찬란한 별빛아래
세월도 별처럼 빛나며 흐르는
오늘을 안아오신 어머니
김정숙어머님

다가서니 인자하신 미소도 어리여울듯
어머님의 군복앞에 생각합니다
저 거리 창문들이 언제나 밝으라고
넘치는 웃음이 더 활짝 꽃피라고
어머님은 오늘도 우리앞에 계십니다
친위전사의 이 한별 군복
우리모두 마음속에 입혀주시며

무산지구의 영원한 찬가

서봉제

기슭을 모르는 땅
숲속 오솔길 따라
급한 산발을 내리자
푸르른 압록강 내 발밑에 닿아
조국땅은 예서 끝난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그것이 아니구나
헤쳐온 만리광야우엔
하나의 실오리같이 보여도
투사들 가슴속에 사무쳤던 그리움
순간에 다 터친 조국의 첫기슭

소리쳐 부르면
정다운 목소리 메아리로 화답하고
뛰어 건느면
한걸음에 닿을수도 있었으련만

그리도 멀고먼
혈전의 준령, 고난의 행군길을
장군님 따라 헤쳐온 대오
이리도 가까이 마주서서는
선들 넘지 못하던
아, 5호물동-

다를바 없는 땅,
꽃도 그 꽃향기련만

흐르는 강 하나사이가 그 무엇이라고
멀리서부터 소리치며 달려와서는
목매여 부여안고 뜨거이 터뜨렸더니
아, 어머니 내 조국!

예 한줌 흙 품에 안고
다시 오지 못한 전사들도 많아
예 한떨기 꽃잎에 더운볼 비비며 다진
가슴속 뜨거운 약속이 있어
결전의 언덕도 웃으며 달려간 투사들

시련이 앞을 막고
불비가 쏟아져도
걸음걸음 장군님 손잡아이크신 그 길이
떠나온 고향으로 뻗어있는 길이였기에
이리도 이리히도 가까이 마주서서는
눈물이 앞을 가려, 감격에 목이 메어
선들 건느지 못하던 5호물동-

아, 북변의 압록강가
조국땅은 정녕 끝나는줄 알았더니
내 한생을 여기 서있어도
투사들의 그 뜻 다 새길수 없고
뜨거운 그 숨결 다시금 이어주는
어데 가나 어데서나 조국에 대한 생각
기슭을 모르게 하는 땅이여!

돌아보니 되돌아보니

원시림의 끝없는 정적은
깊은 고요를 불러내도
풀색배낭을 지고 걷는 마음
더 깊은 생각에 묻혀라

내 옷자락 스치는
이끼푸른 이 진대나무일수도 있으리
내 걸음 멈춰 눈길 못떼는
저 구호나무일수도 있으리

천리 먼 답사길을 떠나오며
내 마음속에 그려보던 백두밀림은
엄한의 눈보라가 갈기를 날리고

항일의 총포성 산발에 울부짖던
그 기상, 그 자취를 새겨안고
무성하는 숲으로만 알았건만

베개봉에 올라서니
동화의 세계에 들어서는듯
내 눈앞에 황홀히 펼쳐진
삼자연거리 삼자연거리-

금시 흰나래를 돌구고
푸르게 트인 하늘로 날을듯
호수가에 건듯 들린 은빛추녀
금시 문을 열고 터져나올듯

휴양생들의 희박은 웃음소리
 피로 찾은 행복을 알라고
 은빛지붕은 하늘에 머리를 들었는가
 그 행복 알아도 깊이 새기라고
 대리석기둥은 뿌리를 내렸는가
 가장 준엄했던 그 시절이
 내 걸음 못때는 숲속 가까이
 우등불자리로 그대로 남아있고
 가장 행복한 이 시절이

내 눈앞에 락원으로 펼쳐져있어
 빛나는 두 시대를 소중히 지켜선
 베개봉 베개봉
 아, 행복의 동산으로 나를 부르는
 밀림속 도시 삼지연거리여
 걸어온 길 돌아보니 되돌아보니
 아버지 우리 장군님 지새시였던
 저기 단 한겹 사령부의 흰 천막에서
 이 거리의 은빛지붕은 이어졌구나!
 이 도시의 첫 대문이 열려졌구나!

우등불가에서

하늘엔 달이 밝고
 숙영지엔 우등불이 타오르고
 벌써 그 몇날 깊은 생각을 실어보내며
 오늘은 무포에 천막기둥을 내린 이밤

그 누구의 은은한 선창에
 그 누구의 손장단 지휘도 없이
 달빛 내려앉는 우등불가에서
 마음을 합쳐부르는 노래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아, 귀에 쟁쟁해

어이 알라
 줄줄이 내리는 저 달빛
 도란히 흐르는 두만강 물소리
 무포의 그밤 잠 못드시던 김정숙어머님
 마음속의 그 노래 우리에게 싣고오는줄

이밤처럼 달밝은 숙영의 천막가라
 이밤처럼 밀림속에 타던 우등불가라
 어데서건 그 어데서건
 노래는 떼시면 늘 마치시였어도
 고향생각만은 다 풀지 못하시던 어머니

우리 가슴에 흘러젖어드는
 저 푸르른 두만강물 따라서면

에서 회령땅은 손끝 하늘밑이런만
 항일의 날엔 그리워 외우고 외우시더니
 광복된 그날에야 어이하여 못찾으셨던가

가난의 짙신자옥 강가에 남기시고
 마음속에 밟으시던 못잇을 고향이
 피바다 눈물의 강을 건너
 시련의 싸움길 넘고넘어
 기어 이 돌아갈 조국-장군님품이였기에
 대사하의 불붙는 그 언덕에선
 날아오는 총탄도 몸으로 막으신것 아니던가

사람마다 추억속에 때없이 찾고
 땀으로 가꾸며 궁지높이 부르는 고향
 이 땅의 그 모든 고향 한가슴에 품은
 향도의 해발 빛나는 조국
 우리 어머니님 마음속 노래와 함께 안아오셨나니

아, 무포의 이밤
 어머니님 지피셨던 그밤의 우등불
 답사대원 우리 가슴속에 다시 타오르는데
 못잇을 그날의 추억을 더듬어
 하늘의 밝은 달도 떠날줄을 모르는가

줄줄이 쏟아지는 달빛으로
 마음속에 샘솟는 그리움을 쌓고
 행복에 젖어 잠 못드는 천만가슴
 어머니님을 우리러 온밤 노래불러라!

옛 전장의 기념탑아래서

땅도 하늘도
 온통 불로 타는가

철쭉꽃 뒤덮인 벌
 탑은 하늘에 높이도 솟았구나

소리없는 봄바람에
스적이는 꽃송이
햇순을 서둘러 틔워
내 발밑에 포근한 잎푸른 잔디

아, 대홍단-예가 진정
멸적의 총포성 하늘에 울고
승리의 함성 온 강산을 흔들던
그날의 그 격전터란말인가

오늘은 떨기떨기
소담히 피어난 붉은 꽃송이에
영원히 안길 조국 위해 웃으며 달려가던
투사들의 그 눈빛 어려있고

관목숲에 묻혀
키는 솟구지 못해도
주단으로 펼친 푸른 잔디는
다시 올 맹세를 새기며 두만강을 건너간
투사들의 그 자욱 소중히 받들었구나

저 아름다리 이깎술이 아니더냐
꺼져가는 조국의 피흐르는 가슴에
재생의 더운 숨결을 이어주신
장군님의 그 한방의 충성
삼천리에 펼쳐가던 력사의 언덕이어

세월은 아득히
반세기의 긴긴 해와 달을 흘러넘었건만
일제의 대군 여기 미궁의 진펄속에 수장한
항일의 그 의지
필승의 그 함성
오늘도 붉은 꽃잎에 담아피우는 땅

빼앗긴 조국의 치욕이 가슴저러
투사들 이 산천에 더운 피를 뿌렸어도
저절로 이을수 없고
스스로 이어지지 않는 그 혈통, 그 정신을
백두밀림에서 안고온 붉은별 기폭으로
백승의 기념비는 하늘에 솟았나니

이 세상에 기념비는 많아도
어찌 순수 탑으로만 바라보랴
백두에서 뻗 그 첫걸음
이 세상 한끝까지 이어주며
우리 혁명의 리정표를 새겨주는 기념비
순간도 한순간도 놓을수 없는
반제자주의 기치를 지켜주는 영원한 탑!

오, 위대한 당을 따라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토록
신심높이 달려갈 백두의 행군길
불굴한 조선의 의지를 버려주며
칠쭉꽃은 락원의 땅에 불타고있어라!
불멸의 탑은 옛 전장에 빛나고있어라!

봄날에

김성철

먼산에 구성진 빼꾸기소리
언덕을 휘돌아흐르네 실개천 한줄기
푸르른 잔디밭우에
우리 작업반 단란히 둘러앉으니
반갑다 할미꽃도 고개숙여 인사를 하네

청제비야 하마트면 스칠라
선반공처녀의 머리에 앉힌 꽃 한송이
흥치는 바람결에 웃고름 나뭇기여라
쇠를 깎을 땀 쇠보다 더 탄탄한 성미라도
유정해라 노들강변 휘늘어진 춤가락

개창버들 흐느적이는 아지도 두드려보노라니
걸어놓은 기타줄 드릉드릉...
얼마나 좋으나

우리의 웃음 비껴 몸도 화창하고
산천에 흐르는 이 향취로
우리의 삶은 더 환희롭네

일터에서 맺은 정
서로서로 더 뜨거워지는 이 한때
로동의 보람, 가슴속 꿈도
노래로 춤으로 한껏 부풀어
부드러운 잔디마저 조국의 고마운 품만 같네

들꽃 향기도 취하도록 마셔보자
우리 만약 서리찬 들판에 서는 때 있다해도
이 쾌청한 봄날의 즐거움이야 어이 잊을라구
엄혹한 그날엔
조국이 걷는 자욱밑에 목숨도 고여주리

새로운 기술에서

-나의 《거 리》-

한웅빈

나는 이제까지 내가 이러쿵저러쿵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문제거리의 존재로 될 때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군대복무 전기간을 두고 씩씩하고 모범적인 《전사 강일호》, 《본대장 강일호》로 인정되어온 나였던것이다. 그런데 여기 간석지로 오자 다르게 되어버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대되어온 첫날 간석지 건설장을 한바퀴 돌아보고나서 안내해주던 사람이 《어떻소? 간석지가...》 하고 물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받은 인상 그대로 대답한데서부터 시작되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뭐요?》

그 사람은 푹푹히 들지 못한듯 다시 물었다. 그래서 나는 공손히 다시 대답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고...

그러자 그 사람은 벌떡 성을 냈다.

《마음에 안든다구? 여기가 어떤 일터인지 모르오? 땅이 제시한 30만정보 간석지를 건설하는 일터란 말이요!》

백번 옳은 말이였다. 하지만 내가 언제 간석지 건설을 마음 안든다고 했는가.

나는 그 어수선한 환경이며 생활이 마음안들뿐이다. 그리고 성은 왜 내는가. 그럴게면 뭇때문에 불었담? 벌난 사람이였다.

나는 원래 간석지와는 인연이 없는 동해안의 공업도시에서 태어났다. 대공장기업소들이 운집해있고 구내기관차들의 소란스러운 음향이 섞없이 메아리치는 공장굴뚝의 《술》에서 유년시절과 소년시절을 보냈고 청춘시절을 맞이했다.

군대복무만 아니었다라면 나는 언제까지라도 그곳을 떠나지 않았을것이다. 높고낮은 고동소리가 다투어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출근대렬이 풍만한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리, 그 거리를 나는 얼마나 사랑하였던가! 가로수일새에서도 증기기관차의 석탄연기냄새가 풍기는듯한 그 거리를 나는 행군의 실참 배낭머리의 쪽잡속에서까지 보곤 하였었다.

그런데 이곳은 공장굴뚝은커녕 가로수 한그루도 찾아볼수 없는 황량한 간석지였다. 땅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바다라고 하기도 어려운곳, (지도에서도 간석지는 뚜렷한 경계선대신 모래알을 뿌린듯한 점들로 표시한다.)고충건물대신 손을 쳐들면 처마가 잡히는 난쟁이 가설건물들의 《거리》, (이것도 거리라고 부를수 있다면!) 이 거리가 어

떻게 내 마음에 들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본사업소에서 배치해주는 직장에 가보니 직장장실에는 뜻밖에도 성을 내던 그 안내자가 앉아있었다. 그가 직장장이었던것이다.

《마음에 없다더니 어떻게 왔소?》

《배치받아 왔습니다.》

《배치?》 그는 또 성을 냈다. 무척 성을 잘 내는사람이였다. 《동무같은 사람들때문에 내 이 머리칼이 세오!》

그의 앞이마에는 정말로 센 머리칼이 몇오리 드리워있었다. 부지중 그의 센 머리칼이 몇오리 나될가하는 엉터리없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방에 앉아있는 한사람에게 머리를 돌렸다.

《반장동무, 이런 사람이라도 반아가겠소?》

반장은 대답대신 움쭉 일어나 모자를 집어들며 나에게 말했다.

《가자구.》

문가에 갔을 때 직장장이 불러세웠다.

《반장동무, 저 동무를 그 영기동무네조에 배치하도록 하오. 그 조에 신철동무가 있지?》

《예.》

《신철동무한테서 좀 배우라고 하오.》

직장장은 마치 내가 그자리에 없기라도 한듯 말에서 기탄없었다.

밖에 나오자 반장은 이렇게 말했다.

《직장장의 말을 타하지 말라구. 처음 와서 영예로운 간석지요, 보람찬 일터요 하고 노래부르듯하던 사람들중에서도 도로 가겠다는 사람이 튕겨나오는관인데 동문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는 직장장보다 퍼그나 리해력이 있어보였다.

그런데 나는 그만 반장앞에서도 또 《실수》를 하고 말았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반장이

《맛이 어떻소?》

하고 물었을 때 나는 그만 《국맛이 말이 아니로구만요.》 하고 말해버렸다. 사실 국은 말이 아니였다. 다시마국이었는데 전혀 맛이 없었다. 국을 제대로 끓일줄 모르는것 같았다. 게다가 밥에 서는 탄내가 났다.

반장은 더는 아무말도 않고 밥만 수걱수걱 퍼먹었다. 마지막에는 보라는듯이 국사발을 들어서 물마시듯이 들이키고는 일어섰다.

《호실로 가세!》

그는 호실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홀 열었다.

호실에는 다섯사람이 있었다. 두사람은 장기를 두고있었고 한사람은 모포를 배에 깔고 엎드려 책을 보고있었다. 또 한사람은 모포를 뒤집어쓰고 자고있었고 열아홉살쯤 되어보이는 어린 총각은 장기군들옆에 앉아 장기판을 들여다보고있었다.

모포가 여기저기 널렸고 배낭들은 보따리처럼 한구석에 모여있었다. 배낭고도 없었고 옷걸이에는 작업복과 외출복이 마구 뒤섞여 걸려있었다.

《동무가 있을 호실이요. 어떻게?》

하고 반장이 물었을 때 나는 불쑥 생각나는대로 대답해버렸다.

《려관방 갈구만요.》

《려관방?》

반장은 천정을 쳐다보았다.

《문제로구만!》

려관방같은데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임이 명백했다. (혹시는 모른다. 내가 제대군인이 아니었다라면 호실이 괜찮게 보였을는지도.) 게다가 반장의 소개로 호실사람들과 인사를 할 때 (그들이 내가 같이 일하게 될 작업조성원들이었다.) 책을 보던 청년이 《리신철입니다.》 하는것을 듣자 나는 내가 문제있는 대상으로 되어버렸음을 대뜸 깨달았다. 반장도 그렇게 생각했기에 나를 직장장의 말대로 리신철이라는 청년이 있는 조에 데려왔을것이였다. 사상박의 결과였으나 나는 그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나도 이 간석지건설장이 어떤 일터인지를 모르지는 않았다. 오히려 잘 알고있었다. 우리당이 구상한 30만정보 간석지 건설의 한 전선이며 조국땅을 넓혀가는 거창하고 보람찬 대자연개조사업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있었다.

지금은 바다도 땅도 아닌, 밀물과 썰물만이 드나드는곳이지만 래일에는 꽃피고 열매맺는 조국땅의 확고한 한부분으로 될것이다. 푸른 빛이라고는 찾아볼수 없고 일년 사시절 해홍나물의 녹슨듯한 붉은 색조밖에 모르는 간석지가 계절에 따라 옷차림을 바꾸는 아름다운 처녀와 같이 다정다감한 대지로 될것이다. 황금벌에 울려갈 프락포르의 동음, 억년 영원할 조국의 새로운 한부분을 창조한다는것은 얼마나 영예로운 일인가. 새로운 땅을 찾아내어 이름을 천추에 전하는 탐험가나 지리학자도 있었지만 나는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는 창조자이다! ...

허나 이것은 생각일뿐이였다. 리성으로 얻어낸 생각이였다. 감정은 간석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어데를 보나 을씨년스럽고 생기없는 기슭...

나는 흥떡거리는 배우에 앉아있었다.

바다가운데는 마주오던 두 제방이 300미터상거

를 한채 떴어있었다. 두 제방이 합치면 5,000정보의 새로운 땅이 생긴다. 남은 구간은 불과 300미터였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껏 막아온 몇키로미터 전부를 합친것보다 더 어려운 구간이였다. 수심이 30미터를 넘었고 만조때면 40미터에 달했는데 밀썰물때면 300미터 좁은 폭은 거대한 폭포수를 련상시켰다. 돌이면 돌, 흙이면 흙, 처넣는대로 종적없이 휩쓸어간다는것이였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요?》

나는 갑판을 닦고있는 선원에게 물었다. 그는 바다물을 바깥으로 퍼올려 갑판에 끼었으며 대답했다.

《큰돌을 많이 넣어야지. 대형부재도 만들어 넣고...》

두 제방사이로는 하루에 몇번씩 배가 오갔다. 나는 맞은편 기슭에 가보려고 배에 올랐었다. 한 호실사람들은 조개구이하려고들 나갔다.

배는 통통거리며 건너가고있었다.

맞은편 기슭은 내가 있는쪽처럼 단조롭고 을씨년스러워보이지 않았다. 그쪽에 종합사업소 사무실이 있다는 말을 들은때문에 그렇게 보였을수도 있었다. 아름답고 풍만해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배가 맞은편 제방에 다가감에 따라 홍미는 점점 사라져갔다. 녹슨듯한 붉은 빛의 해홍나물이 자라난 기슭, 여기저기에 희속희속 드러난 채석장, 물에 떠있는 부림배와 부표들, 굴착기와 광차... 이쪽 기슭도 내가 떠난 기슭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버럭도, 물도 똑같았다. 어찌보면 떠난 기슭으로 되돌아온듯도싶었다.

나는 제방에 내려서서 떠난 제방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쪽기슭이 오히려 더 훌륭해보였다. 기슭이란 멀리서 볼수록 훌륭해보이는 듯했다.

배고동소리가 울렸다. 되돌아가려는것이였다.

나는 서둘러 배에 다시 올랐다. 여기서는 할일이 없었다. 덤벼치며 오르다가 나와는 반대로 배에서 서둘러 내리는 한 처녀와 부딪쳤다.

《어마나! 책!》

이미 부두에 내려선 처녀가 소리를 쳤다. 나와 부딪치는바람에 갑판에 책을 떨어뜨렸이였다. 집에서 그에게 내밀어주었다.

파란 양복을 입은 호리호리한 처녀였다. 처녀는 책을 받아들며 나를 쳐다보았다. 맑고 큰 눈이였다. 그 눈에는 처녀다운 호기심과 함께 미소와도 같은 빛, 그리고 그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가 어려있는듯했다. 그 눈은 파르스름하게 보였다. 바다불빛과 푸른 하늘이 어려서인지...

배는 떠났다. 처녀는 제방으로 올라가고있었다.

파란 치마아래에서 탄력있게 움직이는 흰다리는 갈색제방쪽에서 유묘하게 두드러지며 처녀를 더 호리호리하고 날씬해보이게 했다.

처녀의 몸은 마치도 가느다란 용수철을 련상케

하였다. 굵실굵실한 머리칼이 어깨우에서 물결처럼 설레었다. 세찬 간석지바람이 그 처녀에게서는 부드러운 바람으로 변하는듯했다...

내가 왜 저 처녀를 배에서 보지 못했을까. 하긴 명칭하니 기슭만 보고있었으니까.

배에서 내려 나는 맞은편 제방을 바라보았다.

처녀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까닭없이 허전해졌다. 자신이 퍼그나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알지도 못하는 처녀를 두고...

해감내를 실은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물소리가 썩-하고 높아지기 시작했다. 밀물시간이었다. 밀물을 따라 갈매기들이 가-가-하고 소리높이 부르짖으며 날아돌고있었다. 두 제방사이의 폭포가 쏟아지는 거대한 여울목으로 변했다. 귀를 멍멍하게 하는 물소리, 세찬 바람, 제방이 통채로 휩쓸려갈듯했다. 기슭은 더한층 스산해지고 생기를 잃었다. 문득 자신이 그 어떤 황량한 무인지경에 서있는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것이 과연 이제부터의 나의 일터란 말인가...

그때 맞은편 제방끝에 아까의 그 처녀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제방끝에서 서서 세찬 물흐름을 내려다보고있었다. 푸른 옷자락과 호리호리한 몸... 단조롭던 기슭은 순간에 활기를 띠는듯했다. 세찬바람에 머리칼과 옷자락을 날리며 서있는 처녀. 그의 모습은 가장 부드럽고 매력적인 곡선으로 이루어진 조각상과도 같았다. 그의 머리위로 갈매기들이 스칠듯이 활기에 넘쳐 날아오가고있었다.

다음날 나는 첫작업을 나갔다. 채석장에서의 작업이었다. 채석장 등판에서는 제방이 멀리로 내려다보였다. 그때 나는 저쪽제방끝에서 어제의 그 처녀의 모습을 발견했다. 거리가 멀었으나 몸매와 옷차림으로 첫눈에 그 처녀라는것을 알아보았다.

그는 우에는 솜옷을 입은것 같았고 손에는 신호기발을 들고서있었다. 사람들은 그 처녀가 신호기발로 자동차의 하차와 자동부림배의 투식을 《지휘》하고있다고 말해주었다. 《신호공이지!》

그다음날에도, 또 그다음날에도 그 처녀는 그곳에 서있었다. 신호공의 위치가 그곳이었다.

나는 며칠 지나는 사이 그 처녀와 《친숙해지고》 말았다. 때로는 제방끝에 나가 맞은편 제방 끝에서 일하는 그의 모습을 한동안씩 바라보기도 했다.

그 처녀가 보이지 않을 때는 허전함을 느꼈고 그 처녀가 나타나면 기쁨을 느꼈다. 가슴이 울렁거리기도 했다. 처녀는 마치도 우리 제방으로 가까와오는 맞은편 제방의 상징인듯이 느껴졌다. 아니, 간석지의 상징처럼 느껴졌다고 해야 정확할것 같다. 그 처녀가 나타나면 나에게서는 을씨년스럽던 간석지도 생기를 띠는듯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때때로 나는 그 처녀의 얼굴을 눈앞에 그

려보기도했다. 그러나 그 얼굴은 툭툭조차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파르스름하게 보이던 맑은 눈동자만이 또렷이 떠오를뿐이었다.

나는 그 눈동자와 마음속으로 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그 눈동자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듯했다.

《전 간석지를 사랑해요. 몹시.》

그때면 나는 열렬하게 긍정해주고싶은 마음으로 반문하곤했다.

《무엇때문에?》

《나도 모르겠어요. 왜서인지는. 하여튼 난 사랑해요.》

《나도 동무처럼 사랑하게 될까?》

《사람하게 될거예요. 꼭 그렇게 될거예요.》

그 눈동자가 떠오를 때면 나는 부지중 생각하곤했다. 만일 바다에 눈동자가 있다면 그 처녀의 눈동자와 같을것이라고...

채석장에서의 작업은 조별로 진행되었다. 우리 작업조는 일곱명이었다. 호실에 있던 다섯사람과 나, 그리고 문희라고 부르는 처녀가 한명 또 있었다. 그래서 채석장등판에 들어서서 지레대로 돌을 굴릴 때면 그 늘어선 모양이 북두칠성의 형국과 비슷했다. 아니, 언제나 그렇다고 말할수는 없었다. 작업조의 유일한 처녀인 문희는 우리가 돌을 굴릴 때면 대체로 레루길을 청소하거나 마실 물을 드려가곤했던것이다.

채석장등판에서는 온 간석지건설장이 사관처럼 내려다보였다. 해홍나물의 연꽃은 군락속을 꿰질러 철썩거리는 흰바다속으로 뻗어나간 제방과 채석장, 여기저기에 자리잡은 상차대들에서 뻗어나간 수십줄기의 레루길이 똑똑히 보였다.

그중의 하나가 우리 작업조의 레루길이었다. 우리 레루길은 제방이 아니라 부두에 연결되어있었다. 광차에 막돌을 싣고나가 자동부림배에 실어주면 부림배는 제방끝으로 끌려나가 그것을 물속에 쏟아붓는다. 그러면 우리는 또 실어주고 부림배는 또 쏟고...

텔레비죤이나 영화에서는 간석지라고 하면 막돌을 투식하는 부림배와 그 장쾌한 물기둥으로 화면을 가득 채운다. 나도 간석지로 오기전에는 그것이 간석지 일의 기본인것으로 알고있었다. 그러나 알고보니 실어주는 일이 기본이였고 투식하는 일은 휴식처럼 취급되고있었다.

《이번엔 누가 나가겠나?》

배가 다 차면 조장은 이렇게 묻곤했다.

부림배에는 선장겸 선원이 한명뿐이었는데 루석할 때에는 배의 뒤편에 있는 고리를 동시에 벗겨주어야 했던것이다.

《내, 내, 내가 나가요!》

조장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덤벼치며 달려나가는것은 대체로 조에서 제일 나이 어린 문남이었다. 그는 흥떡거리는 배갑판에서 물보라를 뒤집어쓰는것이 펍 마음에 들었던것이다.

나이는 열아홉살, 어리다는 말을 제일 싫어했고 누가 나이를 물으면 《스무살이 다 됐쥬요.》하고 대답하곤했다. 며칠전에는 숨털이 보르르한 턱과 코밑에 갑자기 면도질을 시작했다. 그렇게 하면 진짜 수염이 빨리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었다.

《원, 저렇게도 빨리 늙고싶은가?》

하고 영기조장은 그 모양을 보고 기가 막혀서 개탄했다. 그는 우리 작업조의 년장자로서 《아바이》라고 불리웠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는 겨우 마흔살이었다. 우스운것은 그가 《아바이》라는 이름을 웅당한것인듯 받아들이고 말이나 행동이 진짜 아바이처럼 느릿느릿한것이였다. 《아바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성미가 원래 그래서 《아바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는지... 나만은 그를 《조장동지》라고 불렀다. 《아바이》라고 부르기가 어쩐지 어색했다. 그것이 조장의 마음에 들었는지 안들었는지는 알수 없었다. 하여튼 그는 모든 일에서 아바이다왔다. 내가 온 첫날에도 그는 모포를 뒤집어쓰고 자고있었었다.

지금도 그는 느릿느릿 지레대질을 하고있었다.

그런데도 옆에서 땀을 흘리며 지레대질 하는 나 보다는 물론이고 성급하게 해대는 《삼촌들》의 쌍지레대질보다도 더 많은 돌을 굴러내렸다.

《삼촌들》이란 내가 호실에 들어갔을 때 장기관 앞에 마주 앉아있던 두사람이였다. 둘이 다 갓 서른에 났는데 마주 앉으면 노상 서로 웃사람이라고 우겨댔다.

《삼촌앞에서 버릇없이! 조카가 그러면 왜?》

한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혀를 찡찡챠다.

《못써! 삼촌앞에서!》

그런 식의 말씨름은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되곤했다. 싫증을 느끼지 않는것이 이상할정도였다. 조장은 그들을 찾을 때면 간단히 《여-삼촌들!》하고 부르곤했다.

그옆에서는 신철이 내의바람에 기운차게 지레대질을 하고있었다. 직장장이 나더러 따라배우라던, 이를테면 《나의 본보기》였다.

그는 사실 감탄할만한 친구였다. 어떤 불편이 생겨도 미리 준비하고있었던듯 혼연스러웠다. 누가 투덜거릴라치면 《그만하라구, 우리가 뭐 간석지로 올 때 호사하길 바란거야 아니잖아?》하고 말하곤했다. 그는 모든것에 준비되어있었다.

그런데 리해할수 없는것은 조장이 그를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듯한 점이었다. 나에게 그렇게 느껴질뿐인지 ...

《그만하고 내려가세-!》

조장이 소리쳤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물통을 든 문희가 와있었다.

우리가 어정어정 내려갔다. 나는 그들이 이제 물을 마시며 무슨 말을 할것인지를 알고있었다.

조장은 《아- 이게 맥주라면 좋겠다!》 할것이고 《삼촌》들은 서로 버릇이 없다고 탓하고는 《문희동무가 떠오니 물맛이 더 좋구만!》 할것이다. 신철은 《간석지 물맛이란게 참 괜찮거든!》 할것이고...

그런데 신참으로 달려가 물통을 연 문남이가 놀랜 소리를 쳤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거야?》

《왜? 맥주라도 가져왔나?》

하던 조장은 물통을 들여다보더니 문남이와 똑같은 소리를 했다.

《이제 어떻게 된 일ियो?》

문희는 풀기없이 대답했다.

《물이 없대요.》

《물이 없다니?》

《물실러간 프락토르가 오지 않았대요.》

《개관이로군!》

결에서는 바다물이 씹없이 출렁거리지만 먹을 물이 없어서 프락토르로 실어와야 하는것이 간석지다.

《프락토르가 언제 갔게 아직 안온다는거야?》

《또 짹짹 놀쿠다가 저녁때가 다 되어서 떠났겠지.》

《삼촌들》이 프락토르운전수에게 욕을 퍼붓자 문희가 말했다.

《급한 물동이 생겨서 한탕 싣다나니 조금전에야 떠났대요.》

《무슨 물동?》

《하여튼 급한 물동이라던데... 직장장동지의 지시래요.》

나는 불끈 지미는 생각을 그대로 말했다.

《아니? 먹을 물보다 더 급한 물동이 어데 있던 말ियो?》

《아 아, 그만합시다. 급한 물동이니 그랬겠지요.》 신철이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래서 간석지가 아닙니까?》

나는 그의 이 쾌활성과 침착성이 부러웠다.

그런데 조장은 망치를 찾아들며 느릿느릿 한마디 하는것이였다.

《이래서 간석진거야 아니지.》

모두 망치를 들고 큰돌들을 깨뜨리기 시작하였다. 깨뜨리지 않고서는 광차에 그냥 들어올릴수 없었다.

나는 한참 돌을 깨뜨리느라니 제방에 큰돌이 들어갈수록 좋하던 말이 생각났다.

《이건 왜 다 깨뜨리나?》

《들수 없으니 깨지요 뭐.》

문남의 말이였다.

《들지 않고 실게 해야지.》

《어떻게요?》

《굴착기로 들던가...》

그때 한 《삼촌》이 끼여들었다.

《굴착기? 굴착기를 끌어올 재간이 있으면 끌어오게나.》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슬며시 화가 났다. 나도 굴착기가 당장 어렵다는것을 몰라서 말한것이 아니었다. 상차대를 부쩍 늘이면서 미처 굴착기가 보장되지 않아 우리 작업조처럼 인력상자를 하는 작업조들이 더러 있다는것도, 이것이 립시적인 조치라는것도 알고있었다.

《어떻든 굴착기가 오겠지요? 이 돌들을 모아두었다가 그때 한꺼번에 실으면...》

《그때까지 기다리다간 간석지는 언제 막겠냐?》 신철의 침착한 말이였다. 《또 간석지 일이라는게 원래 이래. 힘들기도 하고... 또 쉬워서야 무슨 일하는 맛이 나나?》

문남이 일른 한마디를 끼워넣었다.

《일호동진 간석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때 조장이 버럭 소리질렀다.

《오늘은 무슨 말들이 이렇게 많아? 문남이! 일은 손으로 하는거야!》

문남은 찢끔하여 자라목이 되면서도 투덜거렸다.

《한마디밖에 안한 사람보구 야단이네.》

그는 조장의 큰소리가 사실은 나에게 향한것임을 알아차리지 못한것이였다. 조장이 문남의 이름을 부르며 큰소리친것은 내가 제대군인이라는 점을 존중해서였을것이다.

조장이 광차를 밀고 나간후 신철은 은근한 어조로 나에게 말했다.

《일호, 여긴 군대하군 달라, 이런저런 의견을 말하는걸 좋아하지 않아.》

그는 거꾸로 알고있었다. 군대야말로 이런저런 의견이 아니라 《알았습니다》 한마디만을 요구로 하는것이였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의아스레 그를 보며 반문했을뿐이였다.

《그럼?》

《잠자코 일하는게 제일이지.》

《왜?》

어리석은 반문일수도 있었으나 나는 대답을 듣고싶었다.

《광차가 들어오누만.》

신철은 대답을 피했다. ...

잠자코 일이나 하라. 잠자코... 나는 어둠에 싸인 길을 걸으며 신철의 말을 생각했다.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이였다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조장도 역시 그런 뜻으로 말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좌우에는 하나의 활자로 찍어낸 글자처럼 똑같은 키낮은 가설건물들이 빼곡이 들어섰다. 창문마다에서 전등불빛이 말소리, 장기쪽 두드리는 소리를 싣고 흘러나온다. 때때로 기타소리, 하모니카소리도 들린다. 노래소리도 들린다.

달빛도 밝은 간석지 이밤...

왜 잠자코 있어야 하는가. 왜 할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있는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혹은 이것이 사회생활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생활의 특징이나 아닐까...

그밤, 무엇보다도 나를 괴롭힌것은 작업조에서 내가 물우에 뜬 기름방울같은 존재라는것이였다. 잠자코 있지 않기때문일가.

구슬땀 흘린 청춘의 보람 가슴에 넘쳐나네

...

길은 찬바람에 살얼음이 저서 미끄러웠다. 낮에는 소금밭이 희끗희끗 내놓는 길이다. 트랙포르가 깊숙이 파놓은 도랑같은 바퀴자리에서는 감탕이 쿵쾅쿵쾅 소리를 낸다. 때로는 한숨쉬는듯한 소리를 내기도 한다. 부풀었던 길이 내려앉는것이다.

아, 그밤, 나는 얼마나 내가 나서자란 거리가 그리웠던가, 떠들썩한 노동자들의 도시, 구내기관차의 예리한 기적소리가 밤낮없이 대기를 흔드는 거리, 그 거리에서라면 나는 결코 이렇게 쓸쓸하지 않을것이다...

탕탕탕 하는 트랙포르소리에 나는 머리를 들었다.

앞에서 트랙포르가 분주히 헛바퀴를 돌리고있었다. 감탕에 빠진것이였다. 《거리》복판에서 트랙포르가 빠졌다고 해서 조금도 놀라울것이 없었다. 환한 대낮에도 트랙포르가 빠져 애먹는적이 드물지 않은 《거리》였다.

운전수와 조수가 씨근거리며 분주히 돌아치고있었다.

나는 길가에 덩구는 가마니를 바퀴밑에 넣어주었다. 트랙포르를 밀었다. 그러다보니 그들의 일에 저절로 끼여들게 되고 말았다. 트랙포르는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했다.

길옆의 창문이 열리며 화가 난 목소리가 날아왔다.

《이거 왜 집옆에 세워놓고 통탕거리? 쟤장!》

운전수는 화도 내지 않고 대답했다.

《오-인차 가네-!》

왜 트랙포르가 빠졌는데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지 나는 알수 없었다. 운전수는 시무룩이 웃었다.

《빠질 때마다 사람들을 부르다간 온 간석지가 일을 못하고 트랙포르만 따라다녀야 하게?》

다른 창문에서 또 화난 목소리가 날아나왔다.

운전수는 역시 늘어지게 대답했다.

《한대 피우고 가겠네-!》

우리는 한동안 역사질을 해서야 진창에서 트랙포르를 뽑았다.

창문들은 조용해졌다. 하도 오래동안 통탕거리니 습관된 모양이였다. 습관되지 않는 일이란 없다고 판다. 나도 이 《거리》, 이 생활에 습관될수있을가.

《수고했수다. 자-한대 피우시우.》

그때야 우리는 진짜 담배를 한대씩 피워 물었

다.

나는 호실로 향했다. 물에 젖고 감탕으로 매탁
질된 작업복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창문들은 이미 거의다 불이 꺼졌다. 어느 창문
에선가는 코고는 소리가 흘러나오고있었다. 발밑
에서 살얼음이 부스러진다. 길을 밝히지 못하는
희미한 외등이 표식등처럼 한두개 꺾벼거리는
《거리》… 그렇다. 이것도 거리다. 집이 있고 길이
있고 사람이 있다. 생활도 있다. 간석지건설자들
의 《거리》라고 할가. 이런 거리가 우리 나라 어
디에 또 있을까. 나도 과연 이 《거리》를 사랑하
게 될때가 있을까.

문득 크고 맑은 눈동자가 떠올랐다. 푸른 하늘
도, 쪽빛바다도 다 비껴있던 파르스름한 그 눈동
자… 그도 지금 이런 《거리》를 걷고있을것이다.
《어마나!》

집모퉁이를 돌아서는데 마주오던 처녀가 깜짝
놀래여 오뚝 섰다. 금시 도망쳐버릴듯하더니 조
심스레 물었다.

《저-일호동무 아니예요?》

문희였다.

《어데 갔댔소?》

《…》

그는 언제나 내 말에는 침묵으로 대한다. 그
침묵은 항상 나의 자존심을 자극했다.

《내 한가지 묻지요.》

《뭔데요?》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일으켜세운 경계심이 느
껴졌다.

《동무생각엔 오늘 내가 뭘 잘못된것 같소?》

《난 몰라요.》

말하기 싫다는것이다. 이것은 비난이나 침묵보
다 더 나쁜것이다. 나는 자신에게 화가 났다. 무
엇때문에 이 처녀에게 그따위를 물었을까. 동정
이라고 구하듯이 …

《어마나, 옷이 왜 그렇게 됐어요?》

나는 돌아서버렸다.

《감탕판에서 헤염쳤소. 망둥어잡이를 하느라
구…》

《…》

걸음을 옮겼다. 뒤에서는 잠시후에야 자박자박
떨어지는 발자국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보았다. 외등불빛아래로 걸어가는 문
희의 모습은 투박한 작업복과 우에 걸친 솜동복,
로동화로 하여 무척 뚱뚱해보였다. 이른봄의 이
《거리》에는 작업 복과 로동화, 솜옷이 더 어울린
다.

나는 세면장으로 들어갔다. 작업복을 물에 대
중이라도 행구어야 이튿날 입을수 있었다.

그러나 세면장에는 물이 없었다. 별수없이 불
을 피우고 옷을 말리기 시작했다. 마른 다음에
감탕을 비벼서 털 작업이었다. 그런데 불기운에
몸이 녹아들며 졸다보니 불씨가 튀어 주먹만한
구멍이 너댓군데나 뚫려버렸다. 나는 작업복을
화구간 천정에 처박아넣고 말았다.

이튿날은 군복을 입고 일하러 나갔다. 사람들
은 갑작스런 군복차림에 의아한 기색들이었다.

문남은 눈이 휘둥그래서 물었다.

《그 옷을 입고 일할려구요? 작업복은 어떻게
했어요?》

《태워먹었어.》

《그건 어떻게 돼서요?》

《조개구어먹다가…》

뒤에서는 문희가 따라오고있었다.…

이날은 조장이 이상스럽게도 큰돌을 깨느라고
하지 말고 한열으로 굴려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굴착기가 인차 온다누만. 또 공무직장에서 장
석기중기를 만드는데 며칠 있으면 시운전을한다
고 하고…》

나는 조장을 새삼스럽게 다시 보았다. 어제는
어느말이건 한마디도 귀담아듣는것 같지 않았는
데 이제 보니 그런것도 아니었다. 어제의 큰소리
도 나에게 향한것이 아니지 않을까. 그럼 누구에
게…

문남은 망치를 집어던지며 기뻐했다.

《그러니 망치하군 작별이구만요.》

신철이 역시 벅글거리며 말했다.

《그것보다도 큰돌이 들어가면 제방망이가 빨라
지는게 좋지.》

그도 그것을 알고있었다. 잠자코 일하는것이
제일이라는 생각으로 입을 다물고있었던것이다.
어떻게 그럴수 있을까…

그런데 오전시간이 거의 지났을 때 직장장이
나타났다. 그는 작업장을 한바퀴 돌아보고는 조
장을 불렀다.

조장은 부림배를 타고 투석하러 나갔었다. 직
장장은 누구에게라없이 우리를 돌아보며 말했다.

《작업장이 왜 이렇게 어지럽소? 저 돌들은 뭐
요? 오늘중으로 깨뜨려서 싯던가 정리하라고 조
장동무에게 말하요. 깨뜨리지 못할건 발파하고!》

나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모두들 잠
자코 서있었다. 《삼촌들》은 원래 어데 참견 안
하는 성미였고 문남이는 아직 애송이였다. 문희
는 자기에게 묻기전에는 말을 안하는 처녀였다.
말할 사람은 신철이였는데 그는 이상하게도 잠자
코있었다.

《알겠소?》

《예.》

하는 신철의 대답에 나는 의아해졌다. 아무래
도 말해야 할것 같아서 직장장의 앞으로 나섰다.

《이 돌들은 굴착기가 온 다음에 실을수 있지
않습니까? 장석기중기도 며칠안으로 시운전하
면…》

《가만! 동무 누구던가?》

직장장은 짐짓 기억나지 않는듯 나를 아래위로
 훑어보더니 쓴웃음을 지었다.

《동무였구만! 동문 어떻게 그리 잘 아오? 직장
장도 모르는것을!》

나는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다음 순
간에는 강한 반발심을 느꼈다.

《하어튼 굴착기가 오겠지요? 장석기중기도 되
고… 며칠 더 기다리면 그대로 실을수 있을텐데
아까운 쪽악을 없애면서 깨뜨릴 필요가…》

그때껏 나에게 연신 눈짓하던 신철이 더는 참
을수 없는지 나의 팔을 잡아당겼다.

《일호, 직장장동지앞에서 이게 뭔가?》

그때 뒤에서 조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돌들은 내가 그냥 뒤두라고 했습니다.》

투석하고 돌아온 그의 얼굴에는 물방울들이 텅
겨있었다. 어떤 물방울들은 말라서 흰반점으로
되였다. 바다물은 맹물이 아니라 짠 소금물인것
이다.

《굴착기도 인차 온다고 하고 또 공무직장에서
장석기중기를 곧 시운전한다고 하더군요.》

《하어튼.》

직장장은 말을 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매일아침까지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워놓소.
발파를 해서라도 말이요. 알겠소?》

일에서도 불문물이라는것이 있는것 같았다. 조
장이 아무 의견도 더 내놓지 않고 대답했던것이
다.

《그렇게 하지요.》

직장장은 가버렸다.

조장은 말없이 바위돌우에 털썩 앉아 담배를
피워물었다. 나는 참다못해서 은근하게 물어보았
다.

《정말 발파하겠습니까?》

그는 나를 흘깃 보더니 버럭 소리질렀다.

《문남이! 착암기를 가져와!》

문남은 일어나지도 않고 코웃음을 쳤다.

《벌써 가져오는데 뭐.》

바라보니 신철이 어느새 착암기를 메고 공기호
스를 끌며 오고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 작업장에서는 어지간한 큰돌들
을 모조리 깨뜨려버리는 발파소리가 한동안이나
우렁차게 울렸다. 소리를 들어서는 수백립방썰
쏟아지는것 같았으나 쓸모있는 큰돌을 쓸모없는
작은 돌로 만들었을뿐이었다.

갑작스런 《청소작업》의 원인은 이튿날에 밝혀
졌다.

종합사업소 지배인과 텔레비존촬영가가 내려온
것이였다.

그러나 지배인은 우리 작업장에는 들리지도 않
고 지나갔다. 하긴 우리 직장 작업장만해도 수십
개소나 되였다.

종합사업소에 분사업소가 다섯개, 직장은 스무
개도 넘다보니 작업장은 수백개소에 이른다고 한
다. 작업장마다 일일이 둘러보다가는 일년내내
다른 일은 애당초 못할것이다.

《그래서 반장도 있고 직장장도 있는거지. 분사
업소 지배인도 있는거구.》

하는 조장의 말을 문남이 얼른 받았다.

《조장도 있구요.》

《까불어대는군.》

그런데 일은 예견과는 다르게 되어버렸다. 활

영가는 운동장처럼 번번해진 우리 작업장이 아니
라 큰돌들이 울퉁불퉁한 다른 직장 작업장들을
찍었다. 큰돌우에 올라서서 대함마를 휘두르는
씩씩한 모습들이 그의 마음에 들었던것 같았다.
그에게서 우리는 없는것과 다름없었다.

게다가 우리 작업조는 《청소》바람에 다른 일
에서도 툭툭히 손해를 보았다. 그날저녁 공무직
장에서 완성된 장석기중기를 시운전해보려고 끌
고나왔는데 우리 작업장에는 큰돌들이 없어서 다
른작업장으로 끌고가버렸던것이다. 그것을 다시
끌어온다는것은 어렵도 없는 일이었다. 저쪽 작
업조에서 내놓을리 만무였다.

《예의! 그때 그냥 버리였어도 되는걸! 내 배짱
을 내밀려다가 참았더니!》

배짱이라고는 전혀 없는 《삼촌들》이 큰소리를
쳤다. 문남이는 새빨간게 되어서 목소리를 높였
다.

《다 직장장때문이야! 채석장에 돌이 널려있으
면 어떻다는거야? 운동장인가?》

신철이도 아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으나 이러
게 말했다.

《누가 이렇게 될줄이야 알았나? 직장장동지도
그렇지 뭐. 장석기중기가 이렇게 빨리 나올줄은
몰랐을게거든.》

조장은 말없이 담배만 피우더니 한숨을 쉬었
다.

《어찌겠나? 기계복이 없는걸. 이제 굴착기를
기다릴수밖에.》

《흥! 굴착기가 오면 우리부터 주겠대요?》

문남은 지지 않고 투덜거렸다.

그때 마침 직장장이 나타났다. 그러자 모두들
일시에 와-하고 들이댔다. 좀체로 그런 말을 앓
던 신철이까지 몇마디했다.

그러나 직장장은 성낼대신 찰쩍 웃을뿐이었다.
기분이 몹시 좋아있었던것이다.

나는 묵묵히 앉아있었다. 옆에서는 레루길을
청소하는 문희의 삽질소리가 들리고있었다.

직장장이 가버린후 문남은 나에게 불쑥 들었
다.

《일호동진 왜 가만 있쉬요? 분하지도 않아요?》

《그건 뭐하러? 달라질수 없는 일을 두고 말하
는건 불평밖에 안돼.》

나는 문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있음을 느
꼈다. 삽질소리가 멎었던것이다. 돌아보았다

문희는 나와 눈길이 마주치자 흠칫하며 얼른
레루길로 허리를 굽혔다.

이상한 일이다. 그는 내가 작업조에 온 첫날에
도 《강일호라고 하오.》 하자 놀랜듯 눈길을 쳐
들었다가 얼른 떨켜버렸었다. 왜 놀랜 빛을 보였
을가.

하긴 나도 그를 어데선가 본듯한 느낌이 들었
다.

달그락 달그락 삽질소리... 뭐 저런 등글등글한
처녀들이 적다구? 눈만은 펍 인상적이었다. 맞
은편 제방에 있는 그 처녀의 눈과 놀랄만큼 비슷

했다. 그래서 나의 눈길이 때때로 문희에게로 끌려가는것인지도 모른다.

그날저녁 일을 끝내고 들어오니 세면장에 물이 없었다. 프락프리가 미처 실어오지 못한것이였다.

문남은 먼지묻은 얼굴 그대로 모포우에서 덩굴고있었다.

《여, 세면두 안하구 덩굴어?》

《물이 어데 있쉬요?》

《그럼 그냥 잔단말이야?》

《쳇 이런 일이 한두번인줄 알아요? 이게 간석지예요. 간석지!》

《간석지?》

더 할 말이 없었다. 하기는 간석지이기때문에 이런 일도 있게 되는것이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그렇게 되는데로 덩구는 문남의 옷차림이 항상 놀랄만큼 깨끗한것이였다. 외출복은 물론 작업복도 껴여진데 하나없이 말쑥하군했다. 묘한 일이였다.

밖에서 처녀들이 재깁대는 목소리들이 들렸다. 나는 창문으로 내다보았다.

처녀들이 세면기를 들고 어데론가 가고있었다.

《저 처녀들은 어데루 가나? 물있는데를 아는게지?》

문남은 내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식당으로 가는거예요. 물동냥하러!》

《그래?》

나는 세면기를 손에 들었다. 문남은 몸을 일으켰다.

《식당에 갈래요?》

《가자.》

식당근처에 가니 취사원의 성난 목소리가 요란스레 울리고있었다.

《식당이 무슨 세면장인줄 알아? 물이 없소! 프락프리가 안오면 레일아침 밥도 못한단 말이요!》

식당앞에는 처녀들이 주련이 서있는데 취사원은 문턱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있었다.

나는 식당안을 들여다보았다. 커다란 물탱크에 물이 절반쯤 차있었다. 문남이도 내뒤에서 기웃이 넘겨다보는데 취사원이 버럭 소리질렀다.

《야! 너도 물얻으러 왔어?》

문남은 짙금해서 물러나며 투덜거렸다.

《누가 물 얻으러 왔대요? 배고파서 밥이 다 됐나 보러 왔는데...》

취사원은 그를 책 밀어던졌다.

《30분 있다가 오라! 국을 끓여야 돼!》

국가마에서는 물이 가득차서 펄펄 끓고있었다. 그옆에는 큼직큼직하게 썬 국거리와 마늘, 고추, 간장, 된장, 기름이 놓여있었다. 이제 단번에 와락 쏟아넣으면 국이 된다는것이다.

나는 그것을 보자 저도모르는 사이 한숨이 나와 필요없는 말을 한마디하고 말았다.

《오늘도 국맛이 있긴 다 틀렸군!》

《뭐?》

취사원이 담배꽁초를 휙 내던지고 벌떡 일어섰다.

《다시 한번 말해보오!》

나는 실언을 깨달았으나 취소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국맛이 없겠다고 했소!》

《동문 도대체 뭐야? 온 첫날부터! 보자 보자하니가 누군 할줄 몰라서 그러는줄 알아?》

둘러섰던 처녀들이 깔깔 웃어댔다. 취사원은 더 한층 기고만장했다.

《손에 찢게 있으면 나도 맛있게 할수 있단 말이야!》

나는 어이가 없었다. 국가마결의 기름과 조미료들을 가리켰다.

《저건 뭐요?》

《저걸로? 좋아. 그럼 동무가 그걸 가지구 맛있게 해보라!》

문남이 급히 내 팔소매를 잡아당겼다.

《가자요!》

적이 퇴각할 기미를 보이면 공격하던 측은 더 기세가 오르기마련이다. 취사원은 취사복을 벗어서 내앞에 집어던졌다.

《자-어서 해보란 말이요!》

나는 화가 치밀었다. 문남의 손을 밀어던졌다.

《중소! 내가 하겠소!》

나는 취사복을 와락와락 꺼입었다. 그리고는 더 던질것을 찾는듯한 취사원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것도 이리 내오. 모자!》

취사원은 당황한듯 주춤해버렸다. 내가 이렇게 맹렬히 나을줄은 몰랐던 모양이였다.

그러거나말거나 나는 그에게서 모자를 책 벗겨내 머리에 뒤집어썼다.

《야, 문남이 들어가자!》

나는 식당안에 걸려있는 또하나의 취사복을 벗겨서 문남이에게 던져주었다.

《아, 난 저-》

《무슨 군소리야?》

《아, 그런데 이건 너자거구만요.》

《젠장! 너자거 남자거 따로 있어? 너자가 입으면 너자거구 남자가 입으면 남자거지!...》

식당밖에서 와-하고 웃음소리가 터졌다. 그 얼굴들속에는 호기심과 놀렘에 찬 문희의 얼굴도 보였다. 내가 망신하기를 바랄지도 모르지. 허나 그렇게는 안될것이다. 군대때 식당근무로 대대장의 대렬감사까지 받은적있는 본대의 본대장이다.

하지만 눈만은 참 아름답거든. 어쩌면 《그 처녀》의 눈과 그리도 비슷할가. 바다가 처녀들의 눈을 비슷하게 만드는데도 모른다.

나는 손바닥만큼씩 썰어놓은 국거리에 식칼을 들고 달려붙으며 문남에게 소리쳤다.

《대국자로 국가마의 물을 몽땅 푸라!》

《건 왜요?》

《글쎄 푸라는데!》

문남은 어정쩡하여 물을 퍼냈다.
 《인젠 어떻게 하랴요?》
 《기름을 쏟아넣어!》
 기름이 지글지글 끓기 시작할 때 고추와 마늘을 절반씩 덜어서 쏟아넣었다.
 《다 넣지 않아요?》
 문남은 의아해했다.
 《다 넣는다구 맛있는게 아니야!》
 파와 고추가 한창 볶아질 때 국거리를 쏟아넣었다. 땀을 흘리며 볶아대는데 문남이 내 귀에 대고 수군거렸다.
 《찬을 만들면 안돼요!》
 내가 또 말썽거리로 될가봐 걱정스러운 모양이었다. 원심을 쓰는것이 별로 마음을 혼 혼하게 해주었다.
 《걱정 말아. 맛있는 국이 될테니!》
 나는 대국자로 물을 펄펄 퍼넣은 다음 가마뚜껑을 닫고 취사복을 벗어 어쩔바를 모르고 서있는 취사원에게 던져주었다.
 《국을 끓이려면 이렇게 끓이란말이요! 식당근무라는게 가마와 화구 앞에서 떠날줄 몰라야겠는데 소여물 끓이는 경감처럼 담배만 피우고있으니! 저 남겨놓은 양념은 배식하기 5분전에 넣고 뚜껑을 꼭 닫아 놓았다가 푸기 시작하란말이요. 그 래야 국같은 국이 되지. 문남이 가자!》
 《가자요, 까짓것!》
 문남은 그만하면 일이 멋있게 됐다고 짐작되었는지 기고만장해서 나를 따라나섰다.
 그때까지 가지 않고 들여다보던 처녀들이 와-하고 흠어지며 깔깔 웃어댔다.
 《아이, 우스워라. 무슨 식당근무가 저렇니?》
 《막 싸움하는것처럼!》
 《그게 군대식이란다. 애.》
 우리가 얼마쯤 걸어갔을 때 처녀들은 뒤에서 입을 모아 소리쳤다.
 《국이 맛 없으면 망신시킬 줄 알아요-!》
 나는 돌아섰다.
 《국맛이 좋으면 어찌겠소?》
 《우리 어머니한테 데려갈래요!》
 다시 깔깔대는 웃음소리.
 문남은 나에게서 떨어질세라 따라오며 연신 감탄했다.
 《일호동진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걸 어디에서 다 배웠어요?》
 《군대에서 배웠지. 군대에서 못배우는게 있는 줄 알아?》
 《그럴줄 알았쉬요. 일호동진 정말 좋겠쉬요!》
 《문남이도 이제 군대나가면 다 알게 돼.》
 《난 안돼요.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했어요. 다른 건 다 합격했는데 맨 마감에 의사가 발을 쳐들라고 하더니 딱 때리며 <이녀석, 평발이로구나!> 하잖았어요. 쳇! 평발이라도 오목발보다 더 잘 걷

는데! ... 그런데 거 국맛이 정말 좋을가요?》
 문남은 아무래도 걱정되는 모양이었다.
 《걱정 말라. 국맛이 없으면 이제부턴 날 제대 군인 일호가 아니라 불평군 제1호라고 부르라.》
 《헤 헤.》
 그렇게 끓인 국이 맛없을리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호실로 돌아오자 《삼촌들》은 나에게 말했다.
 《국끓이는 솜씨가 있던데?》
 문남이 신이 나서 시시콜콜히 이야기했다. 조장은 담배를 피우며 시무룩히 웃었다.
 《취사장한테 본때를 보였구만.》
 나는 픽 웃었다.
 《그까짓게 무슨 본뎡가요? 물 한세멘기 쓴 값이지요.》
 모두들 웃는데 신철은 심중한 기색으로 말했다.
 《취사원들이 책임성을 높여야 해. 원래 후방사업이라는건...》
 조장이 담배불을 끄며 크게 하품을 했다.
 《자야겠군. 아-피곤하다!》
 자리에 누웠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올해는 비가 너무 빨리 내리는듯했다. 눈이 와야 더 어울릴듯한 이른봄인데... 차차 높아지는 비바람 소리를 들으며 나는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나는 무엇인지 차고 축축한것이 털썩하고 발을 때리는바람에 깨어났다. 다른 사람들은 벌써 일어나있었다.
 바깥벽을 이룬 나무관자사이로 비발이 뿌려들어 흠뻑이 허물어져내린것이였다. 손바닥만한 넓이로 쭉 벌어진 관자사이로 비바람이 거침없이 물려들어왔다. 방안은 무너진 흙과 비물로 엉망진창이 되였다. 미친듯한 바람소리가 저절로 몸을 웅송그리게 했다.
 《이제 무슨 개판이란? 예익 정말!》
 하며 신철은 화가 나서 조장에게 떠들었다.
 《내 그래서 뭐했습니까? 호실을 잡을 때 중간을 잡아야 한하는데 맨옆을 잡아가지곤...》
 나는 그가 불평하는것을 처음으로 들었다. 무엇이 그의 참을성을 건드렸는지 알수 없었다.
 《래 일 에 라 도 제기합시다. 호실을 바꿔달라구...》
 조장은 느릿느릿 담배를 피워물었다.
 《자네가 제기해보게나.》
 《아-그런거야 조장아바이가 해야지요.》
 《삼촌들》은 그런속에서도 《영원한 론쟁》을 또 시작하였다.
 《거 안됐구만, 조카모포가 개차반이 됐으니...》
 《못써 버릇없이! 삼촌모포도 몰라본다니까.》
 관자사이로 캄캄한 밤과 세차게 흔들리는 외등 불빛이 보였다. 나는 픽 웃고말았다.
 《홍부네 집 같구만요.》

한 《삼촌》이 다른 《삼촌》을 턱으로 가리켰다.

《우리 조카숨씨라네.》

《뭘써! 버릇없이!》

조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무슨 바람이 이모양인지.》

신철은 어깨를 쭉 폈다. 그러자 그는 다른 사람이 된것 같았다.

《하기야 벽돌집에서 살자고 간석지에 온건 아니지.》

《...》

나는 그에게 처음으로 불쾌감을 느꼈다. 그는 옳은 말을 했다. 그런데 왜 불쾌할까. 이상한 일이었다...

이튿날 아침 비는 그쳤으나 바람은 멎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세차졌다. 간석지에 많은건 바람과 감탕이라더니 정말 그랬다. 바람은 지칠줄도 모르고 집을 통채로 날려갈듯 휘몰아쳐갔다.

작업반에 나갔던 조장은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바람때문에 배가 뜨지 못하오. 채석장에서 돌을 채석해 놓기로 했소. 바람이 멎으면 벌충하도록... 그래서 두사람은 떨어져서 이 벽을 발라야겠소. 문희동무는 모포들을 빨고... 누가 미장을 하겠소?》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삼촌들》은 서로 마주보았다.

《조카가 미장 좀 해보지 뭘.》

《삼촌은 바빠서 미장을 배워두지 못했어.》

그들이 미장할줄 모른다는것이 명백했다. 신철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인듯 천정만 쳐다보고있었다. 그 태도 역시 나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나는 조장에게 말했다.

《내가 하지요.》

문남이가 옆에서 놀랜듯 수군거렸다.

《미장도 할줄 알아요?》

따스한 입김이 귀가에 뽕뽕 쏟아지는것이 기분 좋았다.

《내가 할줄 모르는게 뭐가 물어보라구.》

모두 웃었고 조장도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일호동무하구 문남이가 하라구.》

흙을 떠주면서 문남은 말했다.

《오늘아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무슨 일인데?》

《일호동질 식당근무로 돌리자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아무래도 굴착기가 오면 한명 내놓아야 하니까요. 그런걸 조장아바이가 딱 잡아땀어요. 일호동지는 절대로 내놓을수 없대구요.》

《흠!》

문남은 흙을 한삽 떠주며 말을 이었다.

《반장이 <그럼 누굴 내놓겠소? 신철인 더욱 안

내놓을게구.> 하니까 조장아바이가 글썽 <신철이? 그건 굴착기가 온다음에 봅시다> 하지 않겠어요.》

《됐어. 그만해!》

《아, 정말이에요요!》

나는 미장을 하면서 생각했다. 문남의 말이 정말일까. 정말이라면 이상한 일이다. 조장이 왜 신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까. 나 역시 그가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했다. 흙잡을데 없는 사람이 왜 마음에 들지 않을까... 나도 알수 없었다. 명백한것은 나도 작업조라는 한가정의 성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것이였다.

《일호동지, 거-군복을 입고 일하기 아깝잖아요?》

내 작업복 하나 달라요?》

문남은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배낭을 뒤지기 시작했다.

《간석지루 떠나올 땐데 작업복만해도 다섯벌이나 주잖겠어요. 작업반에서 하나, 직장에서 하나, 공장에서 하나, 동무들이 하나, 집에서 하나, 여기 오니 또 하나... 평생 입어도 다 못꺾뜨릴것 같애요. ...자요!》

나는 사양않고 갈아입었다.

그런데 문남은 흙을 떠줄 대신 내가 몽그러놓은 군복을 뒤적거리고있었다.

《아까운 군복을... 흠까지 묻히구...》

다시보니 그는 군복을 슬며시 제 몸에 대보고있었다. 그래서 《아까운 군복》, 《아까운 군복》했던것이다.

《군복을 갖고싶나?》

《아, 무슨 그런 말을... 내가 무슨...》

《가져라!》

《예? 정말이에요요?》

문남은 뿔뿔이 좋아했다.

미장을 끝내놓고 우리는 바깥의 나무벽틈사리를 틀어막았다. 판자는 문남이 어디서인지 몇장 구해왔다.

나는 남은 판자를 보자 배낭고를 만들 생각이 났다.

《배낭고요?》

문남은 별로 흥미없어했다. 나는 그를 흘겨보았다.

《배낭고도 없는게 무슨 호실이야? 이건 호실인지 창고인지 모르겠다니까.》

《그럼 좀 기다리라고.》

문남은 잠시후에 판자를 또 여덟장이나 메고 나타났다.

《저런! 어디서 그렇게 많이 얻어왔나?》

문남은 우쭐해서 말했다.

《다 가져오는데가 있지요 뭐.》

그날저녁 모두들 호실에 들어서자 눈이 휘둥그래졌다.

《이게 우리 호실이 맞아?》

《잘못 들어온것 같은데?》

문남은 문가에서 분주히 소리쳐댔다.

《신발을 신고 들어오지 말라고! 벗고 들어서 신발을 장에 넣으라고. 신발장예! 작업복은 저쪽에 걸고!》

어떻게 소문이 퍼졌는지 이 호실 저 호실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호실 《견학》을 왔다는것이였다.

《삼촌들》은 전에없이 이웃호실에서 장기군들을 청해왔다. 은근한 호실자랑이였다.

신철은 나중에는 짜증을 냈다.

《이거야 부산스러워 견디겠나?》

그의 참을성이 점점 없어지는것이 이상했다.

조장은 껄껄 웃었다.

《손님이 많은건 집안이 흥하는 징조라네.》

소란스러운 그날 저녁은 직장장과 창고장의 때 아닌 방문으로 끝났다.

두사람은 방으로 들어와 빙 둘러보더니 서로 눈길을 마주했다. 창고장이 딱딱한 어조로 물었다.

《동무네 이 나무는 어디서 가져왔소?》

사람들은 어리둥절하여 나를 보았다. 나역시 나무의 출처는 알지 못했다. 문남은 어디로 자랑하려고 갔는지 방에 없었다. 나는 되묻는수밖에 없었다.

《왜 그럼니까?》

《왜 그러는가구?》

창고장은 나의 먹살이라도 잡을듯이 다가섰다.

《제재소판자가 이런데나 쓰라고 켜놓은건줄 아오?》

나는 이때야 문남이 어디서 나무를 가져왔는지를 깨달았다. 따져묻지 않은것이 잘못이였다. 그러나 이제와서 사실을 밝힐수 없었다. 밝히고 싶지도 않았다.

직장장은 나를 노려보며 어마어마하게 따지고 들었다.

《동문 이게 국가재산이란걸 몰랐소?》

《...》

유치원아이들에게나 알맞을 질문이였다.

《동문 도대체 간석지를 막으러 왔소? 편안한 살림살이를 꾸리러 왔소? 여긴 간석지란 말이요. 간석지!》

또 간석지다. 간석지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것을 정당화할수 있는지 놀랄수밖에 없었다.

《왜 대답이 없소? ...신철동무!》

그는 신철이에게로 머리를 돌렸다.

《동무가 있으면서도 일이 이렇게 되게 한단말이요? 어떻게 된 판이요? 동무도 용해되어가는게 아니요?》

신철은 머리를 숙였다.

《제가 그만 미쳐...》

그 말은 나의 자존심을 참을수 없게 건드렸다.

직장장이 조장을 추궁하였거나 조장이 그렇게 말했더라면 나는 잠자코 있었을것이다. 조장은 말없이 담배만 피우고있었다. 마치 아무말도 듣지 못하는것 같았다.

나는 신철의 말허리를 잘랐다.

《신철동무는 이 일에 관계없습니다. 내가 혼자서 한 일입니다.》

신철은 나에게 번쩍거리는 시선을 던졌다.

《동문 가만있으라! 뭘 잘했다고 그래? 그래 우리가 간석지에 편안하게 살려고 왔는가? 처음 와서 우린 천막에서, 이보다 좁은데서 살았어. 좁다는 말 한마디없이! 그런데 동문 이런 집에서 살면서도 뭐가 모자라서 그래?》

《신철동무 말이 옳소!》

직장장은 그루를 박으며 창고장에게 나를 턱으로 가리켜보였다.

《이 동무가 <철취>한 판자값이 얼마나 정확히 계산해서 회계실에 넘기요. 변상시키시오!》

하고는 나를 노려보았다.

《의견이 있소?》

나는 문을 차고 나와버렸다...

캄캄한 길, 키낮은 가설건물들의 《거리》, 첩빙-뜨락또르바퀴자리에 발이 빠졌다. 나는 겨우 몸을 가누었다. 신발안에서 얼음섞인 감탕물이 쿨썩거린다.

《제길할!》

이제 도대체 무슨 《거리》란 말인가. 이것은 거리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있는곳 일뿐이다. 배낭고도 필요없고 호실을 꾸릴 필요도 없는...

첩빙- 또다시 발이 빠졌다. 그러나 계속 걸었다. 나는 이곳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곳으로 가려는 생각은 단 한번도 해본적이 없었다. 나는 한가지만은 알고있었다. 당이 부르는곳에서 배낭을 풀어야 한다는! ... 이것은 우리 세대에게 차레진 의무였다. 배낭을 푸는 곳이 고향으로 되어야 한다. 나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리라는 것을 알고있었다.

휘황한 전등불이 줄지어 늘어섰다. 대도시의 가로등도 이보다는 휘황하지 못할것이다. 런던아 배기가스를 뿜으며 지나가는 《자주호》들, 나는 제방우를 걷고있었다.

불빛속에 뻗어나간 제방, 어둠속으로 끝없이 펼쳐졌을 간석지, 그것은 밤의 장막처럼 끝없는 것이다. 바람이 얼굴을 때린다. 감탕냄새와 물비린내를 실은 바람, 불빛과 소음의 세계, 모든 웨침소리들이 《아-아-》 하는 즐기찬 탄성으로 되어 들리는 일터, 모든것이 들끓고있었다. 우울해 있는것은 나혼자뿐이였다.

나는 불현듯 웃음을 터뜨렸다. 나의 두발이 딛고있는 땅조각은 얼마나 좁은가. 나는 또한 얼마

나 작은가. 한치도 못되는 쪼각우에서 우울에 잠겨있는 나, 끝없는 대지와 들끓는 무한한 공간이 모든것이 과연 나의것이 아니란 말인가? 자기가 서있는곳을 세계의 전부로 알지 말라.

나는 군대에서 몇미터의 땅조각을 자기것으로 가지고도 그 넓이에서 조국의 전부를 느끼지 않았던가. 하기에 그 몇미터가 좁다고 느껴지지 않았고 그 땅에서 이 세상의 모든 눈과 비, 바람을 맞으면서도 웃을수 있었다.

나는 지금도 군대때에 있었던 일을 기억한다.

그때 우리는 텔레비존에서 아홉시 종합보도와 함께 다음날의 일기예보까지 듣고 취침하군했다.

그런데 《래일의 날씨》에서 비가 내린다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전술훈련을 나갈 때 비옷을 가지고 나갔다. 그런데 그날 비가 오지 않았다. 우리는 비옷을 지고 다니면서 땀만 더 뺐었다.

《일기예보라는게 거짓말이야!》

그런데 훈련을 끝내고 병실로 돌아오니 사관장이 온통 물침봉이 되어 와있었다. 겨우 30리 떨어진곳에 돼지 접수하러갔다가 역수로 쏟아지는 비를 맞았던것이다.

그때 우리는 자기가 서있는곳, 자기 눈에 보이는것을 세계의 전부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는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밖에 있는 세계는 넓고도 또 넓었다.

그 광활함을 느끼는것이 왜 그리도 흐뭇했던지...

그런데 나는 지금 또다시 자기가 선곳을 세계의 전부처럼 생각하고있지 않는가...

《일호동지!》

문남이었다.

《정말 미안해요. 나때문에 일호동지가...》

《시시한 소릴.》

우리는 제방끝에 놀러앉았다.

《직장장이 가만있지 않을거예요.》

《...》

나는 불빛어린 물결을 내려다보았다. 철썩거리는 물결, 때때로 튀겨오르는 차거운 물방울, 외등 불빛이 파도우에서 산산이 부서진다.

《하여튼 일호동진 좀 이상해요.》

불쑥 하는 문남의 말이었다.

《뭐가?》

《신철동지와 정말 대조적이거든요. 신철동지는 다 참아야 한다고 하는데 일호동진...》

《참아야 할건 따로 있어.》

《신철동진 여긴 간석지기때문에 지금처럼 사는게 정상이라고 하는데 일호동진 그렇지 않다고 하고... 신철동진 간석지에 와서 편안한 생활을 바라는데 옳지 않다면 이만하면 만족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호동진...》

나는 그를 건너다보았다. 그 말은 열아홉살 애

송이의 말로는 어울리지 않았다. 누구한테선가 들은 말을 그대로 옮기는것 같았다. 누구에게서 저런 말을 들었을까...

《신철동지의 말을 들을 땐 그 말이 옳은것 같구, 일호동지의 말을 들을 땐 이쪽이 옳은것 같구...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 그럴수도 있지.》

그럴수도 있다. 나도 똑똑히 말할수 없었다. 허나 나는 내가 옳다는것만은 믿고있었다. 그리고 신철의 말 또한 옳다는것도 알고있었다. 그렇다면... 아니. 그럴수 없다. 진리가 둘일수는 없다. 나와 신철이, 누가 옳은가. 둘이 다 옳을수는 없지 않은가...

《부림배가 나오네.》

문남의 조용한 혼자소리에 나는 머리를 들었다. 버럭과 막돌을 가득 실은 부림배가 기우뚱거리며 《여울목》으로 끌려나오고있었다. 갑판에서 분주히 오락가락하는 선원에게서 나는 눈길을 건너편 제방으로 옮겼다. 그러자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 저쪽 제방의 끝에 《그 처녀》가 나타난것이었다. 여전히 푸른 치마, 우에는 솜옷을 입었으나 너무나 다정해진 모습이었다.

《왜 그래요?》

의아해하며 나의 눈길을 따라보던 문남은 갑자기 《아-》소리를 냈다.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뭐가 <아>야?》

《아, 아무것도 아니예요.》

이튿날 아침 문남은 내앞에 웬 꾸레미를 불쑥 내놓았다.

《도루 받으랴요. 군복이에요.》

《응?》

《육만 뿌영게 먹었어요. 럽체없다구...》

나는 의아해졌다.

《누구한테서?》

《누나한테서요.》

《누나?》

나는 더욱 의아해졌다.

《누나가 어디 있기에?》

《에-?》

문남은 아연한 기색으로 나를 보았다.

《아직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정말 한심하네.》

알려주지 않은 자기가 한심하다는것인지, 모르는 내가 한심하다는것인지.

《매일같이 일하면서도 몰라요?》

《응? 그럼 문희가?》

문남은 대답대신 또한번 중얼거렸다.

《정말 한심하네.》

나는 꾸레미를 풀어보았다. 빨아서 다린 군복이 차곡차곡 개여있었고 그밑에는 화구간에 틀어

박았던 내 작업복이 새것처럼 기워져서 들어있었다. 너자들의 손은 참으로 마술적인 힘을 가진 것 같았다. 신선한 빨래냄새가 향기처럼 풍겨왔다.

나는 작업복만 꺼내고 도로 던져주었다.

《아, 안돼요. 누나한테 욕먹어요.》

《누나가 그렇게 무섭나?》

문남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누나말이라면 난 꼼짝을 못해요. 간석지로 올 때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맹세했거든요. 누나말을 잘 듣겠다구...》

《누나라...》

누나라는 말이 왜 그리도 다정하게 울리는지...

우리는 작업장으로 향했다. 문희가 문남의 누이라는 평범한 사실이 왜서인지 별스레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이때야 나는 어리고 장난국은 문남이가 언제나 깨끗한 옷차림에 말쑥해 다니는 리유도, 저녁마다 문남이가 어데론가 슬며시 없어지곤하던 원인도 알게 되었다.

지난밤에 문남이 하던 그답지 않은 말의 출처도 짐작되었다. 그것은 문희의 말이었을것이다.

《둘이서 내 흉을 실컷 봤겠구나?》

《흥이야 왜 보겠어요? 그렇지만 일호동지 이야기를 많이 한건 사실이에요.》

《내 이야길?》

《요즘은 일호동지 이야기만 했어요. 우리 누난 내가 다른 이야길 하면 <그만 뒤, 얘> 하면서두 일호동지 이야기만 나오면 <그래서?> 한단말이에요. 이상하지요?》 《...》

사람이란 이상한것이다. 한번도 주의를 돌려본 적없고 마음 끌린적이 없으면서도 문희의 관심이 나는 기분 좋았다...

나는 문희와 함께 광차를 밀고나가면서 말했다.

《근복은 왜 돌려주라고 했소? 입고싶어하는것 같은데.》

《...》

광차는 덜컹덜컹거리며 레루길을 따라 굴러갔다. 앞고승이에는 문남이 올라서서 옛날 량반행차때 아전이 호통치듯이 《광차-! 광차-!》하고 소리소리 웨쳐댔다. 부두까지 나갈 때는 레루길이 약간 내리막이여서 광차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다.

《야단이에요.》

문희는 한숨을 쉬었다.

《일하는거나 뭐나 다 그저 아무 생각없이 되는 대로라니까요. 물덤벙술덤벙하고...》

앞에서는 문남이가 그냥 소리소리 웨쳐대고있었다.

《잘 도와주세요. 요즘 그 앤 그저 일호동무의 말이라면...》

그는 말을 끊었다. 얼굴 옆모습이 어쩐지 좀 붉어진것처럼 보였다. 일하느라고 달아올라서인

지...

나는 이날 처음으로 문희를 관찰해보았다. 사람이란 자기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만한 관심이 가는것 같다.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를 나는 그제야 알게 되었다. 그는 마치 기계의 내부에서 씹없이 돌아가면서도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치차와도 같았다. 기계를 볼 때 사람들은 흔히 눈에 띄는 큰 치차들만을 보며 감탄할뿐 그뒤에 있는 작은 치차의 존재는 생각지 못하며 그의 수고는 헤아리지 못한다. 큰 치차가 한바퀴나 두바퀴 돌 때 작은 치차는 열바퀴 스무바퀴를 돌아야 하는것이다.

우리의 작업조에서도 그러했다. 한창 일을 할 때는 문희가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가 잠시 자리를 뜨기만 하면 작업의 룰동과 리듬은 깨뜨리지곤하였다. 광차가 레루길에 놓인 돌때문에 탈선되든가, 땡이 제대로 채워있지 않아 바가지가 넘어지든가 무슨 공구를 손가끼에서 찾을수 없든가 하곤했다.

《지레대! 지레대 어디 있어?》

《망치! 쟈장, 망치를 달라는데!》

허나 문희가 돌아오면 룰동과 리듬은 다시 살아난다.

문희는 조용히 일했다. 일하는동안에 하는 말이란 《어마! 그렇게 큰 돌을...》, 《조심하세요.》 하는것들뿐이다. 그런데 그런 나직한 걱정과 우려의 속삭임을 들으면 무겁던 돌도 썩- 올라간다. 그리고 더 큰 돌을 들어 그런 감탄과 걱정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싶어진다.

남자들이란 녀자가 있으면 더 남자다워지는것 같다. 그 감탄과 우려의 속삭임은 마치 《너는 가장 힘있고 억센 남자다!》 하는 말인듯하다.

참으로 우리 일터에 문희가 없다면 일이 얼마나 지루하고 단조로와질가, 생활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자기의 나직한 감탄과 우려, 놀렘,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고무하고 분발하게 하는지 그는 모를것이다. 우리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일한다. 그는 마치도 놀라움과 감탄, 우려 등을 나타내는 민감한 수은주와도 같았다. 나는 이날 처음으로 그것을 포착했다.

문희는 눈여겨 볼수록 더 눈에 띄는 그런 처녀였다. 무심한 눈에는 띄지 않는다. 허나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면 점점 더 주시해보게 되는 그런 처녀였다.

허나 그것이 저쪽 제방의 《그 처녀》의 영상을 흐리게는 못했다. 오히려 문희에 대한 관찰로 하여 《그 처녀》의 아름다움은 더 풍부해졌을뿐이었다. 그토록 《그 처녀》는 나의 가슴속에 깊숙이 자리잡고있었다.

휴식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슬며시 일어났다.

《제방에 나가나?》
조장이 알은체를 했다. 나는 심상한척 대답했다.

《제방이 얼마나 나갔는가 보려구요.》

《그래? ... 봐야지.》

조장은 머리를 끄덕거리더니 느릿느릿 덧붙였다.

《저쪽 제방이 얼마나 나왔는지도 잘 보고 오라구.》

《예?》

웃음이 터졌다. 나는 내가 왜 제방으로 자주 나가는지를 모두 알고있음을 깨달았다.

《힘두 안들어요? 쉬기나하지 뭘 자꾸...》

문남이가 투덜거리는데 문희가 그에게 눈을 흘겼다.

《잠차고있어. 아무데나 참견하면서... 상관도 없는 일에...》

나는 그가 사람들 있는데서 문남을 질책하는 것을 처음으로 들었다.

그는 레루길에 쪼그리고 앉아 어린 소녀애들처럼 반짝거리는 레루의 닳음면을 손끝으로 문질러 보고있었다. ...

광차를 밀고 나갔다 들어온 문남이 배를 옮겨야겠다고 알렸다. 썰물이 하도 세차 부림배가 부두에서 좀 움직였다는 것이었다. 조장은 《삼촌들》과 신철을 데리고 나간다.

《실어놓으라구!》

나는 문남이, 문희와 함께 실기 시작하였다.

《오늘저녁 또 팡팡해야겠는데요?》

문남이 커다란 돌사이에서 머리통만한 돌들을 뽑아내어 실으며 투덜거렸다.

《장석기중기까지 떼우구. 시시해서!》

한림방은 실히 될 돌들이 여기저기에 널려있었다. 그대로 실으면 그저그만일 것이다. 나는 광차와 돌을 번갈아보았다.

마침 광차는 상차대 량쪽에 두고 깊숙이 들어와있었는데 상차대의 높이는 광차바가지의 높이와 비슷했다.

《가만!》

나는 문남을 제지하고 아래에 내려가 레루길 옆에서 덩구는 침목 석대를 가지고 올라왔다. 그들을 상차대와 광차바가지 사이에 건네놓았다.

《통째로 굴러넣자. 이렇게 들어가야 제방이 빨리 나가. 떠내려가지도 않구!》

《까짓거! 해보자요!》

문남이는 지레대를 들고 대들었다. 한림방은 잘되어보이는 바위에 쌓지레대를 들이댔다. 그러나 바위는 움썹거릴뿐 쉽사리 굴러내리지 않았다.

문희도 지레대를 들고 올라왔다.

그제야 바위는 기지개라도 커둬 느릿느릿 몸을

뒤채더니 침목을 타고넘어 대포소리같은 요란한 팡-소리를 내며 광차에 떨어져 들어갔다.

《히야- 멋있구나!》

문남은 환성부터 울리는데 아래를 내려다본 문희는 울상이 되어버렸다.

《큰일났어요!》

바위가 떨어지며 광차바가지를 터뜨려놓고 광차바퀴를 레루길에서 뺄겨놓은 것이었다.

그때 배를 바로 대놓은 조장과 다른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들은 아연해져서 한동안 아무말도 못하고있었다.

잠시후에 신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건 뭐요? 일하는거요? 장난하는거요?》

그는 나에게로 돌아섰다.

《일호동문 이게 뭐요? 동무때문에 우리가 골탕먹는게 몇번이요? 우리 작업조가 무슨 꼴이 되는가 말이요?》

이런 말을 할 때에조차 그는 목소리가 높지 않았고 침착했다. 상대방이 침착해질수록 어떤 사람들은 침착성을 더 빨리 잃어버린다. 나도 그런 성격이었다.

《좀더 말할것이 없어?》

《??...》

《내가 명백히 말해둔다, 선배연 하지 말라!》

나는 이제까지 신철의 말이나 행동은 모두 옳다고 생각했다. 다소간 불쾌할 때도 있었으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때도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리성이 곧 감정인 것은 아니다. 감정은 그가 옳다는 리성의 목소리에 반항해나섰다, (나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싫다!) 무엇때문에? 그가 옳은데도? 나도 알 수 없었다.

조장이 나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충돌은 어떻게 끝났을지 모른다.

《쓸데 없는 소리들을 그만 뒤! 광차부터 올려놓아야지.》

그는 나와 신철이 사이에 오고간 심각한 말들을 죄다 광차 하나보다도 쓸모없는 것으로 결론해버렸다. 하긴 간석지를 막는 것은 멧쟁이 말마디들이 아니라 돌과 버럭이다!

그런데 광차는 도저히 바로잡을 수 없었다. 게다가 광차바퀴가 깨여졌고 차체는 활동처럼 휘여있었다. 돌은 떨어지던 기세로 광차를 못박아놓은 것이었다.

《곰같은것들! 무슨 일을 이렇게 해?》

조장이 나와 문남이에게 눈을 흘겼다.

여기저기 다른 부두들에서는 부림배가 연신 떠나고 들어오고 했지만 우리 부두에서는 부림배가 움직일 줄 몰랐다.

모두 기진맥진했고 신경질들이 났다. 나도 화가 났다. 누가 한마디만 잘못해도 싸움이 일어날 형편이었다. 나는 이제 곧 조장이나 《삼촌들》

에게서 한차례 공격이 가해지리라고 추측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참을성을 맨먼저 잃어버린것은 강철같은 신철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신철의 참을성은 엄혹한 시련을 겪고있었던것이다. 그는 지레대를 책 집어던졌다.

《에익! 내 다른 작업조에 가든가 하고 말아야지. 더러워서!》

《뭐야? 더러워?》

나도 폭발했다. 그의 말에는 내가 다른 작업조로 가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있었때문이었다.

그때 부두쪽에서 요란한 목소리가 터졌다.

《여기선 어떻게 된거요? 아직도 배를 띄우지 못하고있으니...》

직장장이었다. 그는 못박혀버린 으깨여진 광차를 보더니 얼굴이 험악해졌다. 귀밑에선 살덩어리가 맹렬히 꿈틀거렸다.

《이건 뭐요? 반립방짜리 광차에 한립방짜리 돌을 싣는 도깨비가 어데 있소? 조장동무, 정신있소? 이따위로 일하려면 조장자릴 내놓는게 낫겠소!》

《...》

조장은 애매한 벼락을 맞고있었다. 그러면서도 여늬때처럼 묵묵히 듣기만하고있었다. 그러나 나는 듣고만 있을수 없었다.

《나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조장동진 배를 고쳐대느라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직장장의 시선이 화살처럼 나에게 날아와 박혔다.

《또 동무요?》

금시 벽력같은 소리가 터질것 같았다. 그런데 잠시후에 울린 목소리는 의외에도 높지 않았다.

《동무도 이젠 좀 제대로 일할 때가 되지 않았소?》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 작업조는 본래 분사업소적으로도 제일 조용하고 일잘하던 작업조였소. 그런데 동무가 온 다음부터 이게 뭐요? 매일같이 소동이 일어나고...》

나는 머리를 숙였다.

《사실은 큰돌을 그냥 실어볼가 해서 해보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깨뜨리기는 아깝고...》

《물론 힘들겠지. 그렇지만 일이란게 노상 쉬울수야 없지 않소?》

《...》

전혀 맞지 않는 해석이었으나 온화한 말에 반박해 나설수도 없었다.

조장과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공공거리며 광차와 씨름하고있었다. 어느사이 원래처럼 침착해진 신철은 분주히 광차주위를 돌아가고있었다. 그의 침착성은 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굳건해지는것 같았다.

《이거야 어데 해먹겠나?》

《삼촌들》이 투덜거리자 그는 한마디로 일축해 버렸다.

《자, -또 해봅시다. 암만 불평해야 광차가 바로 잡아지는것도 아닌데.》

직장장도 그 말에 찬동인듯 그쪽으로 돌아섰다.

《광차부터 바로잡아놓지요.》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것 같았다. 조장과 문희는 트랙포르나 자동차를 잡으려 길에 나갔다. 광차를 끌어내달라고 부탁하려는것이였다. 나는 신철이와 가까이 있기 싫다는 단순한 이유로 그들을 따라나섰다.

때마침 기세좋게 달려오던 트랙포르가 손을 쳐들기도 전에 내옆에서 덜커덩하고 멎었다. 어데서 보았음직하게 생긴 얼굴이 운전칸에서 불쑥 나왔다.

《오래간만이구만! 여기서 일하오?》

《?》

누구인지 어데서 보았던지 기억나지 않았다.

운전수는 크게 웃었다.

《신세진 사람은 기억하고있는데 신세입힌 사람은 잃어버렸구만? 요전날밤 합숙결에서 빠졌던 트랙포르가 생각나오?》

《아하-!》

《이제야 생각나는게로구만? 그날밤 감탕을 톡톡히 뒤집어췄지?》

그는 사정을 듣더니 두말없이 트랙포르를 돌려댔다.

그렇게 해서야 겨우 광차를 끌어냈다.

그러나 광차가 깨여지고 레루길도 엉망이 되여 더 작업을 못하고 말았다.

직장장은 머리를 흔들었다.

《이제 무슨 꼴이요? 종합사업소 지배인동지가 오늘 나올지 래일 나올지 모르는데, 이런 망신이 어데 있소? 정신을 차려야겠소. 정신을!》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동무도 생각되는바가 있겠지?》

그때 나는 잠자코 머리를 숙였어야 했다. 그저 《예.》 하거나...

그런데 나는 그만 경망스럽게도 생각나는것을 그대로 말해버리고말았다.

《광차를 한립방이상짜리로 교체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차대를 합리적으로 만들면 장석기증기 없이도...》

《그만두오!》

직장장은 내부에서 그 무엇이 폭발한듯했다.

《동문 도대체 지각이라는게 있는 사람이요? 지금 그런걸 생각할 경향이 됐소? 작업장을 이런 꼴로 만들어놓고도!》

그는 스산해진 작업장을 손가락으로 휩 둘러가리켰다.

《...》

《동무문제는 절대로 그냥두지 못하겠소!》

그는 가버렸다.

나는 묵묵히 앉아있었다. 무섭지도 불안하지도 않았다. 다만 고독감이 견디기 어렵게 스며들뿐이었다. 다시금 멀리에 있는 《나의 거리》, 정든 거리가 떠올랐다. 석탄연기냄새 풍기는 그 대기가 지금 여기에 있다면! 그곳에서라면 지금처럼 고독감을 느끼지는 않았을것이다.

몇걸음 떨어진 옆에서 문희에게 하는 신철의 말소리가 들렸다.

《오늘일은 잘된것 같지 않소, 문희동무답질 않소.》

목소리는 어지간히 높아서 푹푹히 들렸다. 혹시 나는 내가 듣게 하려는것이였는지도 모른다.

《그런 한심한 장난에 끼여들다니? 난 동무까지 맞장구치게 될줄은 몰랐소.》

그때 만일 푹푹히 들린 문희의 대답이 아니었다라면 나는 뛰쳐일어나 신철의 멱살을 잡았을지도 모른다.

《저보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전 특별한 사람이 아니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고독감이 한결 멀리는 듯했다. 그 말은 마치도 나에게 《저도 일호동무와 같은 사람이예요》 하는 말처럼 들렸다.

《담배 있나?》

조장이었다. 나는 담배를 꺼내주었다.

《안됐습시다. 조장동지.》

그는 담배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그런데 뭇할려구 <내가 했노라>구 훌쩍 나섰나? 잠자코 있을게지.》

《일이야 내가 저지른게 아십니까?》

조장은 시무룩히 웃었다.

《누가 저질렀든 상관있나? 욕은 내가 먹기 마련인걸. 그래서 조장이이지.》

《!》

그때 나는 왜 마흔살밖에 안된 그를 조원들이 《아바이》라고 부르는지를 알게 되는것 같았다. 그리고 나자신부터 그를 《아바이》라고 부르고싶어졌다. ...

그날밤 영화관람이 있었다. 물론 야외 상영이였다. 우리 《거리》에는 아직 영화관이 없었다.

여기서는 가설건물뒤의 공지를 《영화관》이라고 불렀다. 그 영화관은 어둠의 시간이 《개관시간》이였다.

《개관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영화관》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문남은 기다렸던듯 다림발세운 군복을 꺼내입었다. 군복은 그의 몸에 맞게 줄여져있었다. 아마 그것때문에 문희가 며칠밤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것이다.

문남은 주머니에 담배까지 한통 척 넣고 나왔다.

그날밤에는 별로 점잖을 뽐으며 피우지도 않는 담배를 입에 물고있는 그의 모습이 《영화관》이구석 저구석에서 보였다.

영사막은 영사기를 싣고온 트랙포르 적재함에 처놓았다.

영화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영화와 함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바람이 영사막을 펄럭펄럭 흔들어놓았다. 그러자 영화화면들이 제멋대로 이지러들기 시작했다. 때로는 가장 심각한 장면에서 얼굴이 찌그러들거나 코가 삐뚤어져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바람은 점점 세차졌다. 모든 장면들이 만화영화처럼 되어버렸다. 게다가 바람은 몹시 쌀쌀했다.

내옆에서 화가 나서 웅얼대는 소리가 들렸다.

《젠장, 이것도 영화라고 봐?》

거슬렀다.

《그렇다면 종합사업소에 제기해서라도 해결해야지!》

목소리가 어지간히 높았던 모양으로 앞의 사람들이 훌쩍훌쩍 돌아보았다. 신철이와 마주서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조급한 성미로 되어버리는것이 나로서도 이상스러웠다.

나는 그의 입에서 《우리가 간석지에 왜 왔나? 제방을 막으려 왔지 편안한 생활을 찾아왔나》 하는 말이 나오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다르게 흘러나왔다.

《제기했대야 필요없어. 난 뭐 좋아서 참는줄 알아? 제기하면 <여긴 간석지요. 시내바닥이 아니란 말이요.> 할테니까. 간석지란 그저 이렇거니 해야지.》

《그게 옳을가?》

《옳은가구?》

하고 반문한 신철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물론 옳지. 우리야 여기 1~2년 있다가 제방만 막으면 떠날 사람들이거든. 철새처럼, 그런데 1년이나 2년 쓰고 헤어버릴 영화관을 짓는게 그게 경제적인가?》

《...》

나는 말이 막혔다.

《여- 일호.》

신철은 나의 침묵에 더 침착해진듯했다.

《내 이젠 여기서 뒤흔나마 일해봤기에 하는 말인데 공연히 뿔이 삐여지게 나설 필요가 없어. 간부들은 그러는걸 좋아하지 않아. 직장장만해도 그렇지. 동무가 그렇게 나서서 리익본게 뭐가 있어?》

《...》

《당장 갈 사람이라면 몰라라 여기 있을 사람이면 그저 잠자코 일하는게 제일이야. 이왕지사 있을바에야 잘못 보일 필요가 어데 있나?》

《...》

그는 스펙트럼적 가버렸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서있었다. 신철이 역시 불만이 있지만 참고 표현하지 않는다는것이다. 왜? 갈 사람이 아니라 있을 사람이기때문에... 있을 사람이기때문에?... 아니. 아니다! 나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는 껴꾸로 말했다. 갈 사람은 잠자코 일할수 있지만 있을 사람은 잠자코 있을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신철을 찾으려고 어둠속으로 걸음을 내짚었다. 그의 말에서는 거짓이 느껴진다. 그는 진심을 말하지 않았다. 직장장이나 몇몇 사람들의 마음에 들도록 말하며 행동하는 신철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움직이는것은 벌써 진심일수 없다. 무엇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나는 그를 붙들어세우고 묻고싶었다. 무엇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너는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하고...

그때 영화록음속에서 왕청같이 내 이름이 튀어나왔다.

《강일호동무, 좀 나와주세요.》

처음은 영화속의 대사인줄로 알았다. 다시 반복했을 때에야 나를 찾는것임을 깨달았다. 영사기에로 되돌아갔다.

《왜 찾았소?》

영화기술원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동무네 작업반장이 찾아달라고 해서 그래.》

《왜?》

《글쎄? 휴게실에 보내달랍데.》

나는 휴게실로 갔다. 반장은 이런저런 말을 묻더니 불쑥 말했다.

《일호동무 래일부터 식당근무를 하게 됐소.》

《식당근무요?》

《아, 동무야 국도 잘 끓이지 않았소? 그날저녁 정말 맛있게 먹었소.》

하고 그는 껄껄 웃었다. 그러나 나는 웃을수 없었다.

《이건 그러니... 명령입니까?》

《명령은 무슨 명령, 그저 좀 토론해보는거지.》

반장은 씩웃었다.

《직장장동무의 의견도 있고 해서...》

직장장의 의견이라는 말에 나는 영문을 깨달았다. 이런 방법으로 말썽거리를 작업장에서 제거하려는것이였다. 오늘 있는 일에 대한 처벌이라고도 할수 있었다. 이를테면 《추방》이였다!

나는 참을수 없었다.

《싫습시다!》

《왜?》

《하여튼 못하겠습시다.》

나는 나와버렸다. 절대로 하지 않을데다! 물론 나는 식당근무라는 자체에 의견있는것이 아니였다.

원주들과 코를 맞대고있는 분계선초소에서도

의견없이 식당근무를 했던 나다. 식당근무란 얼마나 책임적이고 힘든 일인가도 잘 알고있다. 문제는 이번의 식당근무가 《추방》된 결과로 이루어진 《처벌근무》라는데 있다. 나는 결코 나의 땀과 노력을 그런 그릇된 처벌의 대가로 바치고 싶지 않았다. 땀이란 신성한것이다.

영화는 계속되고있었다. 때때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이 만들어낸 웃음인지, 진짜 우스운 장면이 나와서인지...

이튿날 아침 나는 태연스레 작업장으로 나갔다.

조장이 의아한 얼굴로 나를 보았다.

《반장한테서 무슨 말 못들었나?》

《식당근무하라는 소릴요?》

《그래.》

질책하는듯 보는 신철의 얼굴이 화를 돋구었다.

《내가 왜 식당에 간단 말지요?》

《그런데 성은 왜 내나?》

조장은 지레대를 들며 말했다.

《싫으면 그만두는거지.》

옆에서 보던 《삼촌들》은 씩웃하고 웃어보였다. 문남이는 벌쭉벌쭉 웃으며 맛장구를 쳤다.

《그만두라요. 간석지에 왔으면 아, 제방을 막아 야지 가마뚜껑운전을 하겠쉬요? 쳄!》

문희는 그의 옆에 서있었으나 말을 막지 않았다.

신철이만은 외면한채 아무 말도 없었다. ...

그날은 기쁜 소식이 있었다. 건너편에서 (그쪽에는 회관이 있었다.) 도예술단의 공연이 있다는 것이였다.

우리 작업조는 다 관람을 가기로 했다. 관람보다 잠자는것을 낫게 여긴다는 조장도 빠지지 않았다.

그날 그 소식에 가장 기뻐한것은 아마 나였을 것이다. 건너편기슭에는 그 《치녀》가 있었다.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날처럼 작업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고대한적은 아직 없었다.

여느날처럼 밥탄내가 심한 저녁식사도 별로 기분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문남은 얼굴을 찡그렸다.

《밥을 또 태웠구나. 젠장! 이거야 아까운 쌀을 뭇로 만들어놔어? 배가 정 고프니 먹지. 에이!》

《문남이!》

신철의 목소리가 엄하게 울렸다.

《요즘 왜 그 모양이 돼가!》

《쳄!》

그전이라면 문남은 신철의 말에 이렇게 못했을 것이다.

문남은 호실에 들어가 군복으로 갈아입고 나왔다.

《숨옷을 입고 나오지? 춥지 않아?》

그는 짜늘한 밤대기에 이발을 떡떡 마주치고 있었으나 단호히 머리를 흔들며 우렁차게 대답했다.

《아-니!》

문희는 그의 옷차림을 바로잡아주느라고 서둘렀다. 거의 떨어져가는 단추를 든든히 달아주었고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다. 그러다보니 그 자신은 작업복차림 그대로 갈수밖에 없었다. 부두에서 배고동소리가 조급하게 울렸던것이다.

셋이서 부두어로 향했다. 그런데 문희가 문남이에게 의외의 말을 했다.

《넌 좀 먼저 가렴.》

《왜?》

《글쎄 먼저 가.》

《...》

문남은 쭈르르 앞으로 사라져버렸다.

나는 놀랐고 다음은 긴장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단둘이 남기를 바랬을가.

잠시 말없이 걸었다. 자기 발걸음을 헤듯 아래만 내려다보며 걷던 문희는 얼마후에야 입을 열었다.

《일호동무, 부탁할게 있어요.》

《말하오.》

《제발 우리 문남이앞에서는 이런저런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아주세요.》

《...》

《물론 일호동무가 하는 말은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문남인 아직 어려워요. 일호동무가 하는 말에는 다른 말이 뒤에 또 있지만 문남이가 그 말을 옮기면 그 말로 끝나는거예요.》

《...》

그는 이 말들을 몇번이고 되뇌여본듯했다.

《전 걱정돼요. 문남이가 이것저것을 두고 마구 불평을 하고 떠들어대는게... 계속 그렇게 나가면 문남인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뒤에 다른 말이 없을 땐 그건 불평일뿐이에요. 문남인 불평군이 되어가고있어요.》

《...》

《부탁하고싶어요.》

《알겠소. 그런데...》

나는 몇걸음만에 말을 이었다.

《문희동무 생각엔 어떻소? 그저 잠자코 살며 일하는게 옳은것 같소?》

《...》

그는 이번에는 《난 몰라요》 하고 대답하지 않았다. 잠자코 걷기만 하더니 불쑥 말했다.

《작년에 평양에서 한 기술자가 여기 왔었어요.

처음 왔을 땐 얼굴도 하얗고 손도 하얗어요. 그분은 여기에 반년나마 있었어요. 우리와 같이 일하고 똑같이 생활했어요. 때로는 물이 없어 세면도 못하고 또 때로는 밥을 못해서 식사도 제때에 못하면서... 그분은 군대복무도 못했고 교생도

못해봤다고 해요. 그러나 반년나마 있는동안 불만을 말하는것을 한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소?》

《전 할말을 다 했어요.》

날은 이미 어두웠다. 외등불빛이 길을 희미하게 밝혀줄뿐이었다.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며 희미해지다가는 다시 짧아지며 뒤로 물러가곤하였다.

문희의 발자국소리는 별로 또박또박 들렸다.

처녀들의 발자국소리는 더 또렷한듯했다. ... 난 말하고싶어요. 그런 사람도 참는데 동무야 제대 군인이 아니예요? 또 지금은 그때보다는 비할바 없이 모든것이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참기 어려워요? 난 동무를 볼 때면 안타까와요... 아니, 그는 이런 말을 하려 한것이 아니었을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 나는 그렇게 들었다. 그때 첫 들어온 말들이 모두 그러했기때문이었다.

나는 쌀쌀하게 말했다.

《알만하오. 나도 그 사람처럼 반년이나 1년, 아니, 4~5년 있다가라도 떠날 사람이라면 잠자코 참으며 일하고 살겠소. 그렇지만 나는 간석지에서 오래도록 살아야 할 사람이요. 요구된다면 일생이라도 말이요. 그런데 왜 일생을 살아야 할 내가 자기가 살아야 할곳에 대해서 말하면 안되오? 어느때든 떠나갈 사람들은 참고 살아갈수도 있을거요. 후날에 가서 추억으로 위안하면 되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이 간석지가 언제라도 추억이 아니라 영원한 오늘이란 말이요!》

나는 진정을 말했다. 그렇다. 나는 그밤 자신의 말속에서 이 간석지가 언제나 나의 오늘로 되리라는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왜서인지 서글퍼졌다.

이 어둠과 물비린내, 감탕내 풍기는 황량한 거리가 영원한 《나의 거리》란 말인가.

문희는 내 말에 놀란듯했다. 잠시후에야 저으기 자신없는 음성으로 말했던것이다.

《그럼... 참는 사람들은 다 떠날 사람들일까요?》

그 음성속에는 그 어떤 애수가 깃든듯했다. 그리고 아픔도 있었다.

《동무는 그럼 불만이 없소?》

《...》

《왜 대답을 못하오?》

《신철동무같은 사람도 있지 않아요?》

《신철이...》

나는 말이 막혔다. 그 이름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다. 얼마후 나는 솔직히 말했다.

《그 동무에 대해선... 나도 모르겠소.》

《뭘 모르게 있어요?》

나는 반발적으로 소리쳤다.

《난 모르겠소!》

발밑이 갑자기 밝아졌다.

부두에 닿은것이였다. 부두에는 배가 서있었고

사람들은 이미 올라있었다. 문남은 부두의 외등 밑에 서있었다.

《누나, 빨리 와!》

문희는 그 부름을 기다렸던듯 총총히 배에 올랐다.

문남은 나를 향해 마주왔다.

《일호동진 저-건너가지 말고 직장장실로 오래요.》

《누가?》

《직장장이지요 뭐. 거기 종합사업소 지배인동지도 있다는것 같어요. 방금전에 이 배로 건너왔대요.》

《...》

나는 맞은편 제방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갑자기 가슴 찌르는듯한 애수를 느꼈다. 지척에 있는 제방이 천리만리로 멀어지는듯했다. 이 시각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그러나...

《저-일호동지!》

《...》

《내가 저쪽에 가서 그-저-》

문남은 《그》 《저》 하는 단마디말을 몇번이나 곱씹더니 불쑥 말했다.

《찾아가보지요?》

《뭘 말이야?》

《야-이렇게 시치미 떼지 말라요. 다 알아요. 저기 내 동무들두 있구 누나의 동무들두 있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내 알아보구 정말 멋있으면 저- 불붙는 장작개비로 이렇게 저어보일게요.》

그는 팔로 공중에 원을 그려보이고는 배에 뛰어올랐다.

《기다리랴오-!》

배가 떠난 다음에야 나는 문남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깨달았다. 《그 처녀》에 대한 말이었던것이다.

건너편 제방끝에서는 모닥불이 타오르고있었다.

그것은 어둠속에서 빨간 신호등처럼 선명하고 눈부시게 보였다....

종합사업소 지배인은 신살 남짓해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나에게 나이며 고향, 가정형편 등 의례적인것을 묻고는 잠시 말을 끊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나지 않아 그러는것 같았다. 그러더니 불쑥 물었다.

《창고의 나무를 가져다 배낭고를 만들 때 무슨 생각을 했었소?》

《...》

그는 《가져다》라고 한걸 부드럽게 표현했다. 역시 지배인이 달랐다.

《식사가 한심하다고 했는지?》

《예.》

《큰돌을 망탕 싣다가 광차를 망가먹고 하루일을 0으로 만들기도 하고?》

《웁습니다.》

지배인은 머리를 찌뿔하고 나를 보았다.

《대답이 거침없구만! 간석지가 마음에 없다고 했는지? 그렇소?》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뭐가 또 있소?》

나는 그런 식의 물음에 약이 올랐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아보십시오. 직장장동지가 더 잘 알겁니다.》

직장장은 추상같은 눈으로 나를 보았다.

《동문 아직 정신을 덜 차렸구만!》

《가만, 이 동무 말을 마저 들어보지요.》

지배인은 나에게 머리를 돌렸다.

《말하겠습니다.》

나는 거의 소리치다싶이했다.

《왜 말끝마다 간석지, 간석지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합니까? 일에 대해 말해도 간석지, 생활에 대해 말해도 간석지, 간석지에 무슨 특수한것이 있습니까? 일도 조건도 다른 일터와 무엇이 다릅니까? 왜 간석지, 간석지 하면서 특수한것으로 만듭니까? 특수한것이 아니라 특수하게 만들고있습니다! 여기 자리잡은지 2년나마 되어 온다는데 영화관조차 없지 않습니까?》

지배인은 머리를 흔들었다.

《동문 잘못 생각하고있구만! 영화관이라든가하는 고정건물은 우리의 예산에 들어있지 않소.

2~3년 있을곳에 큰 고정건물을 짓는것이 그래 경제적인가? 2~3년 쓰고 헐어버릴것을.》

나는 담벽에 부딪친듯했다. 어제밤 신철이 하던 말 그대로였다. 그가 옳았던말인가... 인정하고싶지 않았다. 나는 그 담벽을 뚫러보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앞으로는 농장이 생기고 마을도 생길게 아닙니까? 그때에 쓸 건물을 왜 우리가 지금 미리 지으면...》

《일호동무!》

직장장이 내 말을 막았다.

《동문 우리가 누군지 잊은게 아니요? 간석지를 막는게 우리 임무란 말이요. 동문 간석지전망계획을 우리가 세우는줄로 아오?》

《가만있소.》

지배인은 또 머리를 찌뿔했다. 버릇인듯했다. 키 큰 사람들에게는 흔히 있는 버릇이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는 흔히 《여섯시 5분전》이라고 한다.

《이 동무의 말을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것 같소. 그렇지 않소? 직장장동무?》

《글쎄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야 제방을 빨리 막는게 첫째가 아닙니까? 부채휘틀 만들 목재도 딸리는데 이 동문... 내 참 무슨 공상을 하는지...》

나는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루살이식으로 일하는게 옳다고는 생각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떠나가도 어떻게 여기에선 사람들이 살게 되겠지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간석지의 첫 주민이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주민인 우리가 왜 이렇게 하루살이식으로 살아야 합니까? 간석지식 간석지식 하는데 그게 무슨식입니까? 어렵고 힘든걸 참아가는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걸 없애버릴대신 자랑처럼 여기고 간석지식이라고 떠들고... 이게 정말 옳은 일입니까?》

직장장이 벌떡 몸을 일으켰다.

《동문 못하는 말이 없구만. 무슨 말을 하자는게요? 처음부터 간석지가 마음에 없단느니 어떻게 하더니...》

지배인이 손을 들었다.

《제대군인의 말인데 들어보는게 좋지 않소? 그리고 직장장동무.》

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동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간석지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던건 아니지 않소? 일하느라니 정도 들고 떠날수 없게 됐지. 그렇지 않소?》

《...》

그는 나에게로 머리를 돌렸다.

《동무의 말이 옳소. 우리는 이 새로 생겨나는 조국땅의 첫 주민들이지.》

그는 머리를 찰싹했다.

《첫 주민이라... 참 좋은 말이요.》

《!》

나는 가슴이 몽클했다.

《직장장동무. 이 동무에게 왜 불렀는지 말해주오.》

나는 놀랐다. 다른 리유가 또 있단 말인가. 혹시 식당근무, 아니면 나는 직장장을 지켜보았다. 직장장은 얼굴을 찌프린채 책상서랍을 열었다. 그속에서 나에게 할 말이 나올것 같기도 했다. 그는 종이장을 하나 꺼내어 내앞으로 밀어놓았다.

《동무의 제대휴가증명서요-》

《휴가요?》

나는 떨떨해졌다. 이것이 찾은 리유였던가.

지배인이 일어났다.

《제대군인에게 아직 제대휴가를 못주어서 안됐소. 일에만 몰리다보니, ...그러나 간석지의 인상을 가지고 가게 된것도 나쁘지는 않을것 같구만. 할 말이 많은것 같은데 제대휴가를 갔다와서 하기로 하고...》

직장장은 책상만 내려다보고있었다. 아마 지배인에게서 무슨 말을 들은 모양이었다. 그중의 한 조항이 제대휴가문제일지도 몰랐다.

나는 직장장실을 나왔다. 손에 쥔 종이장을 다시 감촉했을 때에야 기쁨을 느꼈다. 군대복무기간에도 잊은적 없던 정든 고향거리가 지척으로 가까와졌다. 구내기관차들의 여러가지 기적소리가 (그것들의 기적소리는 모두 자기식의 목소리를 가지고있었다.) 공장굴뚝의 《금》을 흔드는 소리, 기관차의 석탄연기냄새가 벌써 대기속에서 느껴지는듯 했다. 얼마나 기다려온 제대휴가였던가...

길은 캄캄했다. 기슭도 캄캄했고 바다도 캄캄했다. 기슭에서 푸른 물줄기가 구불구불 뻗어간다. 물고기가 감탕에서 뛰는 모양이다.

밤의 간석지는 푸른 린광으로 가득찼다. 바다물도 기슭에 부딪쳐서는 푸른 색으로 부서진다. 온 바다가 린광으로 가득찼다.

기슭에 세워놓은 부림배들우에서 담배불이 꺾뻗거렸다. 관람을 가지 못한 직일선원들일것이다.

배는 물위에 뜬 하나의 나라와 같아서 항상 파수병이 있어야 한다. 주고받는 말소리들이 들렸다.

《저건 뭐고? 무슨 신호라도 하는것처럼.》

《장난이겠지.》

《장난치군 너무 지긋구만.》

건너편 제방에서 웬 불이 이리저리 흔들리고있었다. 눈여겨보니 불붙는 장작개비같았다. 누군가 불붙는 장작개비를 허공에서 빙빙 돌리고있는것이었다.

순간 나는 《아》하고 소리쳤다. 문남이! 그는 나와의 약속을 리행하고있는것이였다. 빙빙 원을 그리고있는 불타는 장작개비. 그것은 말로 번역하면 《훌륭하다! 아름답다!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아름다운 처녀가 여기에 있다!》는 뜻이였다.

나는 손을 쳐들어 마주 흔들었다. 보이지 않을 줄 알면서도 흔들었다. 가슴속에서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올랐다.

불은 계속 원을 그리고있었다. 내가 못보았을가봐 반복하는것이겠지만 나에게 《그 처녀》가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가를 더욱 강조하는것인듯이 느껴졌다.

검은 기슭에서 푸른 린광이 줄달음친다. 승어가 뛰는것이리라. 감탕내와 물비린내, 철썩거리는 물소리, 무한의 세계를 느끼게 해주는 서늘한 바람, 아, 밤의 간석지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밤에 나는 제대휴가를 떠났다.

그때로부터 일주일후 나는 해주역 대합실 긴의자에 앉아있었다. 간석지쪽으로 가는 열차는 두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제대휴가는 보름이였다. 떠날 때 나는 보름이 너무도 짧은것만 같았었다. 그런데 그 보름도 채 보내지 못하고 돌아오고있었다.

반가움과 환희, 격동과 놀라움은 하루이틀로써 지나갔다.

사흘째부터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직장에 나갔다. 동무

들의 집을 찾아갔으나 만날수 없었다. 모두 출근했던것이다. 어떤 친구는 밤일을 하고 돌아와 자고있었다.

《눈코뜯새가 없어. 어찌 바쁘지...》

가는곳마다에서 듣는 말이였다. 어데 가셔도 나는 나처럼 할일없는 시간을 소유한 사람은 만나지 못했다. 시간이 있는 사람, 한가한 사람은 오직 나하나뿐이였다. 버스정류소에서 시계를 보며 초조해하는 사람들이 부럽기까지 했다. 공원에라도 가서 앉아있느라오면 오가는 사람들이 이상스레 보는듯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을 때 나는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마치 내가 생활의 흐름에서 멀리 기슭으로 밀려난것 같았다. 강기슭에 밀려나 물마름과 이끼로 미끈미끈해진 나무조각처럼 자신을 느꼈다.

그렇다. 나는 생활에서 제외되어있었다. 시간은 나를 외면한채 분주히 흘러가고있었다. 누구나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이들이 어떻게 가는지 너무 빨라서 정신을 차릴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시간이 정체되어있었다. 시간은 나에게서만 벗어버린것이였다.

까닭없이 어느 옛말책에선가 보았던, 며칠을 놀다왔더니 원래 살던곳에서는 수십년의 세월이 흘렀더라는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것이 진실처럼 느껴졌다. 나에게서 시간이 정지해있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더 빨리 흘러가는것이 아닐까.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찾아냈다는 상대성리론과는 다른 형태의 상대성리론이라고 할수 있었다.

그토록 그려보았던 거리도 나에게 위안을 주지 못했다. 구내기관차들의 분주한 기적소리는 도리어 나를 불안하게 했고 애수를 불러일으켰다. 주위생활이 분주하고 소란스러울수록 나의 생활은 적막했고 고독감이 심해졌다.

문득문득 간석지가 떠올랐다.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있을가. 어둠속에서 빙빙 돌아가던 불불는 장작개비, 질척거리는 감탕길, 손을 쳐들면 처마끝에 잡히는 가설건물들의 거리, 해초냄새와 물비린내 풍기는 기슭.

나는 거리를 걸다가 어데선가 풍겨오는 바다냄새를 감촉했다. 순간 가슴이 찌르르해왔다. 해초냄새와 물비린내... 주위를 둘러보고야 어데서 온 냄새인지 깨달았다. 나는 《수산물상점》앞을 지나고있었다.

세찬 애수가 나를 그러잡았다. 이 거리. 내가 나서자왔던 이 거리는 이미 나의 거리가 아니였다. 아무리 정들고 유년시절, 소년시절의 추억이 깔려있어도 나의 거리가 아니였다. 나는 이미 이 거리에서는 고독과 불안, 초조에 싸인 이방인이였다. 우리 시대, 일없이 살수 없는 우리 시대...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만류하려고 했다.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렸다. 그러나 나는 옛세만에 떠나고말았다. 렬차에 오르자 초조와 불안, 고독은 사라졌다. 나는 다시 자신의 존재를 느꼈다....

등받이에 기대채 어렴풋이 잠들었는데 내가 앉은 장의자너머에서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렸다.

《그러니 인젠 안돌아올 생각이라는게지?》

《물론이지. 나혼자 간석지를 다 막겠나? 그만 했으면 충분해. 다른 사람들도 좀 막으래지.》

목소리가 어덴가 모르게 귀에 익었다. 누구의 음성이던가. 어데서 들었던가. 아득한 옛날이었던것 같기도 했고 얼마전인것 같기도 했다.

《이제 학교에 가서 언제 공부를 끝내겠나?》

《학교에 이제 가서 뭘해? 평생 공부만 하다말게? 간석지에서 뿔러니까 학교추천을 받은거지. 오라는데가 얼마나 많다구? 어데가나 간석지보다야 호화판이지!》

《그래도 어떻게 학교추천을 받았어?》

《눈을 꼭감구 몇년 일했지. 죄다 참으면서 말이야.》

《그러니 이제 간석지와는 작별이란 말이지?》

《완전히! 그만하면 내 뭇은 충분히 했어. 어데가도 부끄러울게 없어.》

아니다. 부끄러움을 알라. 네 뭇에 얼마인지는 조국만이 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지금은 아니라도) 너는 영원한 류량자로 남을것이다.

나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그대로 잠들고말았다.

기차시간을 알리는 안내원의 단조로운 목소리에 나는 깨여났다.

등받이 뒤자리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 복행차를 타고 가버린 모양이였다....

간석지는 여전하였다. 아무것도 변한것이 없었다. 밥에서는 여전히 연기에 그슬은 탄내가 나고 국도 맛이 없으리라. 외등도 희미하게 자기가 있다는것만 알릴뿐 길을 밝히지 못하고있었다.

무엇때문에 앞당겨왔던가 하는 후회도 들었다. 러벅러벅 호실로 가던 나는 《영화관》공지를 질러가다가 웬 판자에 걸려 하마트면 꼬꾸라질변했다.

《이건 또 뭐야?》

어둠속에서 박혀있는 말뚝 몇개와 건너질러박은 판자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침실을 더 짓는것인지.

그앞에서 물려서던 나는 멍칫하고 서버렸다.

누군가 나무판자를 대어섯장이나 겹쳐메고 자기 호실로 들어가고있는것이 보여서였다. 그뒤로는 또 한명이 잇달렸다.

《이것봐라! 국가채산을 막 가져간다?》

이 모양을 보면 창고장이나 직장장은 기절초풍을 할것이다.

그런데 다음은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외등 불빛속에 나무판자를 멘 문남이 노래를 소리소리 불려대며 나타난것이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

...

국가채산을 가져가니 다 와주시오 하는 식이였다.

《여-문남이!》

《아니? 야-일호동지!》
 그는 판자를 땡개치고 달려왔다.
 《지금 오는 길이에요?》
 《그래.》
 《배낭을 달라요. 내 땡게요.》
 《호실에 다 있니?》
 《일하러 나갔쉬요. 작업장에 있지요 뭐. 난 휴식 시간을 타서 판자때문에 들어왔댔어요.》
 《그럼 작업장으로 가자!》
 《그러자요!》
 그는 판자를 호실에 들여다놓고 총알처럼 달려 나왔다.
 《가자요!》
 《그런데 판자를 그렇게 막 가져와도 일없어?》
 《일없잖구요. 뭐. 호실을 꾸리라고 내주는거예요.》
 《호실을?》
 《예. 지배인동지가 돌아보구 한바탕 야단했어요. 뭐 <함바집>같다나요? 옛날에 그런게 있었다 누만요. 직장장은 짝소리도 못하구...》
 문남은 길걸거리며 웃어댔다. 나는 그의 말에 정신을 팔다가 또 말뚝에 걸채였다.
 《아이쿠...》
 이번에는 앞으로 꼬꾸라지고말았다. 배낭은 어텐가 어둠속으로 굴러갔다.
 《젠장. 이건 뭐야?》
 《이거요? 영화관 지을 측량말뚝이예요.》
 《영화관?》
 나는 손더듬으로 배낭을 찾다말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래요. 지배인동지가 뭐랬는지 알아요? 왜 동무들은 그 제대군인처럼 (일호동지 말이에요)래 일을 생각할줄 모르는가. 하루살이식으로 살아가는 안된다. 어려운 생활을 이겨나가는것도 훌륭하지만 생활을 아름답게 만드는것은 더 훌륭한것이다. 하고 말했어요. 역시 지배인동지가 다르지요?》
 마침내 나는 배낭을 찾아냈다. 둘러메고 일어섰다. 《가자!》
 《그 배낭도 호실에 갖다두자요.》
 《그냥 갖고가자. 먹을것밖에 없어.》
 《그래요? 좋구나!》
 문남은 배낭을 빼아메더니 손을 돌려 꼭꼭 눌러보았다.
 《뭐가 있어요?》
 《떡도 있구. 빵도 있구. 사과-》
 《멋있는데! 난 네명치를 먹어치울테예요!》
 작업장에서 타오르는 모닥불이 보였다. 문남은 앞질러 달려가며 소리쳤다.
 《일호동지가 와요-!》
 불가에서 엉거주춤 일어나는 모습들이 보였다. ...
 《왜 이렇게 빨리 왔나?》
 조장의 물음이었다.
 《그저 그렇게 되두만요.》
 문남은 배낭을 풀어헤쳤다. 모두들 군소리없이 손을 배낭에 들어밀었다. 그런데 조장과 《삼촌

들》뿐이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데들 갔는가요?》
 조장은 《아바이》답게 느릿느릿 떡을 씹으며 대답했다.
 《문희는 저쪽에 갔네. 중앙사로청표창이 나왔더군. 이젠 올게야. 배가 건너오는게 보였는데?...》
 《신철인요?》
 《신철이?》
 조장은 빵을 하나 집어 들고 냄새를 맡았다.
 《신철인 갔네.》
 《갔다는건요?》
 《영 갔단말일세.》
 《예?!》
 나는 해주역 대합실에서 들은 귀익은 목소리가 번개치듯 떠올랐다. 그것이 바로 신철이었던가...
 《그 사람이야 원래 갈 생각을 하고있는 사람인데 뭘.》
 한 《삼촌》이 말했다. 다른 《삼촌》과 조장은 머리를 끄덕거렸다.
 《?》
 그래서 신철은 그토록 자제력이 있었고 항상 《듣게 좋은》 말만 했던것인가.
 《다른 사람들도 막으라고 해. 나만 간식지를 다 막겠나?》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누가 보냈단 말입니까? 학교로?》
 나는 분했다. 만일 그가 정말로 공부를 할 사람이라면 이토록 분하지 않았을것이다. 도리어 좋은 일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가 왜 학교추천을 받았는지 알고있다. 《이제 학교에 가서 뭘해? 간식지에서 뿔러니까 학교추천을 받은거지.》 그것이 혹시 신철이 아니었을수도 있다. 그러나 신철은 그렇게 말할 사람이다. 나는 그를 안다!
 조장과 《삼촌》들은 내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갈 사람은 가라지 뭘.》
 《그 사람 없다구 뭐 간식지를 못막을가?》
 그들은 벌써 신철의 인간됨에 대하여 육감으로 느끼고있었던것이다. 그래서 조장은 그를 탐탁치 않게 여겼었다.
 이제는 그들은 신철의 존재에 대하여 더 생각하거나 논의하려고 하지 않았다. 미구에는 기억에서조차 깨끗이 지워버릴것이다. 사람의 가치란 있을 때에보다 없을 때에 더 잘 알려지는 법이다.
 하나 나는 그들처럼 태연할수 없었다. 나의 사회생활에서 부딪친 첫 의문이 바로 신철이었다. 모든것에 대하여 타협하기에 (그렇다. 타협이다. 그것을 나는 처음에는 열렬한 긍정이라고 생각했었다.) 준비되어있는 사람, 그러나 자기의 일이라면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사람... 그 참을성과 언제나 불만을 모르는 태도, 불을 보듯이 명백한 결점조차도 우점으로 보는 그... 처음은 감탄으로 대했다. 다음은 의혹을 느꼈다. 그것은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었다.

허나 이제는 그 의혹이 풀렸다. 그는 간석지사람이 아니었다. 간석지라는 불편하고 거칠은 러인숙에 잠시 들렀던 길손이었다. 손님은 자기가 찾아온 집에 대하여 비난하지 않는다. 참는것이 오히려 위안으로 되며 미덕으로 될수도 있다.

그러나 주인은 자기 집에 대하여 만족해서는 안된다. 불편한것도 괜찮다고 하며 더 못하던 때를 대비해보며 위안하는 주인은 라태한 주인이다. 나는 그런 주인이 되고싶지 않았다. 손님의 위로에 만족을 느끼는 주인은 우리 시대에 필요없다.

신철이. 나는 너에 대하여 손님이었다는때문에 분개하는것이 아니다. 손님이면서도 주인인척하였고 주인의 눈을 멀게 하려고 했기때문에, 손님의 위안으로 주인을 중독시키려 했기때문에 중오하는것이다.

이 땅은 넓지만 그 땅에 비해 사람이 다니는 길은 너무나 좁다. 그 길에서 다시 만날 때가 있을것이다!...

《여-일호!》

한 《삼촌》이 이것저것 부지런히 입에 가져가며 말했다.

《래일 아침식사도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야 해.》

나는 그를 건너다보았다.

《그건 무슨 소리요?》

《아직 말안했던가? 동문 정식 식당근무로 임명됐단 말이야.》

《뭐요?》

아직 식당근무라는 말이 그대로 있단 말인가.

《객객은 소릴 그만두시우!》

나는 벌떡 일어났다. 화도 났고 머리속이 어수선하기도 했다.

그런데 조장이 불쑥 말했다.

《가지 말게.》

《예?》

《가도 없네.》

나는 어리둥절했다.

《뭐가 없단 말입니까?》

《저쪽 제방끝에 말일세.》

《?!》

조장은 내가 제방으로 나가려고 일어난것으로 생각한것이였다. 그의 생각이 옳았을수도 있었다. 나는 짐승팔구 제방으로 나가 저쪽제방을 바라보았을것이다. 그런데 없더니?

《이 사람 일호.》

조장이 천천히 말했다.

《뭘 숨박꼭질할게 있나? 툭 털어놓고 말합세.

그 체네는 자네가 생각하던 그런 체네가 못돼. 간석지에 온 첫날부터 보내달라고 떼를 쓰다 못해 얼마전에 마음에도 없는 사람과 약혼을 하고 떠나갔다네.》

《?》

나는 멍하니 서있었다. 간석지가 싫어서... 마음에 없는 사람을 따라서... 어떻게 그럴수 있을가. 그렇게 매혹적이던 처녀, 크고 맑은 눈동자,

푸른 바다, 푸른 하늘이 그토록 찬연하게 비졌던 두눈이 어떻게 그런 허위를 담을수 있단 말인가. 믿어지지 않는다. 믿을수 없다. 그 아름다운 두눈... 가슴이 찢어지는듯 아파왔다.

《일주일전에... 자네가 휴가를 떠나는 전날에 갔다네... 관람을 갔을 땐 벌써 떠나간 뒤였지.》

《?》

그러면 그날밤 문남이가 어둠속에서 나에게 보내준 불신호는 거짓이었던말인가. 왜, 무엇때문에?...

나는 슬며시 일어나는 문남의 팔목을 거칠게 틀어쥐었다.

《어텔 가?》

그때의 감정이 분노였는지 슬픔이였는지는 나도 모른다. 다만 참기 어렵게 괴로왔다. 돌이킬수 없는 상실감으로 가슴은 진공상태로 된듯 아파게 옥죄여들었다.

《왜 그랬어?》

그때 몇발자국뒤 어둠속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울렸다.

《그 애에게 묻지 마세요... 그건 제가 그랬어요.》

문희의 목소리였다. 나는 획 돌아섰다. 어둠때문에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간석지의 어둠은 칠혹같은것이다.

《동무가?》

《노여워... 마세요... 전 다만... 우리 간석지를...련회... 그 동무에게서...》

떨리며 간간이 이어지던 음성은 끊어져버렸다. 더는 이어지지 못할듯했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 음성은 전률할만큼 또렷하게 이어졌다. 마치 내부의 그 무엇이 폭발한듯했다. 아니, 그 무엇에 강력하게 항변하는듯했다.

《아니예요! 그럴수 없어요! 간석지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

나는 묵묵히 서있었다. 무슨 말을 하라. 이 처녀는 모든것을 알고있었다. 한 처녀의 아름다움에서 내가 간석지를 찾아보려 했던것을... 때문에 그는 나에게 실망과 환멸을 주지 않으려고 불을 들었던것이였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는 왜 눈물에 젖은듯 점점 잠겨드는것일까, 눈에는 눈물이 어려있을지도 모른다... 간석지, 그렇지 않은 간석지... 그러면 간석지는 무엇일까. 바다도 땅도 아닌, 잔물에 절은 감탕판, 나무도 풀도 아닌 나무재기밖에 자라지 못하는곳... 그밤도 문희의 눈에 눈물이 어려있었을가.

아, 처녀의 맑은 눈물로도 단장되는 땅, 과연 간석지란 무엇일까...

탕-탕-탕- 프락프르동음과 함께 전조등이 눈부시게 비쳤다. 그 불빛속에 푸른 양복을 입은 문희의 모습이 드러났다.

순간 나는 굳어져버리고말았다. 처녀의 어깨우에서 구름처럼 물결치는 굵실굵실한 머리칼, 눈물어린 맑고 큰 두눈, 그 눈은 전조등불빛에 더욱 아름답게 보이였다... 내가 이 처녀를 어디서

보았던가. 간석지에 온 첫날 저쪽 제방에서가 아니었던가. 그리고 항상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았던가...

정말로 이 처녀가 문희란 말인가. 여직껏 투박한 솜옷과 커다란 병어리장갑, 두툼한 솜신에 싸여있던 문희가 바로 이 처녀였던 말인가.

나는 멍하니 서있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작업조에 온 첫날 놀랜 빛을 감추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 처녀》는 나의 상상속에서 만들어지고 아름다워진 하나의 신기루였다!

사랑은 먼곳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었다. 나는 나의 발밑에서 굳은 땅을 느꼈다. 순간 나는 간석지에 대한 나의 감정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사실 내가 리성으로 사랑한 래일의 간석지, 아무리 상상해보아도 싫지 않은 래일의 아름다움도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속에서 태어나고있는 것이 아닌가!...

전조등불빛은 지나가버렸다. 문희는 다시 어둠속에 잠겼다. 그의 말소리만이 다시 나직하게 울려왔다.

《일호동무, 식당근무를 해주세요. 저는 할줄 몰라서 못해요. 부끄럽지만... 이번의 식당근무는 직장장동지의 지시가 아니예요.》

《...》

말은 없었지만 내 마음속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있는 처녀... 보이지 않는 기슭에서 파도소리가 철썩거렸다. 푸른 린팡이 찬란하게 번져가고 있을 것이다.

《팡차는 한립방짜리로 교체하게 됐어요. 래일에는 굴착기도 도착한대요. 큰돌들을 그냥 싣게 될거예요.》

(큰돌!)

그 큰돌은 천만근무계로 나의 가슴속에 들어있는 것 같았다.

끝없는 어둠속에서 울리는 련속부절의 파도소리, 찬란한 린팡, 빛나는 눈동자... 이것이 간석지였다! ...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던지 문남은 수군거렸다.

《식당근무는 지배인동지 지시예요.》

나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런건 지시가 아니라 명령이라고 해.》

《지배인동지가 식사질을 높여야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일호동질 시키자고 했어요.》

부두쪽에서 쿵하는 소리가 울리더니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부릴배가 들어온 모양이었다.

문남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더니 한숨처럼 말했다.

《일호동질 추천했던 말이에요. 옳지, 누나?》

그리하여 나는 식당근무를 하게 되었다.

신철이 간석지를 떠나 《류량책》으로서의 길에 올랐을 때 나는 식당근무로 추천을 받고 눈같이 하얀 취사복을 입은 간석지의 《정착민》으로 되었다.

이렇게 나의 간석지생활은 시작되었다.

생각

김송남

내 알았던가
행복하다 하면서도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먹는 밥이 달아도
목메일 때가 있어

입은 옷 사는 집의
따뜻함에도
찌릿이 눈곱이 젖는 때 있어

생각하노라
이슬내린 포전길에 젖는 옷자락
비내리는 건설장에 새겨진 자욱...

자식의 소원
그 하나를 위해서도
천리를 마다않는

어머니같은 마음

내가 쉴 때도 쉬임이 없이
내가 즐거울 때도 근심농을새 없이
나를 위해주는 당의 그 마음

오, 살이 되라고 피가 되라고
나의 맥박이 항시 기쁨에 뛰라고
내게로 오는 이 모든 혜택이 있기전에

즐거 우리 당이 헤쳐간 길에
눈은 얼마나 많이 내렸던가
얼마나 차거운 바람은 불었던가

아, 언제나 그 생각
가슴 다는 그 한생각에
내 갇아야 할 도리가 있어
세상 무거운 것이 너였구나, 행복이여!

락원 사람들

문기창

열명 당원 그 이름은
그 누가
부모들이 지어준
그 이름들로만 부르던가
락원의 열명 당원들을 두고

그 누가
서로 달랐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이 태어난 고향도
먹은 나이와 생각도

맨손으로
수류탄을 만들어내던 그 길에
쓰러진다 하여도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뜻이 이어지던 사람들이어서

빈터우에서
대형양수기를 만들어내다
목숨을 잃을 때조차
그것만은 어길수 없던 사람들이어서

그들이어서 그들이어서
서로 다른 고향과 어머니가 있어도
한품에서 태어난

그 하나의 모습인듯
하나의 숨결로 이어진 사람들

믿음에는
보답으로 의리를 지킬줄 아는
그것이 충성과 효성인줄 안
그 무슨 타산과 계산으로는
급힐수도 꺾을수도 없는
구 하나의 의지로 이어진 사람들

아, 그들은 다같이
수령님 품에 안겨 새 삶을 찾아
하나의 고향을 간직했고
우리 당이 빛내여준 그 이름도
하나의 《열명 당원》

그 이름은
천만심장들이 하나로 이어져
우리 당을 받들어가는
영원한 전사의 이름

그 이름, 그 이름은
이 땅우에 흐르는
세월의 계선을 넘어
효자들의 이름이여라

그날의 의자앞에서

(락원의 민주선전실에는 열명 당원들이 앉았던 의자들이 있다)

어느 공장
어느 직장 휴게실에 놓인
그 나무의자들과 다름없어라

우러러
수령님께 신념의 맹세를 올린
열명 당원들이 앉았던 이 의자

그날처럼
그대로 놓여있어

생각은 더 뜨거운것인가

어느 극장
화려한 의자우에 앉을 때에도
이렇듯 생각은 깊지 않았고

가슴에 꽃뭉을 안고
주석단우에 앉을 때에도
이렇듯 가슴 울렁이지 않았거늘

앉을수 없구나
생각깊은 가슴속에 울리는
물음이 있어 ...

너는 무슨 생각을 안고
그날의 의자앞에
이렇듯 서있는것이나

아 그날의 당세포총회에 참가한듯
그날의 열명 당원들과 함께
나도 마음속에 손을 높이 드나니

그날의 당세포 결정 받들어
내 언제나 한마음
이 의자우에 앉으리

세상에 앓을 의자는 많아도
당원의 참된 삶을 빛내일수 있는
이보다 값높은 자리는 없기에...

문을 더 크게 달자

세상에 고고성을 터뜨린듯
수류탄상자들이 떠나가던
그날의 문은 작았다

빈터우에서 만들어낸
양수기를 떠나보낼 때
우리가 다시 단 문도 작았다

아, 그날의 기상이 나래치는
락원의 구내를 떠나려고
산악같은 기계들이 발동을 걸었다

문을 더 크게 달자

어려워도
남을 쳐다볼줄 모르는
강철의 의지로 기둥을 세워

문을 더 크게 달자

당이 바라는것이면
에둘줄도 헛디딤도 없이 곳곳이 걸어가는
내 조국의 발걸음이 활보해나간다

문을 더 크게 달자

날을 따라 해를 넘어
산악같은 기계군단
끝이 없이 떠나가려니

문을 더 크게 달자

세기의 령마루에 높이 오르는
락원의 문
우리 공업의 대문을 더 크게 달자

내 삶의 구내길

출근길에선
마음이 앞서 달려가고

퇴근길에선
발걸음 뜨겁게 옮기노라

그날의 《민주선전실》
그앞을 지나...

우러르면
열명 당원들의 하나같은 그 모습

그날처럼
가슴가득 안겨오고

수령님께 올린

맹세로 불타는 그 목소리로

그날의 믿음
그날의 신념으로

이 구내길에
하루같이 걸음걸음 새겨가거니

아, 앞서 걸어간
열명 당원들의 그 자욱이 펼쳐져 몇천몇만리

이 구내길우에
위훈으로 새겨질 내 삶의 자욱도 몇천몇만리

이 땅 끝에서 끝까지 가닿아
이 구내길은 끝이 없어라

락원사람들

이른새벽
거리에 구내에 울리는 방송원의 목소리
어른들도 아이들도
하나의 발걸음으로 이어주는가

《열명 당원들처럼 살자》
열정에 넘친 그 목소리
집집의 창가에도 울리어가고
공장구내의 휴게실에도
뜨겁게 울려주나니

락원땅에선
그 누구를 만나도
나에게는 생각되누나
열명 당원들의 한모습인듯

묻지 않아도
그날의 《민주선전실》
그리로 안내하는
그 속깊은 마음들

주물직장 입구엔
신포향 그 이름이 빛나고
용선로에선
그날의 불길이 꺼질줄 모른다고

조립직장 천정아래서도 나는 듣는다
그날의 맹세를 안고
대형불도젤, 회착기들에 시운전을 거는
그 심장들의 뜨거운 고동소리를

아, 미더워라
남들이 앞서 걸어간 수십년을 넘어
당의 뜻을 꽃피워가는
락원사람들

락원은
자력갱생의 공장이라고 하신
그 믿음 삶의 신념으로 안고
숨결도 발걸음도 하나같나니

그때문에
수집은 처녀들의 웃음소리도
나에겐 뜨겁게 울려오고
구락부에서 부르는 노래소리에는
락원땅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겨오네

그때문에 그때문에
일을 해도 노래를 불러도 락원사람들은
어제도 오늘도
열명 당원들의 그 한모습
우리 당의 믿음속에 영원한 모습이어

탄광마을의 새 민요

김정곤

아가야 자장자장 어서 자거라
네 아버지 저기 저기 막장에 계신다
새근새근 네 숨결 안고가신 아버지
산을 밀어간단다 금을 쏟아낸단다

네 요람에 아롱진 꽃송이들은
막장의 바람결에 더 곱게 피고
머리위에 반짝이는 저 별들은
막장에서 휘뿌린 보석이란다

아가야 자장자장 너는 아느냐
그 옛날 네 할머니 부른 자장가
어서어서 산을 넘고 구름을 넘어
막장 멀리 떠나라던 목메인 노래

오늘은야 이 엄마 너를 안고서
자장자장 잠재우며 바라는 마음
너도야 어서 자라 탄부되여라
너를 키운 이 엄마 기쁨이란다

열다섯해

김송인

간이역을 떠난 열차는 점차 속력을 놓기 시작하였다. 짙은 어둠이 검은 장막처럼 드리운 차창으로는 굵은 비방울이 연해연방 날아와 부딪쳐서는 줄줄이 흘러내렸다.

언뜻 역표식판을 내다본 리정섭은 의사등받이에 편안히 몸을 기대어 졸음을 청하듯 두눈을 지그시 감았다. 목적지인 남동까지는 아직도 퍼그나 더가야 하는것이다.

어제저녁 본사를 떠나 새벽녘에 도소재지에 도착한 그는 낮동안 시내의 여러 공장에서 일을 보고 다시 이렇게 밤차에 오르다보니 이틀밤 잠을 설친셈이 되었다. 래일 오전중으로 맹섬간석지에 당도하려면 미리 잠을 좀 자두는것도 나쁘지 않는데 좀처럼 잠이 오지를 않는다. 밤은 이미 퍼그나 깊었다. 활기넘치던 려객들의 담소도 잦아들고 차안엔 아늑한 정적이 깃들었다. 하지만 잠은 여전히 오지 않고 정신이 새록새록 맑아진다.

낮에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이 뇌리에 지긋게 맴돌려서는 불깃한 망막우로 번갈아 떠오른다.

그렇듯 많은 일을 해놓고도 자랑 한마디 할줄 모르던 방직기계공장의 로기능공아바이며 4월 15일에 연간계획을 완수한 쌍까풀논의 선반공처녀...

그러나 마지막으로 만났던 뚱뚱한 몸집에 얼굴이 불깃불깃한 농기계공장 기술과장에게서만은 그닥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었다.

(사람이 어찌면 그렇게도 달라진단말인가? ...)

사실 어제 공장을 찾아가갈 때만하여도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고싶은 사람이 바로 그 기술과장이었다. 그에게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열다섯해전, 대학을 졸업하고 신문사기자로 된 정섭은 그곳 농기계공장에 취재를 갔다가 처음 그를 알게 되었다. 한해에 자그만치 세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을 하여 두번의 국가발명권까지 받은 한다하는 기계기사였다. 지배인으로부터 로동자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였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의 남다른 재능과 열정, 소박하고 진지한 인간됨에 반하고 감동된 정섭은 그날밤중으로 40여매의 큼직한 기사를 써냈다. 그것은 신문기자로서 정섭의 첫 기사였고 또 그런 의미에서 기사의 주인공은 그의 추억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와서는 기대가 허물어졌다. 그새 공장기술과장으로 승급한 어제날의 기계기사는 물불을 모르던 젊을시절의 패기와 열정은 다 어디 부러

먹었는지 늑크데해서 사업보다 건강관리에만 더 신경을 쓰고있었다. 그것이 너무 로골적이어서 정섭은 룡담삼아 물어보았다.

《기술과장동문 그새 직위는 올라갔는데 열정은 떨어진게 아니요?》

그러자 기술과장은 손으로 살이 올라 투실투실한 목덜미를 주근주근 만지며

《글쎄요. 그런지도 모르겠수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한뼉을 백메터 경주를 하듯이만 살겠소. 더러 슬렁슬렁 걸어갈 때도 있어야지... 게다가 난 이제 청년이 아니오다.》라고 하며 어색한 분위기를 호탕한 웃음으로 뒤바꾸어버리는것이였다. ...

(...하긴 그새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한다. 그 10년도 썩 넘어 어언 열다섯해가 흘러갔으니 어찌 사람이라고 변화가 없으랴.)

이제와서 정섭은 그를 리해하려고 애썼다. 다만 지나치게 자기 건강만을 위하다가 시대의 락오자로 버림받게 되지 않기를 바랄뿐이였다.

달가닥달가닥 정적속에 더 커진듯싶은 차바퀴 소리는 그를 더더욱 깊은 상념의 심연속으로 빠져들게 하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다음 도착할 역은 남동역입니다.》하는 열차원의 목소리에 정신이 펴쩍 든 정섭은 차창밖을 내다보았다. 빨강고 파란 신호등빛이 어렴풋이 시야에 안겨왔다. 새벽 3시 5분, 열차는 정시에 남동역에 들어서고있었다.

정섭은 가방을 들고 잠든 사람들을 깨울세라 발끝으로 지저디디며 조용히 승강대로 나갔다. 울스산한 바깥에서는 마가을 찬비가 여전히 한대중으로 주룩주룩 쏟아지고있었다.

(예가 남동인가?...)

신입기자시절에 한번 와본고장이지만 이제는 너무 오래전 일이어서 모든것이 생소하기만 했다.

기억속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인상으로는 역구내가 이전보다 훨씬 넓어지고 좌우로 부속건물을 거느린 역사도 퍼그나 커졌다는것이였다. 거기에 또 하나 떠오르는 생각은 그전에 왔을 때도 역시 날씨가 몹시 껏어 눈보라 사나운 한겨울의 밤중에 이 역에서 내려 먼 려관을 찾아가던 희미한 추억이였다.

차츰 발이 설퍼지는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표받는곳을 나선 정섭은 려관을 물으려고 잠시 머뭇거렸다. 그때 저쪽 대합실 외등밑에서 높지는

않으나 또렷한 너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려관에 드실 손님들은 이쪽으로 와주세요.》

(원 이런 고마운 일이라구야!...)

정섭은 무작정 걸음을 내짚었다. 대합실 앞마당에 우뚝 솟은 큰 나무밑에서 아이를 업은 녀자가 《안녕하세요. 남동려관 접수원입니다.》 하고 가볍게 고개를 숙여보였다. 먼저 온 사람 몇이 우산을 받쳐들고 그의 두리에 응기중기 모여섰다.

《이걸 쓰세요. 나무밑이라도 비가 떨어집니다.》

접수원녀인이 자기가 들고있던 우산을 정섭의 앞으로 내밀었다.

《아니, 그러지 마시오. 나야...》

정섭은 굳이 사양하며 한걸음 물러섰다.

그러나 접수원녀인은 자기에겐 비옷이 있다면서 한사코 우산을 쓰라고 권하였다.

받자니 딱하고 안받자니 너무 성의를 외면하는 것 같아 웅색해하는중에 《어서 받으시우. 우리두이 접수원동무가 가지고 나온 우산들을 쓰고있습니다.》 하고 옆에 서있던 한 손님이 대신 우산을 받아 넘겨주는 바람에 정섭은 더는 사양 못했다.

그제야 접수원녀인은 돌아서서 비옷을 걸치고 청맑은 목소리로 길손들을 몇번 더 불렀다. 응답이 없었다. 하지만 그대로는 단념할수 없는듯 손님들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량해를 구하고 나서 대합실쪽으로 총총히 걸어갔다. 아마 한사람이라도 떨어졌을가보아 그러는것 같았다.

(참, 이 남동땅은 울적마다 날씨는 궂어도 사람들은 따뜻이 맞아주거든.)

리정섭의 눈앞에는 어느사이언가 아이를 업은 녀인대신에 두볼이 사과알처럼 말그레한 단발머리처녀가 꿈속에서처럼 나타나서 남동땅에 첫발을 들여놓던 열다섯해전의 그밤을 불러왔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춥고 캄캄한 밤이었다. 그날도 정섭은 초행길에 날씨마저 사나와서 그대로 떠날가 말가 망설이고있었는데 문득 대합실 출입문옆에서 남동려관에 가는 손님을 찾는 목소리가 들려왔었다. 머리에 분홍색 털수건을 두른 애리애리한 처녀가 남동려관 접수원이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손님들에게마다 선생님앞에서처럼 꺾박꺾박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기특하고 반가웠다. 길손들은 룡말까지 쉼어가며 겨끝메기로 마중나온 처녀접수원 칭찬을 해가면서 즐거운 기분으로 걸어갔다.

접수원처녀의 아름다운 소행에 대뜸 마음이 끌린 정섭은 그의 미거에 대하여 무언가 반드시 써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받았다. 정섭은 어느 길손들처럼 칭찬도 하고 룡말도 던지면서 은밀히 《취재》를 시작하였다. 처녀는 비교적 활달하고 당돌해보였다. 묻는 말에 척척 대답도 하고 룡말

에 제법 응수할줄도 알았다. 정섭은 그의 진속을 뽑아볼셈으로 손님들의 말뜸에 끼워 한마디 슬쩍 던져보았다.

《아무래도 난 모르겠소.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동무가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는지.》

《고생이라니요... 전 고생하는게 없어요.》

처녀는 별 이상한 말을 다 들어본다는듯한 기색이었다.

《허허, 왜 없다고 하오. 밤에 역에 나오자니 잠두 제대로 못자, 춥고 무섭고,... 이렇게 고생이 아니고 뭐요. 원래 동무야 접수실에 척 앉아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아들이면 그만이지 아니요.》

듣기가 거북한지 누군가 혀를 낄낄 찼다. 정섭에게 눈총을 쏘는 길손도 있었다.

처녀는 입을 꼭 다물고 한동안 대꾸가 없다가 슬며시 정섭에게로 바투 다가가서 귀속말처럼 말했다.

《그렇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마중을 해드리면 손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출돈생각도 다 잊혀지구요. 그럴 때마다 전 이런것이 일하는 보람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보곤해요.》

《그렇다, 음...》

정섭은 본의아닌 오해를 당하기는 했으나 내심 《취재》가 잘되어 여간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날밤 려관방에 자리를 잡자 정섭은 접수원처녀의 아름다운 소행에 대한 10매 정도의 토막기사를 써서 이곳 도일보에 등기로 발송했다. 하지만 지금 정섭은 그 기사의 운명은 물론 자신이 그때 그런 기사를 썼다는것조차 까맣게 잊고있었다.

(그러니 남동려관에서는 역에서의 손님마중이의 무처럼 되었고.)

정섭은 손님들을 살뜰히 부르던 접수원녀인의 아련한 모습을 눈앞에 다시 그려보면서 열다섯해전 단발머리 접수원처녀에게서 받았던 그런 흥미와 관심이 솟구쳐오르는것을 느꼈다. 한번 깊이 파헤쳐볼만한 생활이 그 모습에 비껴있는듯했다.

접수원은 혼자 돌아왔다. 길손들은 슬렁슬렁 움직이기 시작했다. 비발은 어느 정도 가늘어졌으나 세차게 불어오는 맞바람이 얼굴과 몸을 정면으로 후려쳤다. 정섭은 고깔이 없는 접수원녀인의 비옷에 마음이 쓰이여 우산을 함께 쓰고 가자고 권유했다.

《괜찮아요. 머리아 좀 젖으면 뭐랍니다.》

《우리를 마중나온 이 꺾마친구가 걱정되어 그러합니다. 허허.》

정섭은 우산을 그들의 머리위에 들어주었다.

《아이, 그럼 손님이 불편해서 어쩌나...》

《좌우간 접수원동문 보통이 아닙니다. 아이까지 업고...》

《아이는 할머니가 봐주신답니다. 오늘은 음에 나들이를 가서서 업구나온걸요워.》

《아니, 그럼 접수원동무는 매일밤 이렇게 나온달입니까.》

뒤에서 걸던 한 손님이 다그쳐 물었다.

《그러잖음 어떻게 해요. 손님들은 매일 오시는 데...》

녀인은 방그레 미소를 지었다.

《거참. 며칠건너두 아니구 매일밤...》

그 손님이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말을 이었다.

《려관이야 손님들이 물어 찾아가면 뭘텐데 접수원동무가 매일 이렇게 꼭 나와야 할 필요가 뭐요.》

정섭은 자기가 묻고싶었던 말이 그대로 나오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녀인의 다음말을 기다렸다.

《손님은 우리고장에 처음 오시는군요...》

녀인은 리해가 간다는듯 한숨을 호 내그었다.

《...우리 려관은 역에서 좀 멀고 거리유축으로 깊숙이 들어왔는데다가 차시간마저 밤이여서 찾기가 여간 말썽지 않답니다. 여기 철길은 간석지 건설이 시작되면서 새로 놓이다보니 원래 있던 려관과 역이 자연 멀어졌지요 뭐, 오래전 일이지는 하지만 손님 두분이 우리 려관을 찾느라고 밤새젓거리를 해매적도 있답니다. 그러니 어찌겠어요. 이렇게라두... 이젠 습관이 되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정섭은 별치 않는 일이라는듯 스스럼없이 말하는 녀인의 겸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그를 부추기고 떠미는것일까 하고 자문해보았다. 정섭은 문득 전에 왔을 때 려관을 역가까이로 옮긴다는 소문이 나돌던 생각이 나서 왜 옮긴다던 려관이 그대로 있는가고 물었다.

녀인은 처음 보는 손님이 그런 일까지 어떻게 다 아는가고 의아해하면서 《어쩔수 없는 사정이 있었...》 노라고 하고는 말꼬리를 사리는것이였다.

그럴수록 정섭은 호기심이 부쩍 동해서 거둬 대답을 재촉했으나 녀인은 무슨 말 못할 사연이라도있는듯 종시 입을 열지 않았다.

차츰 비발이 가늘어지고 바람도 어지간히 숙여들었다.

남쪽하늘 한귀퉁이가 빠끔히 들리면서 별들이 하나둘 돌아났다. 걷기가 훨씬 험해지고 기분도 좋아졌다. 녀인을 길잡이로 유쾌한 담소를 나누면서 걷느라니 어느사이엔가 멀리 보이던 불빛도 손에 잡힐듯 가까워졌다. 주택구역에 들어선것이다.

가로세로 뻗은 골목길들을 꺾질러 얼마쯤 더 가니 마침내 아담한 단층려관이 눈앞에 나타났

다.

접수원이 출입문계단우에 올라서며 딸깍 단추를 누르자 복도가 환해졌다. 사무실앞에서 접수원은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고는 혼자 방으로 들어갔다.

정섭은 손님들속에 섞여 두릿두릿 접수구를 찾았으나 웬일인지 접수구가 보이지 않았다. 문옆에 걸린 현판에도 식사시간만 적혀있을뿐 접수시간란은 비어있어 머리를 기웃거리고있는데 어느새 아이를 떼어놓고 옷을 갈아입은 녀인이 접수대장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손님들을 둘러보면서 《미안해요. 이제 곧 방들에 안내해드리겠어요.》 하고는 1호실에는 수산사업소에 출장은 손님, 2호실에는 선박수리공장에 온 손님, 3호실에는 중기계공장에온 손님...하는 식으로 호실배치를 하고나서 정원이 초과되는 방은 후에 조절해주겠노라고 말했다.

《아니, 접수도 하지 않구요?》

《접수는 이제 방에 찾아가서 해드리겠어요. 오시느라고 피곤들하시겠는데 어서 들어가셔서 짐들을 놓으세요.》

녀인의 크고 서글서글한 눈에 시종 상냥한 미소가 떠올랐다.

《허허, 이것 또 새로운 식인데. 괜찮아.》

《종구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법두 없구. 접수는 접수대로 하구. 오늘은 꼭 제 집에 온 기분이로구만.》

손님들은 저마끔 유쾌하게 한마디씩 했다.

정섭은 접수원녀인이 지척해준 호실에 들어가 손짐을 놓고나서 맴섬으로 가는 배시간을 알아보러 사무실로 갔다. 밤경비를 보는 아바이가 돌보기를 걸고 신문을 보고있었다가 알은체를 했다. 정섭은 수화기를 들려다가 행여나해서 아바이에게 배시간을 물었다.

《난 잘 모르는데. 이제 접수원이 오면 물어보시우. 그 사람 남정네가 그 배 선장이라우.》

정섭은 차라리 잘되였다싶어 장의자에 걸터앉으며 담배를 꺼냈다. 아바이는 담배를 받으며 《밤차에 오셨수?》 하고 물었다.

《네. 접수원아주머니가 우산까지 가지고나와서 아주 편안히 왔습니다.》

《음, 그랬을테지. 늘 그런다니까.》

아바이는 주름진 얼굴에 대견한 빛을 띄우며 담배연기를 후 내뿜었다.

《아바인 접수원동무를 잘 알겠습니까?》

정섭은 녀인이 돌아올 동안이라도 그에 대해 알고보고싶은 생각에 지나가는 말처럼 던지시 물었다. 아바이 역시 심심하던차에 말동무를 반기는듯싶었다.

《잘 알다마다, 정말 쉽지 않은 아낙이지요.》

아바이는 마치 사랑스러운 제 딸 자랑이라도 하듯이 애정을 담아 말했다.

정섭은 감심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전년 언젠가는》

아바이는 랑볼이 꺼지게 담배를 빨고나서 뒤말을 이었다.

《…려관을 역가까이로 옮길 공론들이 있었수다.

려관을 옮기면 역마중을 안해도 돼, 집이 가까와져서 누구보다 좋아할줄 알았던 접수원이 반대하지를 앓겠수. 그가 뭐랬는지 아슈. 려관을 옮겨놓으면 역은 가까와 지지만 손님들이 일을 보는 공장 기업소는 그만큼 멀어지는데 하루 세번 왔다갔다하느라하면 적어도 하루 두시간을 길에다 땀탕 내버리게 된다는거웨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학교가 가까와야 공부할 시간이 많듯이 출장원들도 공장이 가까와야 일을 보는데 편리하지 않겠느냐구…》

그때 문소리가 나며 접수원이 들어서는바람에 아바이의 말은 중단되었다.

《손님이 댁집 배시간을 알자구 아까부터 기다리고있네.》

아바이는 후에 다시 보자는데 정섭에게 눈을 껌뻑해보이고는 순찰시간이 되었다고 밖으로 나갔다.

《손님방이 비어서 어델 가셨나 했더니… 배시간은 아침 6시와 낮 2시인가봐요.》

접수원은 문서장들을 안고 책상앞에 가앉으며 말했다.

(아침 6시와 낮 2시라…)

정섭은 가뜰이나 피곤이 몰린데다가 아침배를 타려면 또 잠을 설치게 될것 같아서 차다리 낮배를 타기로 작정했다. 댁집에는 미리 전화로 랑해를 구해두면 될것이다. 정섭은 호실로 돌아가려고 일어서다가 피곤했던 접수를 안했다는 생각이 나서 증명서를 꺼내들며 말했다.

《난 아예 여기서 접수를 해야겠군.》

《그러세요.》

무심히 대답하며 증명서를 받아 펼쳐보던 녀인이 갑자기 놀라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정섭의 얼굴을 쳐다보는 그의 휘둥그레진 두눈은 그 무엇을 되새기는듯 이따금 깜빡거렸다.

정섭은 녀인이 왜 불시에 그처럼 놀라는지 알수없어 어리둥절해진 시선으로 마주보았다.

이윽고 녀인은 증명서를 다시한번 들여다보고 나서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기자동지시였구만요.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정섭은 의아한 기색으로 고개를 기웃거렸다.

그러자 접수원이 한마디 텅졌다. 《전에 여기 한번 오셨던적이 있으시지요.》

《있지요. 열다섯해전에…》

정섭은 그제야 무엇인가 어렴풋이 짐작이 되었다.

《야- 벌써 그렇게 되었군요. 세월두 참… 전 그때 단발머리였는데…》

《그럼 동무가 바로 눈보라치던 그날밤의 그 단발머리접수원이란 말지요?!》

정섭은 세상에 이런 희한한 일도 있는가싶어 녀인의 얼굴을 새삼스럽게 훑어보았다. 열다섯해 세월이 젊음은 앗아갔지만 크고 시원한 눈매며 선이 끝은 단정한 코와 수집음을 머금은 입가에는 아직도 처녀시절의 모색이 적잖게 남아있었다.

《용서하시오. 접수원동무, 난 아까 역에 마중나온 동무를 보고 그때 일을 되새겨보면서도 그 처녀가 지금까지 그냥 여기서 접수원을 하고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더랬소. 야, 이것참…》 정섭은 감동이 너무 커서 격동된 심정을 뭐라고 표현했으면 좋을지 알수 없었다.

《그랬을거예요. 그게 언제적일이라구… 그렇지만 전 때때로 기자동지 생각을 했답니다.》

녀인은 얼굴을 붉힐사하며 조용히 말했다.

《그건… 어째서요?》

정섭은 이 녀인이 어떻게 되어 자기를 생각했을까 하고 기억을 더듬어보았으나 아무런 짐작도 가지 않았다. 어쨌든 정섭에게는 이 뜻밖의 해후가반가웠고 깊은 감회를 자아내는것이였다. 직업적본능이라고 할가. 정섭은 역에서 떠나면서부터 궁금해지던바를 털어놓았다.

《접수원동무, 오늘밤. 나는 동무를 보면서 그저 놀라운 생각뿐이었소. 우산을 들고 손님을 찾는 모습에도 놀랐고 아이를 업고 밤길을 걷는 모습에도 놀랐고…그런데 이제 보니 열다섯해를 그렇게 살아왔구만, 열다섯해를 …》

이 시각 정섭에게는 열다섯해란 세월이 엄청나게 긴, 어쩌면 웅근 한세기같이 느껴졌다. 비록해온 일이 홍수에 무너지는 제방뚝을 한몸으로 막는것처럼 영웅적이라고는 말할수 없지만 한두달이나 한두해도 아닌 열다섯해를 하루와 같이 그렇게 해오기란 결코 험치 않는것이다. 그것도 처녀시절이라면 몰라라 가정부인의 몸으로 그런 용단을 내리고 오랜 세월 그렇게 일한다는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순간에 진행되는 그런 영웅적인 소행보다 오히려 더 어렵다고 말할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접수원동무, 솔직한 말로 난 정말 모르겠구만. 한두해도 아니고 어떻게 그 긴긴 세월을 그렇게 일할수 있었는지.》

《아이참. 그거야… 기자동지가 시키신 일인데 도리어 저에게 물으면 어떻게 해요?》

너인은 상글상글 웃었다.

《내가 시키다니요?…》

정섭은 어리둥절해서 고개를 기우뚱했다.

그러자 너인은 《하긴 선생님께서야》 하며 손가방 안에서 가위가 빨간 자그마한 수첩을 꺼냈다.

뚜껑을 제끼니 뒤등에 겹으로 접어넣은 누르끼해진 신문지조박이 붙어있었다. 그 신문조박이 거기에 얼마나 오래 붙어있었는가는 누르끼한 그 색깔이며 얇은 비로드천마냥 바실바실 보풀이 인것을 보고도 알수 있었다.

너인은 신문조박의 접어넣은 부분을 조심히 펼쳐더니 정섭에게 내밀었다.

《이게 생각나세요?》

너인의 손에서 수첩을 받아들고 접었던 자리가 닳아 구멍이 뚫린 신문조박을 내려다보던 정섭은 《아!》 하고 탄성을 올렸다. 그것은 열다섯해전, 그렇다. 신입기자시절에 만난 이 남동려관 접수원처녀의 아름다운 소행에 감동되어 쓴 토막기사였다. 네모반듯하게 오래된 신문조박의 아래쪽에는 분명 본사기자 리정섭이라는 활자가 뚜렷이 박혀있었다.

《전 그 신문기사를 불적마다 선생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구 선생님이 쓰신 그 글처럼 살려고 애썼어요. 사실 그때 전 한절반 들뜬 기분으로 칭찬이나 좀 받아보자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신문에 나고보니 기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어요. 전 신문에 소개된것처럼 일을 잘하지 못했고 그런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도 지니지 못한 처녀였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바라는것이 바로 그런것이라는것만은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 신문에 소개된 그날처럼 살자고 했습니다만…》 너인은 부끄러운듯 고개를 숙였다.

《아니, 그러니 이것때문에…》

정섭은 가슴이 뜨거워올라 더 말을 이을수 없었다. 필자자신마저 까맣게 잊어버린 한편의 손바닥만한 토막기사를 열다섯해동안이나 소중히 간직하고 생활의 길잡이로 삼아온 이 너인… 얼마나 소박하고 성실한 너인인가. 아니 얼마나 참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간직하고 사는 너인인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섭의 진정어린 감사에 접수원너인은 얼굴을 붉혔었다.

《원 선생님두, 그건 제가 기자선생님에게 하려던 말입니다. 선생님이 써주신 그 기사가 아니었던들 저는 열다섯해를 아무 의의도 보람도 없이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이 기사가 아니였대도 아주머니는 보람을 느끼며 살았을것입니다. 아주머니의 마음속에는 처녀적부터 그런 짝이 있었습시다. 단지 세월이 그 짝을 자래웠을 따름입니다.》

정섭은 문득 낮에 만났던 기계공장 기술과장의 혈색좋은 얼굴이 떠올랐다. 사람이 어떻게 한뼉을 숨가빠만 살겠느냐고 력설하던 그 능글맞고 권태어린 얼굴이… 그것이 열다섯해동안에 달라진 기술과장의 인간상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앞에 서있는 이 러관접수원너인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있다. 열다섯해 세월이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 참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얼마나 차이나고 대조되는 두 인간의 형상인가. 어찌하여 생활은 모든 사람을 이 너인처럼 다 같이 아름다운 하나의 참모습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단말인가.

정섭은 생각이 깊어졌다. 흘러간 그 열다섯해 동안에 나는 과연 이 녀성처럼 살아왔는가 하는 의혹이 생긴다. 애어린 처녀의 소박한 미거에도 깊이 감동되고 흥분하여 밤을 밝히며며 글을 쓰던 그때의 열정과 기백이 과연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가. 없었다. 있느니 아득히 멀어진 추억뿐이고 식어버린 심장과 팽팽한 리성뿐이다. 바로 그래서 나는 렬차에서 그 기계공장 기술과장을 리해해주려고 한것이 아닌가. 방금전 몇시간의 잠을 위해 배시간을 놓고 저울질했던 일이 새삼스레 돌이켜졌다. 될수록 혈하게 일하고 편하게 살아보려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은연중 일상생활에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한 요인이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렇다. 이 너인처럼 그 언제나 변함이 없이 시대의 거세찬 흐름에 발을 맞춰나가자. 그 발걸음속에서 새로운 《90년대속도》 창조로 들끓는 오늘의 벽찬 현실을 온 세상에 알리자!

《접수원동무, 이 수첩을 받고 그 증명서는 도루주시오. 러관신세는 지지 않아도 될것같습시다.》

《아니, 지금 떠나렵니까?》

너인은 놀라며 서운해하였다.

《가야 합니다. 배시간이 멀지 않았습시다. 배시간이 …》

정섭의 얼굴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다.

날은 아직 어두웠다. 그러나 곧 밝아올것이다. 그 밝아오는 새날의 렬명을 마중가듯 정섭은 힘있게 발걸음을 내짚었다.

뒤에서는 러관접수원이, 어디 가나 흔히 볼수 있는 보통키의 아리잠직하게 생긴 너인이 그를 바라워주었다.

소조원의 마음

리영환

부산의 아침은 참으로 불만하다.

돈을벌이 부채살처럼 퍼지기 시작하자 산비탈에 층층이 들어앉은 선광장의 아연도철지붕들은 일제히 은빛으로 번쩍이기 시작했다.

아스라한 질산붕 정점에서는 대형자동차들이 좌르르-광석을 부리운다. 폭포처럼 쏟아져내리는 쇠돌들은 장쾌한 음향을 내지르며 출근길에 오른 광부들의 심장을 쿵쿵 울려준다.

하늘을 뚫고 솟아오른 콩크리트기둥들이며 우람찬 칠골구조물들이며 불도젤들이 우르릉거리는 3선광장건설장 풍경은 또 얼마나 장관인가.

중키에 억세고 단단한 체구를 가진 3대혁명소조원 리천우는 오늘아침 한껏 긴장된 마음으로 출근길에 올랐다.

그것은 오늘 전하파쇄장의 돌가루를 잡기 위한 먼지잡이장치 실험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리천우는 선광장 로동계급들과 소조원들이 먼지잡이장치를 완성하기 위하여 바쳐온 땀과 열정에 대하여 돌이켜보았다. 무슨 거대한 기술적발명을 한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먼지잡이장치를 완성하기 위하여 그들은 얼마나 많은 낮과 밤을 바쳐왔던가? 300여종의 부속품들, 450여점의 제판품들, 돈을 헤아리는 철판들...소조원들과 기술자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부속을 깎고 철판을 두드리고 용접을 하였다. 무려 석달동안에 걸친 열정의 산물로 태어난 먼지잡이장치일진대 그 실험을 앞둔 이시각이 왜 긴장하지 않으랴!

지하파쇄장에는 직장장이며 주병호현장기사며 많은 사람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있었다. 그들이 미리 다 관심했겠지만 다시한번 제진장치의 요소요소들을 살펴본 리천우는 흥분된 마음으로 스위치앞에 섰다.

각종 계기들이며 전동기들, 감속기며 송풍기들, 구불구불 지붕밖으로 뻗어오른 배관들...이제 스위치만 넣으면 송풍기의 바람에 말려 먼지가 하늘중천으로 날아난다. 그렇게 되면 파쇄공들이 먼지를 모르고 신선한 공기속에서 일하게 된다.

(파연 어떻게 될것인가?)

리천우는 개폐기를 련결하였다.

《부-우-웅-》 웅글은 소리를 내며 송풍기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파쇄장에 떠돌던 먼지가 안개처럼 설피여지며 서서히 공기가 맑아지기 시작하였다.

손에 땀을 그러쥐고 바라보던 사람들의 표정이 풀어지며 환성이 터져올랐다.

씨름선수처럼 동기동기한 주병호기사는 달려와서 리천우를 닮음 들어올리고 한바퀴 빙 돌았다.

《소조원동무, 성공이요. 성공!》

리천우도 기뻐다. 얼마나 기다리던 시각인가.

그러나 차츰 시간이 감에 따라 리천우는 왜그런지 마음이 개운치 못했다. 먼지가 잘 빠지지 않는다. 채광창을 통해 활촉처럼 새어들어온 햇빛속에 돌가루알갱이가 떠도는것이 보인다. 그것은 예상했던것보다 좋지 못한 결과였다.

주병호는 눈이 없어지게 웃으며 소조원에게 물었다.

《소조원 동무, 성공했다고 기술과에 알려도 될까요?》

리천우는 기뻐하는 기사에게 만족한 대답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기사동무, 좀더 기다려봅시다. 우린 먼지잡이장치를 완성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주병호의 큰눈이 의혹과 놀람으로 켜졌다.

《소조원동무, 그게 무슨 소리요? 이렇게 공기가 신선해지는데...》

《아닙니다. 공기는 맑아지고있지만 도로 가라앉는 돌가루가 많습니다.》

주병호는 어이없게 중얼거렸다.

《원, 소조원동무두, 선광장공기가 아무럼 숲속공기와 같겠습니까?》

《갈아야지요. 그렇게 하자고 시작한 일이 아닙니까?》

더 대답을 못하는 기사를 남겨둔채 리천우는 선광장밖으로 나왔다. 그는 스틱스적 폐석장 산정으로 올라갔다.

산정에 우뚝 서있는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뽁뽁 돌아가면서 찬바람을 일으켰다.

리천우는 세찬 바람앞에 머리칼을 날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 서있었다.

파연 어떻게 해야 좋을것인가? 주병호기사의 말대로 현재의 상태로도 일없지 않을까, 선광장공기가 숲속의 공기처럼 맑지 못하다고 누가 탓하지는 않을까이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는 설레설레 머리를 저었다. 아니다. 우리 로동계급을 유해로운 로동에서 해방시켜주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일을 그렇게 실속없이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3대혁명소조원으로서의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은 다른 사람들이 한결같이 당중앙에서 파견되어온 사람들이 다르다, 정말 당중앙의 친위대, 근위대답다, 3대혁명소조성원들의 모범을 따라배워야 하겠다고 말할수 있도록 행동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니 3대혁명소조원으로 파견한 당의 은정에 가슴이 후터워오고 그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지 못하는 죄스러움으로 마음이 송구스러웠다.

정녕 자기는 무엇때문에 먼지잡이장치를 설치하려 했던가?

감회도 새로운 지난해 여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채광능력을 확장하고 현대적인 기술설비를 갖춘 3선광장을 건설할데 대하여 강력적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접한 그날저녁 리천우는 커다란 감격과 흥분 속에 잠 못 이루었다. 그러나 나는 3대혁명소조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 수령님께서 그토록 관심하시는 3선광장을 더욱 훌륭하게 꾸릴것인가.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리천우는 제진장치를 창안도입할 결심을 하였고 한창 무르익히던 큰배 아굴개교체로보트제작을 뒤로 미루었다.

그러니 어떻게 미흡한 먼지잡이장치를 새로 짓는 현대적 3선광장에 설치할수 있단말인가? 그렇게는 안된다. 한점의 먼지도 없게 될 때, 그때에야 3선광장에 뿔뿔이 도입할수 있다. 먼지잡이장치를 다시 만들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리천우는 한껏 고개를 젖히고 바람을 일구는 풍력발전기를 바라보았다. 풍력발전기는 그가 소조생활을 시작해서 처음으로 만든 창안품이다. 발전기는 폐석장의 난방용전기를 담당하고있다.

발전기를 바라보노라니 소조원으로 일해온 공지가 가슴가득 차오르며 저 멀리 흘러간 동요시절의 애뜻한 추억이 되살아났다.

...

검덕에서 나서자란 리천우는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갑작스레 평양으로 가는 전학증을 땀다.

일생을 파쇄공으로 살아온 쇠돌처럼 단단하고 날카로와보이는 체소한 아버지는 대뜸 아들의 전학증을 구겨서 내던졌다.

《누구의 승인을 받고 전학증을 땀느냐?》

작고 예리한 아버지의 눈빛이 거역할수 없는 위압감을 띠고 번쩍였다. 천우는 이제는 다 자란 인간의 동등한 자격으로 아버지앞에 뿔뿔이 자기를 주장했다.

《아버지한테야 선광장밖에 더 있어요. 늘 선광장에 붙어살지요. 아버지가 선광장에서 내려오지 않기때문에 전 제절로 결심했어요.

아버진 전국의국어경연에서 1등을 한 이 아들의 앞날에 대하여 언제한번 생각해본적이 있습니까? 전 제 앞길을 제가 개척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천우는 평양에 가서 중학교를 졸업해야 외국어 대학에 추천받기 쉽기때문에 삼촌네 집으로 전학증을 땀다고 숨김없이 말하였다.

아들을 광산기술자로 키우려고 걱정했던 아버지는 기대가 허물어지자 가볍게 한숨을 몰아쉬었다.

《이 아버지선 선광장의 소음을 없애보자고 기계를 만들어보는데 잘되지 않아서 집에 못내려왔다. 배운게 없어 그런다. 그런데 네너석은 애비야 어떻게 되든 가겠단 말이지...》

아들의 입귀가 비웃음을 담고 한쪽으로 쏠그려졌다.

《아버지, 남들은 달나라에서 광석을 캐다가 위성용광로에서 쇠를 녹이자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선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기계를 만들자고 하지요? 전 그걸 답습하고싶지 않아요. 전 외국어대학에가겠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베일듯 아들의 얼굴을 스쳐지났다. 로인의 역센 턱은 후들후들 떨리고 말소리는 거칠어졌다.

《네가 감히 광부들을 업수이 보다니...이놈아. 네가 오늘은 부모를 버리고 고향을 떠나려 하지만 래일은 아마도 별나라로 간다고 조국을 버릴게다. 안된다. 너는 이 금굴이 어떤덴지 제대로 알기전에는 아무데도 못간다.》

아버지의 쇠돌처럼 단단한 주먹이 장판바닥에서 드르르 울었다.

로케트를 탄것처럼 우주에 떠올랐던 천우의 지향은 아버지의 쇠돌같은 주먹앞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그에겐 꿈도 많았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란 그는 한때는 시인이 되여볼가 조기천의 《백두산》을 애송하였고 한때는 음악가가 되여볼가 피아노도 두드려보았다. 커가면서 외국어에 뜻을 두었는데 그것마저 아버지의 노여움을 사고말았다.

이젠 어떻게 하면 좋단말인가? 이 금골을 제대로 안다는건 무슨 말인가?

번민의 나날이 흘러갔다.

중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날 천우는 아버지의 광산대학입학청원서를 보았다. 그것을 보았을 때 천우는 중시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아버지는 년로한 나이에 광산대학에 들어가려고 한다. 오죽하면 인생말년에 배우겠다고 독한 마음을 먹었겠는가? 바로 나와 같은 새 세대들이 광산을 떠나려 하기때문이다.

《아버지. 절 용서하십시오. 제가 광산대학에 갔었어요.》

차고 날카롭기만 해보이던 아버지의 눈가에 물기가 미음돌았다.

《네가 그렇게 결심했더니 나도 기쁘구나. 천우야,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무엇때문에 이 검덕골에 오셨겠니? 무엇때문에 락수를 맞으시며 지하막장길을 걸으시었겠는가 말이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리하여 천우는 청진광산금속대학에 갔다. 최우등으로 대학을 졸업한 그는 무산광산 3대혁명소조원으로 파견되었다.

그동안 선광장을 담당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던가? 풍력발전기를 만들었다. 선광장 공업용수를 리용하여 물레방아식발전기도 만들었다. 왕성한 의욕과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콘베아굴개교체장치를 기계화하고 굴개배아링화를 실현하여 콘베아능력을 2배로 올렸다.

《소조원동무. 무슨 생각을 하오?》

누군가 어깨를 툭 쳐서야 리천우는 깊은 상념에서 깨어났다.

언제보나 태평스러워보이는 주병호기사가 웃음을 짓고 서서 천연스레 물었다.

《소조원동무. 먼지잡이장치를 어떻게 할셈입니까? 우선 올해 기술혁신계획이야 수행하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리천우는 계획을 빗대고 먼지잡이장치에서 손을 떼려는 주병호의 태도가 비위에 거슬렸다. 하지만 마음을 누착히며 부드럽게 말하였다.

《기사동무. 그렇다고 완성되지 못한걸 도입할수야 없지 않습니까.》

주병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건 3선광장에 설치할 때 잘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다시 뜯어고치느라면 어차피 올해는 다 넘길텐데 소조원동문 로봇를 언제만들 작정입니까?》

주병호의 얼굴에 야릇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는 소조원의 속생각을 명중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랬다. 사실 리천우는 로봇를 만들어보고싶었다. 소조생활기간에 로봇를 완성해보려고야심을 가지고 사색과 탐구를 해왔던것이다. 그랬던것이 먼지잡이장치에 먼저 달라붙어 손을 놓긴했으나 불길처럼 타오르는 열망과 애착은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주병호의 말대로 먼지잡이장치를 다시 만든다 어쩐다 하면 소조생활기간이다 흘러갈지도 모른다.

주병호는 리천우의 이러한 심정을 건드리며 재빨리 말을 이었다.

《우리 광산이라고 늘 똑딱거리며 그러루한 기술혁신만 하겠습니까? 우리도 로봇를 만든다고 한번 소리쳐봅시다. 예? 소조원동무.》

어쩌면 주병호는 한번 명예를 떨쳐보고싶은 욕망에 들떠있는것 같다.

이때 돌연 두만강쪽에서 터진 바람이 광산을 휩쓸면서 두사람을 날려버릴듯 세차게 불어쳤다.

리천우는 헉헉 감시며 자기의 생각이 너무 편협하지 않았는가 고쳐 생각해보았다. 주병호를 왜 공명이 있는 사람으로만 보아야 하는가? 그는 진정으로 로봇를 만들어보고싶어한다. 지향이 명백한 인간의 탐구와 사색은 불길보다 더 세찬것이어서 그 열정은 그 무엇으로써도 끝수 없다. 하물며 로봇를 만들고싶어 감질이 난 주병호의 열망을 어떻게 쉽사리 꺼버릴수 있겠는가?

리천우는 주병호의 마음이 허영심이 아니기를, 진정이기를 바라며 그에게 로봇트제작을 맡기기로 마음먹었다.

(나의 연구자료를 그에게 넘겨주자.)

온갖 사색과 탐구와 열정이 굳어져서 이제는 자기 생명의 한부분처럼 귀중해진 연구자료-그것을 남에게 넘겨준다는것은 출전을 앞둔 무사가 장검을 남에게 주는것만큼 용단을 내리기 힘든일이였다. 그러나 천우는 큰마음을 먹고 그 길을 택했다.

《기사동무. 우리 콘베아굴개교체로봇를 한번 잘 만들어봅시다. 광산이 들썩하게 말입니다.》

주병호는 그 말을 진정으로 믿기 어려운지 한참동안 머리를 기웃거렸다.

《그런데 한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로봇트제작을 기사동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완성해야 한다는겁니다.》

주병호는 갑자기 손을 뻗어 내저었다.

《아니 그거야 같이 만들자고 약속하지 않았소!》

《그래도 책임자야 있어야지요.》

《그럼 책임자를 해본다?》

주병호는 제사 신바람나는듯 왼손바닥에 주먹을 철썩 안기였다.

《내 본때있게 해보리다.》

리천우는 싱글거리는 주병호를 보자 자기의 마음도 가벼워지는듯싶었다.

×

그날밤이었다.

삼라만상이 다 잠든듯 자정이 기울었으나 선광장은 산 심장처럼 맹렬히 고동쳤다.

쿵쿵 지심깊이 울리는 파쇄기의 동음, 마광기와 자력선별기가 돌아가는 쿵튀듯하는 소리, 쇠돌을 싣고 흘러가는 콘베아의 은근한 마찰음... 그 모든것을 피부로 느끼며 리천우는 높은 천정에 매달려 흡진장치를 분해하고있었다.

(어째서 먼지를 잘 빨아내지 못할까? 송풍능력이 약한가?)

그는 기계적으로 볼트나트들을 풀며 생각은 생각대로 번져나갔다. 먼지가 굳어지고 녹이 쓴 볼트나트들은 잘 풀리지 않았다. 안간힘을 써서 잡아당기면 팔이 매시시해지고 코마루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내뿜는다. 독감에 걸렸는지 어제부터 열이 나는걸 그냥 참았더니 이제는 뼈마디까지 쑤신다.

별안간 눈앞이 아찔하여 눈을 감았다.

빨강고 파랑고 노란 불씨들이 무수히 눈앞에서 맴돌며 온몸이 나른해진다.

(쓰러지면 안되겠는데...)

천우는 배관을 그러안은채 눈을 감고 한동안 정신을 가다듬었다.

불현듯 주병호의 얼굴이 떠오른다. 천우는 주병호에게 연구자료를 넘겨주었다. 그것을 받아안고 어쩔줄 몰라하던 주병호,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있을까?

그가 맥을 놓고있는 지금의 나를 보면 뭐라고 하겠는가, 그가 마음놓고 로봇트를 만들게 하자고 나혼자 말아나선것이 아닌가. 그렇다. 쓰러지지 말아야 한다.

입술을 감쳐문채 눈을 뜬 리천우는 끝내 흡진기를 분해하고야말았다. 그는 먼지잡이가 잘 안되는 원인이 바로 흡진기가 제구실을 못하기때문이라는것을 알아냈다.

(됐다, 이것만 고치면 틀림없을것이다.)

그는 너무도 흥분한김에 송풍기배관을 그러안았던 손을 놓아버렸다. 그리하여 몸의 균형을 잃고 선광장 바닥의 미광더미위에 떨어졌다. 그는 의식을 잃었다.

리천우가 정신을 차린것은 이른새벽 광산병원에서였다. 이마에 와닿는 누군가의 손길을 느끼며 조용히 눈을 뜨니 밤새 늙고 초췌해진듯한 주병호기사가 침대앞에 서있었다.

천우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기사동무,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흡진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늘 무던하기만 하던 주병호의 입에서 걱정이 터져나왔다.

《이건 너무하오. 나에겐 로봇트를 만들라고 자료까지 넘겨주면서 빼돌리고...그래 이 주병호가 그렇게도 손잡고 일할 가치가 없는놈이란말이요.》

리천우는 그가 화를 터치는것이 오히려 기쁘고 고맙게 생각되었다.

《기사동무, 그렇게 아닙니다. 어차피 그것도 3선광장에 도입해야했기에 둘다 같이 밀고나가자는 생각에서 그랬는데... 섭섭히 생각진 마십시오.》

사죄하는듯한 그 말에 주병호는 다시한번 가슴이 몽클했다.

어찌하여 소조원은 아득한 자원에 서있는것처럼 둔우보이는가. 과연 이 사람과 나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나는 제진장치가 성공한데 대하여 만족하고있지만 소조원은 한점의 먼지도 없는곳에서 광부들이 일하게 하려고 자기의 모든것을 바친다. 그 어떤 기술혁신에 앞서 로동계급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로동계급을 위해 바치는 충성의 마음-바로 이것이다. 나에겐 이것이 없었다. 과연 당에서 파견한 소조원들이 다르긴 다르다. 이런 전위들과 함께라면 무슨 일들을 못해내겠는가? 그는 심장으로 웨쳤다.

《소조원동무, 내 다 알았소. 먼지잡이장치도, 로봇트도 같이 만듭시다.》

리천우는 무한히 행복하였다. 한 인간의 참다운 뉘우침을 본다는것이 이리도 기쁜것임을 처음으로 깨닫는듯싶었다. 그는 주병호를 비롯한 생산자대중이 먼지잡이장치의 주인으로 될것을 바랐다. 바라던 그 순간이 온것이다.

리천우는 일어서서 주병호의 두손을 뜨겁게 잡아흔들었다.

《기사동무, 고맙습니다.》

그들은 억세게 포옹한채 뜨겁게 이마를 비비었다. 그것은 마치 영원한 하나의 조각처럼 송고하게 돋보였다.

천우는 이 순간 소조원된 긍지와 영예를 가슴뿌듯이 느꼈다.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 별이라도 따울것 같던 희망이 한갓 공상이였다는 허무한 생각들이 들고 오늘의 벽찬 현실속에서 로동계급을 위해 살며 투쟁하며 성장해온 삶의 보람이 한껏 넘쳐났다.

좋은 광산, 좋은 광부들속에서 3대혁명전위로 일하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리천우와 주병호는 새로운 결의를 안고 새날이 밝아오는 철산봉의 아침을 맞으려 선광장밖으로 걸어나갔다. 힘찬 걸음으로...

《령북땅》과 작가의 창작적개성

-단편소설집 《령북땅》에 대하여-

리기주

높은 정치적식견과 풍부한 예술적자질을 갖추고있는 작가는 한편의 소설로써도 자기의 창작적개성을 뚜렷이 드러낼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 작가가 쓴 여러개의 작품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그 작가가 현실을 보고 느끼고 그려내는데서 자기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알게 된다.

작가는 창작에서 응당 남과 자기를 구별짓는 특성이 있어야 한다. 작가의 이름이 없는 작품을 읽고서도 독자가 이것은 누구의 작품이다 하고 짚을수 있다면 그 작가야말로 창작적개성이 뚜렷한 작가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작가는 저마다 사상과 감정, 생활체험과 예술경험이 다르기때문에 생활을 관찰하고 분석평가하며 형상하는데서 확실히 자기 나름의 독특한 방식이있는것이다.

단편소설집 《령북땅》(리병수)을 두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이 책에는 일곱편의 소설이 들어있다. 책의 이름을 그렇게 단테는 작가가 단편소설 《령북땅》을 쓰는데 많은 정력과 재능을 쏟아부었고 그래서 제일 애착을 가지고있기때문일것이다.

소설 일곱편을 그것들이 반영하고있는 시대배경을 가지고 나누면 《폭탄》은 항일무장투쟁시기를, 《철교는 건너야 한다》와 《준엄한 시절》은 조국해방전쟁시기를 배경으로 하고있으며 나머지 《령북땅》, 《설령의 딸》, 《사나운 겨울》, 《해빛을 싣고》는 천리마진군의 대고조시기를 배경으로 하고있다. 소설들의 시대배경에는 같은것도 있고 다른것도 있으나 소설의 소재로 선택한 생활내용들은 물론 다 다르다. 그러나 설정과 형상에서 모든 소설들에는 관통하고있는 특성이 있다는것을 엿볼수있다.

단편소설집 《령북땅》을 읽고 가장 강하게 받는 인상은 작품들에 진하게 깔려있는 조국애와 그에 잇닿아있는 향토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사상감정이다. 작가는 신성하고 귀중한 조국땅의 한 부분인 외진 산골, 지난날에는 사람 못살고장으로 알려졌던 령북땅의 꽃피는 행복한 생활에 대하여 그리고 이곳 사람들과 자연에 대하여 류다른 애착을 가지고 사랑한다.

조국과 그의 한 부분인 령북땅, 향토에 대한 이러한 사랑의 사상감정은 무엇보다도 작가가 작

품의 주인공들을 모두 령북땅사람들로 내세운데서 찾아볼수 있다.

주인공들을 보라, 《폭탄》에서의 안철순, 《철교는 건너야 한다》에서의 선로원, 《준엄한 시절》에서의 정녀, 《설령의 딸》의 김은주, 《사나운 겨울》에서의 조인갑, 《해빛을 싣고》에서의 복순 그들은 모두는 령북땅에서 나고 자랐거나 거기서 살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다만 《령북땅》에서만은 다른고장사람인 농산기사 남명운이가 주인공이다. 그는 갓조직된 협동농장의 영농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도와줄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수도로부터 령북땅에 지원나온 인테리이다. 그런데 작가는 그마저 령북땅 사람으로 만들었다. 작가가 남명운기사에게 지운 형상과제로 보아서는 꼭 그를 령북땅사람으로 만들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작가는 굳이 그를 령북땅사람으로 되게 하였다.

한 작가의 작품계렬에서 주인공과 그의 생활환경을 결부시켜 고찰하는것이 무슨 의의가 있단말인가? 충분한 의의가 있다. 주인공과 그가 활동하는 환경을 어떻게 선택설정하는가 하는것은 작품의 사상예술적질을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크게 작용한다. 작가는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사람들, 깊이 체험한 생활을 선택하고 형상할 때 작품에서 자기가 주장하는것을 충분히 드러낼수 있기때문이다. 주인공과 그의 생활은 결코 빈터에서 생겨나는것이 아니며 작가는 빈데서 그것을 꾸며낼수 없다. 주인공과 그의 생활은 작가의 정력적인 탐구와 체험에 의해서만 얻어낼수 있다.

작가는 주인공과 그의 생활을 깊이있게 체험했을때 작가가 보고 느낀것을 세상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겠다는 충동을 받고 붓을 들수 있으며 그 래야 자기의 작품에 생활의 진실을 담을수 있는 것이다. 작가의 생활체험도 예술경험도 주인공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실현되기 마련이다. 작가는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사람과 생활만을 자신있게 형상할수있고 주인공은 바로 작가의 사상감정의 대변자, 생활체험의 립회자이다.

단편소설집 《령북땅》의 주인공들은 자기를 내세워준 작가가 지기들과 같은 고장 사람이고 자기들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품인 조국, 조국의 한 부분으로 혈맥이 뛰는 령북땅을 사랑하

고 이곳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주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 작가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 향토에 대한 애착이 주인공들의 형상에 어떻게 체현되었는가. 그것은 주인공들의 어제와 오늘 태일에 깃들어 있다.

《폭탄》의 주인공 안철순은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하던 시기 열세살 어린 나이에 살길을 찾아 압록강을 건넜다. 이국타향에서 근근히 성장한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직령도하시는 항일무장대오에 들어섰다. 일제를 때려부시는 간고한 싸움길에서 그는 한 순간도 장백 대안에 있는 고향에 대하여 잊은 적이 없었고 고향땅을 되찾기 위해 간난신고를 이겨간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친솔하에 조국으로 진군하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에 보장할 폭탄제작임무를 받았다. 안철순도

《이제 사령관동지께서 친솔하시는 부대의 전우들과 함께 자기 손으로 만든 폭탄을 차고 나가서 바로 자기를 고향땅에서 쫓아버린 왜놈들을 쳐부신다!》는 일념, 기쁨과 희망, 투지를 안고 폭탄을 만든다. 장군님의 친솔하에 왜놈들을 치러 고향으로 간다는 기쁨, 이것이 그로 하여금 열병으로 감빠감빠 의식을 잃었다가도 편득 정신을 차리게 하고 제작해놓은 폭탄을 구원하기 위해 놈들의 수색대를 유인하다가 치명상을 입어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도 기어이 임무를 수행하고야마는 무비의 힘, 영웅성, 희생성을 발휘하게 하였던 것이다.

령북은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싸운 혁명선열들의 성스러운 자취가 스며있는 신성한 땅이다. 설령 (단편소설 《설령의 딸》의 지명)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파견하신 유격대의 정치공작원이 비밀사업을 한곳이었다. 쪽박을 엮은 집을 이고지고 살길을 찾아 고향을 등지고 떠났던 김운덕일가를 설령에서 따듯이 맞아준 것은 《마방객주집주인》 유격대공작원이었다. 뜻하지 않게 공작원이 일제경찰놈에게 체포되어간 그날부터 김운덕은 설령에 집을 풀고 그의 뒤를 이어 국내에 파견되는 혁명투사들의 사업과 생활을 적극 방조하는 투쟁의 길에 나선다. 그는 공작원이 남기고 간 말을 부리며 유격대의 집을 나르느라고 고원의 준령들을 메주뚫듯하였으며 그 길은 일제에게 억눌려 화전민의 고콜볼밑에서 한숨짓는 사람들에게 투쟁의 불씨를지퍼주는 길이고 어디에 가든 사람들이 발편잠을 자고 마음껏 일하려는 희망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해방을 맞아 그 소원이 성취되자 그는 설령마루에 이곳을 넘나드는 길손들이 자기 집에있는듯한 아늑한 감을 느끼게 하는 휴식터와 《휴계각》을 꾸리고 20년을 하루같이 우편통신원으로 충실히 복무하는 것이다.

단편소설집 《령북땅》의 주인공들을 지난날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해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피흘려 싸운 혁명선열들의 고귀한 넋을 이어받았기에 해방된 조국땅에서 인간의 자주적인 생활이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맛보았기에 조국의 운명과 자신들의 운명을 절대로 떼어놓을수 없다는것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하였기에 행복의 요람을 지켜 원쑤에게 무자비하였으며 사랑하는 조국과 향토를 지켜내는 싸움에서 목숨바치기를 서슴지 않았다.

단편소설 《철교는 건너야 한다》와 《준엄한 시절》은 미제침략자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여 조국을 지켜 싸운 령북사람들의 숭고한 조국애, 향토애의 정신을 감동깊게 보여주었다.

《철교는 건너야 한다》의 주인공 선로원은 놈들의 항공대의 기총사격을 받아 치명상을 입고서도 인민군비행기사냥군조에 포탄상자를 수송하는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고야만다. 그는 마지막 운명의 시각에 해방후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누렸던 행복에 대하여 회고하면서 곁에 있는 인민군지휘관에게 유언한다.

《선로반에 돌아가면 세포위원장에게 잘 말하게. 내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 선로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덕을 생각하면 꼭 살아서 가야 할텐데...》 운명하는 시각에도 아직 더 할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주인공이다.

그는 과연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던가. 해방전 쪼들리는 살림에 끼니를 에우려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땀나물 뜯으러 산에 갔다가 독사에게 물려 사경에 처했어도 등에 진 나물보짐만은 벗어던지지 않았다는 불쌍한 안해, 약 한첩 못써주고 그 안해를 잃은 사람이었다. 해방의 날을 맞을 때까지 9년이라는 세월을 죽지 못해 살아온

《철도공부》였었다. 그러다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신 그날로부터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온 이 나라의 평범한 로동자였었다. 그러기에 그는 미제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는 싸움에서 영웅성과 불굴의 의지를 남김없이 발휘하였으며 더 일을 하지 못하고 가는것을 한하면서 눈을 감았던 것이다.

《준엄한 시절》의 주인공 정녀는 원쑤놈들의 온갖 회유와 기만,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항거하여 끝까지 싸운 령북땅의 자랑스러운 처녀당원이요 인민유격대원이다. 전략적후퇴시기 그는 원쑤놈들에게 체포되어 장렬한 최후를 마치면서 마을에 진격한 인민유격대원들과 군중을 향하여 말한다.

《여러분, 우리는 원쑤를 똑똑히 봤어요. 원쑤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우리들의 목에 멍에를 씌우려고 하는것도 우리는 똑똑히 봤어요...우리가 어

찌 또다시 저놈들의 노예가 돼서 굴종을 당해야 하며 우리의 피땀을 바쳐 놈들을 살찌게 할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쌍가매의 새세대들에게만은 **김일성** 장군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행복하게 자라게해야 해요.》

일제의 노예살이를 뼈아프게 겪은 우리 인민이었다. 한번 벗어던진 노예의 멍에를 다시는 걸머질수 없는 주인공들이었다. 조국의 품이 없이는 자기의 삶도 없다는것을 그토록 절절하게 깨달았기에 주권을 자기 손에 들어준 인민의 존엄이 어떤것인가를 온 세상에 보여준 인민이었다.

그러기에 《평북땅》의 주인공들은 조국의 미래와 자기의 장래운명을 위대한 수령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를 평북땅에 활짝 꽃피우기 위하여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쳐나간다.

작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한껏 꽃피여가는 평북땅사람들의 생활, 주인공들의 긍지와 자부심, 활기, 양양한 미래에 대하여 기쁨에 겨워 노래하고 향토를 행복의 낙원으로 꾸러나가는 주인공들의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소리높이 자랑하고있다.

조국땅의 한 부분인 평북의 약동하는 현실, 희망과 낙관에 넘쳐있는 주인공들의 생활을 보라. 그러면 작가가 이들을 참다운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대하며 그들이 하는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어떻게 찬양하고 자랑하는가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얼마나 열렬히 호소하고있는가를 알게 될것이다. 《평북땅》의 주인공들에게는 그들이 없고 우울과 침체도 없으며 동요와 주저도 없다.

림철사업소 책임운전사령원인 조인갑(단편소설 《사나운 겨울》)의 일숨씨를 보라. 사업소의 연간계획을 완수하게 되는 마지막날에 공교롭게도 박천과 천상수역 사이에 눈사태가 났다. 원목을 실어날라야 할 선로가 눈사태에 묻혔다. 박령감의 머느리가 타고 시집와야 할 객차가 움직일 길도 막혔다. 그러나 조인갑은 당황하지도 않으며 실망하거나 비판하지도 않는다. 림산마을의 모든 로동자들, 주인들, 모든 작업장과 역들, 역들의 구내선 모든 차량들, 모든 전화교환수들이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난관앞에서도 주저앉거나 전진의 속도를 늦출수 없다는것이 그의 신념이다.

작가는 이렇게 썼다.

조사령은 교환수에게 명령을 내렸다.

《서계수를 부르오. 원목렬차를 떠나보내오. 이

쪽구내에 선이 없으니까 기외정차요. 계획을 오늘로 끝내야 하오.》

...다음은 남계수를 불렀다.

《원목렬차를 떠나보내오. 기외정차요.》

《네》을 림철역이 나왔다.

《공차를 단 렬차를 올려보내오. 차가수를 통과시키고 적암역에 와서 다음 명령을 기다리우.》

원목집결장역이 나왔다.

《이계수에 들어온 렬차가 두번째 복구대를 신고떠났는데 원목렬차를 떠나보내오.》

《박천에 첫번째 복구대를 싣고 간 렬차의 또 하나 있는데요.》 (저쪽에서 온 말)

《기외정차요. 일본도 지체할수 없소.》

박천역이 나왔다. 처녀역무원이 응답을 한다.

《구내에 렬차 있지?》

《네.》

《기관사에게 발동을 걸라고 하오.》

《사고현장에 렬차가 있는데요.》

《두번째 복구대가 내려가면 지금 동무네 구내에있는 렬차와 련결시켜가지고 사고현장까지...알겠소?》

《네. 생전 침 보는 운전법이네.》

이 대담한 운전법은 오직 이렇게 혹독한 자연과 싸우는 사람들에게만 구상될수 있는것이다. (단편소설 《사나운 겨울》)

교환수들은 쉽없이 가입자들을 호출한다. 전류를 타고 명령이 하달된다. 복구대가 편성된다. 두 줄기레루를 타고 모든 원목실은 렬차들이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달린다. 어디에도 서있는 렬차는 없다. 어디에도 앉아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 혹독한 자연에 맞서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을 작가는 사랑한다.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하고 자기 사업에 정통하고 거기에 온갖 지혜와 열정을 쏟아붓는 평북땅의 주인공만이 할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나무랄데 없는 지휘이다. 작가는 얼마나 큰 긍지를 가지고 평북땅의 이젊은 사령원을 자랑하고 싶어하는가. 온 사업소가 모든 역들이 그리고 로인들도, 녀인들도, 아이들도 다 그의 지휘에 따라 자연의 장난을 물리치고 연간계획완수의 마지막날을 승리로 장식하고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리였다.

《(인간이 자연을 개조한다》고 아버지를 깨우쳐주면서 남명운기사를 도와 농지를 개량하고 합리적인 시비체계를 세우며 작물배치를 하고 새 밀 품종을 얻어내기 위한 연구사업을 직심스럽게 해나가는 최채순(단편소설 《평북땅》)을 작가는 얼마나 사랑하는가. 적지적작의 원칙을 실현하는 새 품종의 밀을 얻어내기 위한 남명운의 연구사업은 보수적이고 공명에 들뜬 봉서의 방해에 부딪혔다. 그는 번민에 사로잡힌다. 3년이라는 지정

기한이 되면 늙은 어머니와 누이가 기다리는 수도로 돌아가도 그를 나무랄 사람은 없었다. 작가는 채순이로 하여금 남명윤기사를 명복땅 양흥리에 붙여두게 하였다. 명윤이는 고향땅을 개조해나가려는 채순이에게서 동창생인 현숙이와는 비길수 없는 높은 이상의 세계를 발견하였으며 그의 생기발랄한 모습에서 명복땅의 앞날을 보았던 것이다.

아버지가 메던 우편통신원가방을 넘겨받아 멘설령의 딸 은주의 노염 잘 타고 웃기 잘하는 귀여운 모습, 금창리, 돈별마을, 부음, 늪동... 마을들을 피곤을 모르고 달음질쳐다니면서 고향땅사람들에게 필수품을 보장하는 복순의 사랑스러운 모습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꽃피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자랑스러운 상징이다. 그러기에 압록강연안을 따라 번영하고 통성하는 조국의 북변을 촬영한 기록영화에는 복순이와 이고장 사람들의 활기찬 행복한 생활이 펼쳐지고 해설원은 이렇게 말한다.

《어찌 이 늪동마을이 조국땅 먼 변방에 있는 외로운곳이라 하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사회주의조국의 빛발은 이 구석진 늪동마을에도 찬란히 비치고있습니다》라고...(단편소설 《해빛을 싣고》)

작가는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사회주의조국의 빛발이 찬란히 비치고있는 변방, 명복땅을 이곳 사람들과 함께 끝없이 사랑하고 자랑하고있는것이다.

작가의 숭고한 조국애와 잇닿은 향토에 대한 사랑의 사상감정은 명복땅의 미래를 확신한데서도 뚜렷이 표현되었다.

명복땅사람들의 생활에는 애뜻한 사랑이 있고 단란한 가정이 있다. 작가는 이 사랑 이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명복땅의 앞날을 보았고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았다.

명윤이와 채순이는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 서로 이해하고 사랑을 맺었으며 신로원의 딸 윤애는 전사한 아버지와 같이 포탄상자를 수송하는 전투에 참가했던 그때는 군인이었던 《나》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다. 복순이는 고향마을을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리자는 약속을 하고 뜨락뜨르운전수가 될 명규와 사랑을 맺는다. 책임은 전사령원 조인갑은 온 립산마을이 떠들썩하게 아들 쌍둥이를 보았고 박령감은 명복땅에서 혜성에 박에는 더 비길데 없이 어여쁘고 참하고 고상한 인품을 가진 녀교원 김국순을 머느리로 맞았다. 정녀가 장렬한최후를 마치면서 부탁하고 간 쌍가매는 그후 학원을 거쳐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고향마을의 믿음직한 주인으로 바로 그가 언니라

부르며 따르던 정녀가 다 못한 일을 량어깨에 짊어메고 나가고있다. 그는 결혼식을 한다. 정녀와 소꿉시절부터 같이 자라고 공부하면서 이해하였고 청춘시절에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던 《나》는 친구인 송동무와 함께 쌍가매의 결혼식에 참가했다. 나와 송동무는 독자들에게 말한다.

바로 이 한 자리에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했던 한 평범한 전사-정녀를 회상했고 쌍가매 세대들에게 조언을 주었다. 아직 조국의 남녘땅에 한길이와 같은 인간쓰레기가 있다는 것도 상기시켜주었다.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것도 계급적원썹들과는 대를 이어가면서 투쟁해야 한다는것을 똑똑히 말해주었다. 실로 사람은 참된 삶을 위해 오늘까지 쌓아올린 높은 탑 위에 앉아서 흐뭇하게 아래를 내려다볼수 있는것이 아닐가... 그리고 또 자신을 보다 높은곳에 세우고 투쟁할것이며 새 세대들에게 생활에 대하여, 투쟁에 대해서도 조언을 줄것이라. (단편소설 《준엄한 시절》)

오늘에 서서 지난날을 되돌아키쳐보며 앞날의 조국을 떠메고나갈, 미래의 명복땅의 주인으로 될 새 가정, 새 세대들을 얼마나 굳건히 세워놓았는가. 한 작가의 작품계렬에서 이렇듯 청춘들의 사랑, 새 가정의 탄생, 세대를 이어갈 후비들을 설정하고 형상한것을 과연 쉬운 일로, 단순한것으로 볼수 있다는 말인가. 생활을 사랑하고 창조하는 작가, 지난날에서 오늘이 이루어지고 오늘에서 래일의 싹이 터서 자란다는것, 시대앞에 지닌 계급의 임무를 투철하게 자각한 작가만이 그런 설정, 그러한 형상을 자신만만하게 창조해낼수 있는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을 다양한 인간관계속에서 흥미있게 생활과 성격의 논리에 맞게 밝은 양상으로 구성할줄 아는 능력있는 작가만이 창조할수 있는것이다.

명복땅 사람들과 그들의 창조적인 생활을 사랑할뿐아니라 작가는 또한 이고장의 자연을 더없이 사랑하고있다. 그에게 있어서 명복땅의 자연은 거칠고 사납고 엄혹한것만이 아니였다.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도 그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없는 작가에게는 그것이 아름답게 파악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작가는 명복땅의 자연에 매혹되어 그것을 황홀하게 묘사하는것을 잊지 않았다.

단편소설집 《명복땅》에서 《폭탄》을 내놓고 여섯편의 소설의 어느 갈피든 들추어보라. 그러면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풍경, 명복땅사람들의 생활과 떼어놓을수 없는 이곳 자연의 풍경이 아름다운 화폭으로 전개된다. 그 자연은 감상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이곳 사람들의 생활에 이바지하고 이곳 사람들의 성실한 노력에 의하여,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개조되고 다듬어져가는 풍

경으로 그려졌다.

여러편의 소설에 그려진 서두수의 봄풍경은 얼마나 매혹적인가. 동령(단편소설 《령북땅》)의 여름밤 풍경은 또한 어떤가. 남명윤이와 채순이가 애써 섞붙임한 밀이 자라 시험포전에는 새 품종의 밀이삭이 패었다. 산짐승의 침습을 막느라고 포전을 지키며 명운의 《두어-어-!》 하는 크고 웅글진 목소리가 검은 장막을 드리운 태고연한 고원의 밤, 귀기울이면 끈끈하고 쌀쌀한 누기에 젖어 밀밭속에 퍼져가는 메아리가 들리는듯하다. 그 메아리속에는 흥분한 채순이의 속삭임도 배어 흐르기에 동령의 여름밤은 그지없이 황홀하고 정겨웁다.

령북땅의 가을풍경도 좋다. 금창리에서 돈벌마을을 거쳐 늑동으로 상품을 싣고 압록강을 따라 흘러가는 배가 아홉사리 단풍든 절벽사이를 빠져나가는 풍경을 보라. (단편소설 《해빛을 싣고》) 그림과 같다고 하기에는 그 화폭이 주는 정서적 감명은 자못 크다.

작가는 얼마나 섬세한 감각으로 령북땅의 자연을 관찰하고 얼마나 뜨겁고 사랑넘치는 열정으로 이곳 자연을 그리었는가. 령북땅의 겨울은 사납고 엄혹하다. 그러나 그것은 이곳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가항력적인것은 아니라는것이 작가의 평가이고 그래서 그는 겨울의 풍경도 사랑하는것이다.

박천, 천상수역 사이에 눈사태가 나는 지경을 그렇게도 방불하게 그릴수 있는것은 작가의 예리하고 섬세한 관찰과 체험을 떠나서는 도저히 생각할수 없다. 박천, 천상수역사이에 눈부리가 모자라게 아찔하게 솟은 급경사의 높이는 8에미터, 이제 눈사태가 시작된다.

그 높은 산정의 한 나무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자 술방울 하나가 눈우에 떨어져서 대그르르 굴기시작하였다. 술방울이 자기 몸에 눈을 묻히며 굴러간다. 주먹만큼 커졌다. 이제 동이만큼 되었다. 바위에 부딪쳤다. 수십개의 주먹만한 눈덩이가 굴러내려가며 수십개의 동이만한것이 되었다. 《번들이마》 벼랑이 으시시 몸을 털기 시작했다.

급경사에 그토록 두텁게 쌓인 눈이 자꾸만 아래로 내려가려는 힘을 지니고있었던지라 이 작은 충격이 근원이 되어 엄청나게 넓은 경사면이 순식간에 우로부터 눈겹질을 벗기 시작했다.

산이 드렁드렁 울린다. 마치 저 산정에서 크나큰 저수지의 언제가 갑자기 무너져 몇억톤 되는 물이 성난듯 쏟아져내리는가? ... 뽀얀 눈구름을 일으키며 눈은 쏟아져내린다. 그리고 철길을 덮는다. 돌이 구들고 아름답드리나무가 와지끈와지끈 부러져 쏟아지는 눈속에 범벅이 돼버린다.

매우 짧은 순간에...이 일이 벌어지고 끝을 맺

는다. (단편소설 《사나운 겨울》)

세심한 관찰과 체험이 없이 이렇듯 방불한 묘사를 하기는 힘들것이다. 이미 우에서 말한바와 같이 작가는 이런 엄혹한 자연을 이겨가고 길들여가는 이곳 사람들의 창조적힘을 형상하였다.

조국애와 잇당은 향토에 대한 작가의 사랑은 작품들에서 쓴 일화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작가는 령북땅을 사랑하기에 이고장 사람들의 생활에 숨배인 일화들을 골라 적절하게 씌으로써 작품의 형상성을 돈구고 주체사상적내용을 정서적으로 채색하였다. 작가가 쓴 일화들은 어느것을 물론하고 령북땅사람들의 생활과 결부된것이고 이고장 사람들에게만 있는 고유한것들이다.

단편소설 《령북땅》에 쓴 일화만이라도 보자.

별방에 사는 어떤 사람이 령북의 사돈집에 왔다. 저녁상에 오른 귀밀떡을 저가락으로 집으려다가 그만 놓쳐버렸다. 찾지 못했다. 이튿날 집에 돌아간 그는 조끼주머니속에서 잃었던 귀밀떡을 찾아냈다. 상에서 떨어진 귀밀떡이 미끄러져내리면서 조끼주머니속에 뛰어들어갔던것이다. 령북땅사람들에게는 귀한 나그네나 와야 대접하는 음식이 고작 귀밀떡이었던것이다. 귀밀떡이 함북과 함남의 경계인 추가령을 넘었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생겼다는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 령북땅 새서방이 별방에서 시집은 색시와 같이 처가에 나들이를 갔다. 어느날 색시가 우물가에서 무우를 씻고있었다. 거기를 지나던 새서방은 색시가 씻고있는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씨허연것이 하도 먹음직스러워 하나 달라고 눈짓하며 손을 내밀었다. 부끄럼 타는 색시는 남이 불가봐 눈을 할기며 《어구우-저 좇싸리(저꼬락서니)를...》 하고는 무우 한개를 제껴 집어주었다. 마을에 돌아온 새서방은 식구들과 동네사람들에게 가시집에 가서 《좇싸리》를 맛있게 먹고왔다고 자랑삼아 말하였다. 그때부터 그에게는 《좇싸리》라는 별명이 붙었다는것이다.

웃을수만 없는 눈물겨운 이야기들이다.

작가가 쓴 많은 일화들은 모두가 피눈물나는 과거, 령북땅사람들의 생활을 반영하고있으며 그것이 오늘의 행복한 생활과 대조를 이룸으로써 작품의 주체사상적내용을 보다 부각하고 형상의 정서성을 한층 돈구는데 이바지하였다. 여기에 일화의 형상적의의가 있다. 령북땅사람들에게 귀한 음식이라야 귀밀떡이었다. 무우조차 심을수 없었던 풍토에 새 품종의 밀이 생기고 벼를 심게 되었으며 《좇싸리》뿐아니라 배추, 신선한 오이가 나는고장으로 령북땅은 전변되었다. 산모가 먹을 미역 한줌을 구하려고 백리길도 걸어다녀야 했던 이고장에 프락트트와 자동차가 달리는 현실이 펼쳐졌다.

쓰라린 과거생활과 영영 결별하고 새 생활 창조에 펼쳐나선 령북땅사람들의 창조적투쟁을 밝

고 약동하는 양상으로 형상한것도 역시 작가의 향토애와 결부하여서만 이해할수 있을것이다. 지난날의 시련에 찬 고달픈 생활을 그토록 뼈에 사무치게 겪어보았기에 주인공들은 오늘의 행복과 삶의 참다운 보람을 뜨겁게 느끼면서 창조적로동과 성실한 노력으로써 향토를 변모시켜나가고있다. 천리마시대현실을 반영한 네편의 소설들에서 우리는 그것을 엿볼수 있다. 주인공들은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향토를 행복의 보금자리로 더 훌륭하게 꾸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 빛내이기 위하여 모두가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적, 공산주의적 기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그들은 언제나 자랑에 넘쳐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고 있으며 보다 운석한 생활을 창조하는 투쟁속에서 성장하며 전진하고있다. 그래서 행복땅이 좋아 이곳에 남은 사람은 있어도 이고장을 떠나겠다는 주인공은 없는것이 아니겠는가. 참으로 단편소설집 《행복땅》을 낸 작가는 가슴속에 활활 불타오르는 조국애와 그에 잇닿은 향토애를 지닌 창작적개성이 있는 작가이고 그가 쓴 작품들은 독창성이 있는 향토문학이라고 이름붙일만하다.

희망의 년대, 투쟁의 년대인 1990년대를 맞이한 우리 문학에 있어서 단편소설 《행복땅》에 실린 작품들의 사상에술적가치는 의연히 크다. 우

리 작가들은 조국땅위에 사회주의락원을 건설하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격동하는 력사의 흐름에 주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릴 자신만만한 투지와 신심을 가지고 《90년대속도》를 창조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창조적적극성과 영웅주의를 깊이있게 형상한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더 잘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행복땅》의 주인공들이 지닌 시대에 대한 높은 계급적자각, 세대앞에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 데서 발휘한 고상한 사상정신세계의 핵은 오늘 우리 문학이 그러야 할 주인공들에게서도 그대로 살아있어야 한다.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훌륭한 래일을 마련하려고 분발하여 일 잘하는 주인공들을 높은 사상에술적경지에서 형상하여야 한다.

력사는 전진하고 시대는 변하였지만 우리 문학이 《행복땅》의 주인공들이 지닌것과 같은 성격을 오늘의 시대의 높이에서 적극 창조하는것은 여전히 중요한 형상과제로 제기된다.

5 월봄명절

백의선

5월이라 앞내가애
실버들이 치렁치렁
봄명절이라 뒤산 그네터애
부드러운 봄잔디 푸르렀네

앞동네 뒤동네 정든 이웃들
그네 썩썩 띄워보자
하늘 훨훨 날아보자
봄날도 좋은 날 우리 슬기 겨뤄보자

오른줄에 칭칭 노래를 늘어놓고
왼손줄에 칭칭 기쁨을 늘어였네
한번 구르니
우리 사는 씨리카트 새집들이 안겨오고
다시 한번 구르니
땀흘려 가꾼 푸른 들이 키를 솟구네

펼 펼 날리는 다홍치마 따라서
앞마을 기쁨이 다 오르고
구름차며 오르는 선녀옷을 따라서
우리 마을 마음이 다 오르는가

하늘의 은방울이 맑게 울리니

북소리, 웃음속에 하늘땅이 묻히겠네
등근 쑥떡 손에 든채
동네방네 아이들 다 달려오고
저기 씨름터의 누런 송아지도
제 좋아 꺾충 뛰노라네

아 일을 사랑하고 생활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굽이쳐흐르고
보람찬 그 삶이 한껏 설레이는
즐거워라, 5월봄명절

그네 썩썩 띄워보자
하늘 훨훨 날아보자
우리 기쁨 펼칠 하늘땅이 비좁으랴
하늘땅이 아무리 가없는들
우리 가슴속 기쁨이 모자라랴

땅에서 바라보고
하늘 날아 바라봐도
해와 별이 찬란히 솟아 빛나는
내 향촌이 제일일세
내 조국이 제일일세

어머니 오시다

주유훈

마가울의 한낮이었다.

이름있는 연주가이며 작곡가인 황설규는 비행장으로 달리는 승용차에 앉아있었다.

황금빛일사귀들을 펼쳐입고 시원하게 트인 도로의 양쪽으로 줄지어 달려오는 은행나무들이 정오의 가을볕을 받아 환하게 타오르는데 그 밝은 빛을 반사하여 드넓은 논밭의 누런 벼이삭들도 더 선명한 황금빛으로 설레이는듯싶었다.

자연의 이 희한하고도 놀라운 광경에 무관한 황설규는 지금 심중에 설레는 흥분의 파도를 감당하기 어려운듯 지그시 눈을 감고있었다.

(어머니!...)

근 40년동안 마음속에 간직된 부름이 문득 압박으로 흘러나왔다. 그자신이 다 큰 두 자식의 아버지로 되고 어찌하면 할아버지로도 될수 있는 그런 나이에 이르러서도 녀의 보물처럼 마음속에 간직했던 부름이었다.

승용차에는 운전사 말고 뒤좌석에 그 혼자뿐이었다. 기상수문연구사인 안해는 레성강 상류지대의 물연구로 출장나갔다가 오늘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 구태여 알릴 필요가 없었다. 새로운 논문집필을 위한 현지답사로 백두산탐험대에 간 지리학자인 장인한데도 전화를 걸었더니 급히 오겠노라는 것이었다.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3대혁명소조에 나간아들과 예술단 기악중주단에서 첫 배우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지방순회공연에 나간 딸한데도 그들이 난생처음 보게 되는 할머니가 오후 2시에 도착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어머니와 아들한테 똑같이 너무나도 가슴 벅찬 이 상봉, 이 감격의 폭발을 고통에 심장을 앓는다는 어머니가 과연 견디어낼수 있을지, 손자, 손녀, 며느리, 사돈까지 단꺼번에 비행장에서 만나면 충격이 더 할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여 차라리 제혼자 나가는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머니와의 상봉을 처음만은 자기가 독차지하고싶은 천진한 아이의 욕심과도 같은 심리에 스스로 어처구니 없기도 했다.

그리고 생사를 알길 없던 어머니를 만나게 되다니... 꿈이 아닌가싶어 와플 놀라며 정말 꿈이 아니기를 바라는 공연한 마음도 모두 눈곱이 뜨겨워지는것으로만 되었다. 최근 10년간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프랑스와 북유럽나라들에 공연을 다니면서 여러 교포들을 만나게 되는 때가 있어 부모님과 누이동생(살아있다면 이제 선 고개를 바라보련만 여전히 8살 소년로만 보이는 혜경이)의 소식을 알려고 두루 수소문했으나 허사였었다.

몇년전 고향방문단으로 서울에 나갔으나 남측 적십자사는 가족을 찾을수 없다고 하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사흘밤을 자지 못하며 서울에서 몸부림치던 일... 어머니와 아버지, 누이동생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철통한 생각에 가슴이 무너지는것만 같았었다.

그런데 이렇게 뜻밖에 어머니가 제3국에서 오실줄이야...

승용차는 살같이 달리는데 그 고르로운 진동은 몸을 맡기며 황설규는 여전히 눈을 감고 앓은채 어머니의 영상을 눈앞에 그려본다. 몇달전에 받은 사진에서 본 늙고 낡설은 녀인의 얼굴이 아니라 리별의 그해, 그 시각부터 가슴에 간직해온 30대 젊은 모습 그대로의 영상! ... 여전히 젊어보이나 어쩔수 없이 세월과 함께 희미해지던 얼굴이 불시에 명확히 눈앞에 다가오며 미소를 짓는 것이었다.

황설규의 손은 바이올린의 현줄을 짚어가듯 넥타이 중간쯤을 더듬어본다. 거기엔 이미 수없이 읽어봐서 거의 외우다싶이한 어머니의 편지가 있었다. 그 편지구절들속에서 생생히 울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

설규야. 아직도 나한테는 네가 16살나이때로만 생각되는구나. 너를 품에 안고 키워온 열여섯해, 고생스러워도 그 열여섯해만은 나에게도 생이 있었으나 너와 헤어진 다음 오늘까지는 오직 어둠속에서 허둥지둥 헤매이고 다닌듯 내가 없는 세상은 아무런 즐거운 기억도 남지 않은 암흑의 공간, 암흑의 시간이었다...

네가 썸이 들었다고 내가 대견해서 남몰래 눈물을 찍어내던 때는 해방되는 해, 네 열한살 잡히던 이른봄이었지...

(그래... 그때 학교에서는... 수학려행이라는걸 떠났지.) 설규는 아득히 흘러간 그날을 더듬기 시작했다...

새벽에 교외열차를 타고 도심지대를 벗어나 산중의 절간을 보고오는것이 고작해서 그날의 《수학려행》이었다. 일본아이들과 부자집아이들이 금강산구경을 떠날 때도 보내지 못했는데 점심밥 한끼와 차값만 마련해주면 되는 《수학려행》인데야, 하면서 어머니는 빛다른 반찬까지 마련해주느라고 애를 썼었다.

그때 어머니는 지내 움하다나니 너무 일찍 깨서 아침밥을 지어놓았다. 조금이라도 더 아들을 재우려고 가마에 밥그릇을 다시 들어놓고 자리에 누워자지 않고 시간을 기다리었다. 잠이 깨어

궁짓거리리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말했다.

《마음놓고 좀더 자거라. 내 깨우지 않으리.》

자기때문에 더 쉬지도 못한다는것을 알게 된 아들은 일어나 옷을 입으면서 차라리 역에 나가 기다리는게 낫다고 말했다. 야유회나 등산에 떠날 때 흥분해서 잠도 제대로 못자는 어린애마음 때문만은 아니란걸 어머니도 알고있었다.

설규는 제가 빨리 집을 나서야 어머니가 다문 얼마라도 더 자리에 편히 누워 잠들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른봄의 스산한 역에 나가 떠날 시간까지 오래동안 떨것을 알면서도 밤중이나 다름없는 때에 집을 나선것이였다. 어머니는 그것을 기억하고있었다 ! ...

앞시장으로 마주 달려오는 길을 내다보느라니 거무스레한 아스팔트길의 고속도흐름이 곧장 가슴으로 안겨오며 련이어 추억이 밀려들었다.

...일찌기 고향인 함흥을 떠나 청운의 뜻을 품고 고향으로 전문학교까지 나와 시를 써보려고 《백, 조파》 동인지에도 관계했다가 룡정ियो 상해요 방랑생활끝에 49년무렵에 백별 김구계렬의 출판사에서 잡지편집인으로 일한적 있는 아버지는 황설규가 바이올린을 배우러 다니자 아들을 질책했다.

《이 애비도 시조박을 써보느라구 하다가 망했는데 네가 바이올린이나 붙잡구 앉아 어찌자는거냐. 아서라, 일찌감치.》

그러나 이미 음악에 났이 팔린 설규는 바이올린을 놓을수 없었다. 고서적수매상으로 집안살림을 보내나가던 어머니는 아들의 간절한 소원을 보다못해 푼푼이 모은 돈과 시집을 때 가지고 온 친정어머니의 유물인 은가락지까지 판 돈으로 바이올린을 사주었다. 설규는 기뻐다. 온 세상을 준대도 그 바이올린과는 바꾸고싶지 않았다.

바이올린통을 마루에 내던지던 아버지도 입이 쓰거운듯 외면하고 말았다.

한번은 학교에 갔다오니 누이동생 혜경이 바이올린을 꺼내 장난삼아 쳐보고있었다. 화가 동한 설규는 대뜸 누이동생의 귀밑을 한대 쥐어박았다.

그때 웅크리고 앉아 쿵쾅쿵쾅 울던 그 모습이 오늘까지도 눈앞에 남아있다.

그뒤부터 아예 장난질을 못하게 바이올린의 활조이개를 뽑아서 따로 감추어놓곤했었다. 은빛이 나는 활조이개는 새끼손가락지장만한 나사못 같은것이였다. 그런 바이올린을 50년여름에 집에 두고 떠나왔다...

어머니의 편지구절이 다시금 설규의 귀전을 울리였다.

...설규야, 아버지도 혜경이도 다 잃으면서 나는 일생을 너만 바라보고 살아왔다. ...아들아, 보고싶다. 어서 빨리 너의 아버지, 너의 동생의 소원을 모두 함께 담아서 나는 보고싶다. 아들아,

나의 아들아 ! ...

급히 밟은 승용차에서 내린 황설규는 항공역사 안으로 들어갔다가 비행장구내로 나왔다. 코트주머니에 두손을 지른채 서성거리며 황설규는 마가울의 두른 하늘을 자꾸 쳐다보았다.

비행기의 도착을 알리는 안내원의 목소리가 울리자 그는 굳어진듯 멈춰서고 말았다. 비행기의 발동소리... 착륙시간은 너무도 긴것 같았다. 드디어 비행기에서 내리는 사람들... 초조와 흥분에 싸여 황설규는 정신없이 그쪽만 바라보며 서있었다.

젊은이들, 늙은이들, 외국인들... 그들은 모두 마중나온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거나 포옹을 하고있었다. 그러나 어머니같이 보이는 녀인은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안내원의 부축을 받으며 비행기승강대에서 내려서는 한 로파의 모습이 보였으나 그 로파가 어머니는 아니였다. 설규는 안타까운 눈길을 사람들쪽으로 옮겨갔다 다시 그 로파를 보았다. 40년세월이 흘렀으니 어머니도 저렇게 늙으실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황설규의 머리에 떠올랐다. 아니, 그럴수 없어.

아무리 세월이 간들 어머니가 저렇게 늙으실수 없어...

하지만 저도 모르게 한결음한결음 그리로 걸어 가게 되던 황설규는 낫설은 로파를 향해 몇걸음 못미쳐 멈춰서고 말았다.

그런데 여전히 안내원의 부축을 받으며 서있던 그 로파가 불현듯 두팔을 허우적이며 부르짖는 것이였다.

《그게 설규가 아니냐!》

황설규는 그 갈린듯한 음성을 듣는 순간, 하늘과 땅이 통채로 흔들리는것만 같아 다리를 옮길수 없고 입을 열수가 없었다. 40년의 풍상에 키도 작아지고 모습도 변했으나 그 정다운 목소리를 어찌있을수 있으랴.

황설규는 어머니한테로 와락 달려나가 허리를 굽히며 걱정을 터뜨리듯 부르짖었다.

《어머니! 접니다. 설규... 제가 설규입니다.》

체소한 로인은 여전히 두팔을 허우적이었다. 설규가 어머니를 끌어안자 어머니는 아들의 가슴팍에 어린애처럼 백발의 머리를 묻고 몸부림을 치며 흐느낀다.

황설규는 어머니의 앙상한 어깨를 어루만지며 더욱 짝 끌어안았다. 어머니는 머리를 제치고 팔을 들더니 메마르고 떨리는 손가락들을 벌려 눈물이 흐르는 아들의 볼을 더듬는다. 아들은 어머니의 애무에 몸을 맡기듯 잠시 눈을 감고 움직일 줄모른다...

어머니를 한팔로 싸안고 황설규는 어떻게 비행장구내를 나왔는지, 어떻게 승용차에 탔는지 스스로도 의식해낼수가 없었다. 승용차의 뒤좌석에

같이 앉은 설규의 눈앞에는 오직 어머니의 얼굴만 있었고 그의 두손은 어머니의 두손만 붙잡고 놓을줄 몰랐다. 첫 순간에는 말을 할수가 없었다.

잔주름살이 덮인 눈언저리와 눈물에 젖은 눈만이 보이는 어머니의 얼굴... 비행터정에서 건강이 어떠냐 하는 가장 간단하고도 선차적인 질문조차 무의미한것으로만 느껴졌다.

어머니가 먼저 눈물을 거두며 진정하고 나서 떨리는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설규야, 이렇게... 내 혼자 왔구나.》

《어머니!...》

설규는 너무도 오랜만에 불러보는 이 부름에 목이 껍 막혀왔다.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 왜 못오셨습니까? 혜경이, 혜경이는? ...》

《차차 얘기하자. 너를 만나니... 이 가슴에서 동이 터지는것 같구나.》

그러다가 아들에게로 다시 얼굴을 돌리며 쏟아지는 회포를 누를길 없는지 어머니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아버진 네가 경연에서 1등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두 기뻐하셨는데...용타. 그래두 생전에 아버지한테 기쁨을 드렸으니말이다.》

《어머니, 그건 제가 용해서 그렇게 아닙니다. 우리 수령님 은덕이구 당에서 보살펴준 덕택입니다. 사실 저같이 의지가 없는 몸이 대학공부까지 하구 적은 재능까지 꽃피우게 된 이 은혜를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설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어머니의 눈가엔 눈물이 그렁하니 고이였다.

운전사는 차를 고속으로 몰지 않았다. 아마도 모자간의 만남과 그들의 정회를 흐트릴가봐 저어하는상심였다.

...설규야. 네가 살아있는걸 처음으루 알게 된 건 1956년도 여름이다. 난 그때 밤이면 푼전모아 장만한 《트랜지스타》로 이불속에서 평양방송을 듣는게 어김없는 일과였었다. 평양방송 아나운사의 말은 그대로 너의 목소리처럼 생각되더라. 하루는 방금 《단추》를 눌렀는데 그때 과연 거기서 무슨말이 튀어나왔겠니.

《방금 전국기악독주경연에서 1등을 한 황설규의 바이올린독주를 보내드렸습니다.》

나는 그만 눈앞이 아찔해서 이불을 활 열어제끼고 《트랜지스타》가 내던져지는줄도 모르며 《내 아들이 살았다!》 하고 웨쳤구 그바람에 아버지도 혜경이도 놀라서 달려왔지. 난 반실신상태에 빠져 머리속이 빙빙 돌고 《설규가...설규가 살아어.》 하고 더 이상 입이 열리지질 않았어. 온밤 식구들은 꼬박 한잠도 자지 못했지. 그날부터 나의 모든 녀은 더욱 세차게 북으로 쏠렸고 아들을 만나려는 필생의 목적에 희망과 서광이 비치는 것 같았어. 너를 보고 죽는다면 죽음도 불사할

결심이였다.

한데 우리가 사는 상도동마을에 네가 북에 가서 《공산주의 음악가》가 되어 음악콩쿨에서 1등을 했다는 소문이 짹 돌았지. 우리 식구들이 이 말을 내지 않은것은 더 말할것도 없으니 다른 사람들도 그 방송을 들은것이 분명했어. 그러다가 경찰이 불의에 우리 집을 가택수색을 하여 《트랜지스타》를 찾아내었다. 아버지는 경찰에 끌려가서 북의 방송을 듣는다고 문초를 당하고 매를 맞았어. 후에도 북의 방송에서 흘러나온 말이 항간에 돌면 아버지부터 호출해가곤했다.

아버지는 시름시름 앓다가 중병이 들었다.

너를 못보고 죽는것이 한이라면서 림종때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여보, 옛 시구에<호미도 날이언만 낮같이 들리 없고...>라구 하였소. 아버지도 어버이지만 어머니보다 못하다는 소리요. 아들을 만나겠다는 내마음이 당신보다 못하기에 이렇게 일찍 가는거지. 그러니 당신은... 당신의 결심은 끝날갈으니...》

4.19 직후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하는 프랑카드를 들고 혜경이네들이 데모를 벌릴 때 나는 치마폭에 돌을 싸안아 그들한테 갖다주며 당장에 너를 만나게 될줄로 알았다. 허나 그건 이루어지지 못했지. 너를 만나려는 희망은 물거품이 된것만 같아 바람직하지도 못하다는 절망에 싸여 몸부림을 쳤단다...

《어머니!...》

황설규는 이렇게 부르짖었다...하지만 그는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는 어머니를 더이상 충분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얘기는 집에 가서... 있다가... 있다가...》 그러면서도 여전히 황설규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가슴이 끓어올랐다.

(아버진 그렇게... 한데 난 아버지의 림종두 모르구 그 시절에 뭘했던가. 음악대학생으로서 바이올린연주에서 1등의 영예를 얻고 영광의 절정에 서있었지... 그런 순간이면 부모님과 혜경이를 더 생각했지만서두...)

차는 벌써 시내의 중심도로에 들어서고있었다.

저녁이였다.

고층아파트의 널다란 방들, 늘 텅 비다싶이하던 이 방들이 지금은 흥분과 감격때문인지 갑자기 몹시도 비좁아진것만 같이 느껴졌다. 상봉의 첫순간들은 지나갔으나 뜨겁게 달아오른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눈물에 젖어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제곁에만 붙들어놓으려 했으며 숙성하게 다 큰 손녀는 어린애처럼 할머니의 팔을 잡은채 이방저방 같이 다니면서 한사코 떨어지려하지 않았다. 주방에서 돌아치던 안해는 아직 눈시울이 벌건채 이따금 진실과 방들을 내다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곤하였다.

무아몽중에 헤매이는듯한 설규는 저녁식사가 어떻게 끝났는지 제가 무얼 먹고 마시었던지도 몰랐다. 다만 어머니가 조국의 향취가 그리웠다고 하며 부루와 썩갠 것을 많이 드는것을 보면서 옛날식성을 잃을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감실했을뿐이다. 가장 평범하고 너무도 당연한 이 가정적인 단란함... 불빛 밝은 방안에 식구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앉아있는 이것이 비상한 행운처럼 여겨져 믿어지지 않았다.

한편 설규는 감격만이 차있는듯한 방안의 공기 그리고 즐거운 말소리와 미소어린 얼굴들. 그어디에나 어쩔수 없이 눈물이 습배여있음을 느꼈다. (아버지도 동생도 끝내 못만나고 말았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앉아있었다.

《이젠 50이 넘었으니 새애기라구 부를수도 없구... 그동안 사둔님들이 친부모를 대신해서 보살펴주시느라구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나...》

《어머님... 하루면 가고 올수 있는 길을 40년만에, 그것두 지구를 한바퀴 돌아 수륙만리를 걸어서 오나 다름없는 어머님의 그 고생에 비하면 무엇이 수고겠습니까.》

안해의 눈가에서는 또다시 불빛에 이슬이 번뜩이더니 안해는 그만 고개를 숙이고 만다.

설규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이에 외할아버진 지리학자가 돼서 집에 계시때가 적습니다. 이번두 백두산에 가시는데 어머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받구 래일쯤 아마...》

《아니, 칠십로인이 그런 높은 산지대를 다니시게하다니... 탈이라두 만나면 어쩔려구. 곁에서 말려야지.》

아들며느리를 가버이 나무람하는 어조였다.

《아버님은 아직 기운이 넘친다구 하시면서 어디 우리네 말을 들어주셔야지요. 이번에도 늙은 몸이지만 가만 앉아있게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백두산엘 떠나셨지요.》

며느리의 말이다.

설규가 곁들어 설명하지 않을수 없었다.

《작년에 어떤 나라 잡지에 제주도 한나산 화산대를 일본렬도와 련결시켜보려는 해괴한 글이 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이 <한나라 한강토인데 남북이 분렬되었다구 다른 나라 사람들이 숙보구 드는것 같아 어디 참을수가 있나>하면서 화산대연구를 위한 현지답사를 떠났지요.》

어머니는 저으기 놀라와하였다.

《한데 그제 무슨 말이니? 한나산화산대를 일본렬도와 결부시키다니.》

그러나 설규는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론박할 자료들은 풍부하다구 합니다.》

설규는 자기도 분개했던 그 문제를 말하게 되었다. 남조선의 량심있는 학자들도 움직였지만 북의학자들이 가만 있을수 없다는것, 장인이 일

찌기 백두산화산대는 물론 우리 나라 중부의 신계평원화산대를 연구한 글도 썼다는것, 백두산, 신계평원, 한나산 화산대를 한지맥으로 련결시키는 확고한 자료들이 있다는것을...

그러다가 설규는 한탄하듯 서운하게 말했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자료들두 많은데, 글씨 제나라땅인 한나산을 현지답사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기말이다!》

어머니는 울분에 차 부르짖듯이 말했다. 40년 세월 가슴속에 개피던 고뇌에 찬 통탄이 이 한마디에서도 분출하는것만 같았다.

체소하고 내성적이던 어머니는 더욱 작아지고 형편없이 뽀짝 늙어버려서 만나는 순간부터 아들의 마음이 아프게 허비여졌는데 어째선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에는 어머니가 예전날의 그 답답하고 꾀꾀하던 모습처럼 보이는것이였다. 생활의 세파속에서 얼어붙었을망정 그 내심깊이에 대쪽처럼 강직한 성정이 살아있음을 보는듯하여 설규는 눈물겨웁도록 기쁘고 다행한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는 곁에 앉은 손녀의 머리에 손을 얹어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엔 신통히두 제 고모를 닮았구나. 눈매두 그렇구, 앓음새두 그렇구, 제 피줄이 같데 없...지 한데 이름두 제 고모이름을 달았으니...》

《어머니... 혜경이를 보구싶구...그 엘 잊을수 없어서...》

《잘했다.》

하고 어머니는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다.

《그러니 그 애두 여기 와 살아있는것 같구...》

이리하여 어머니는 주름살이 모여드는 눈시울을 쪼프리며 지나온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혜경이는 그때 학교에두 더 갈수 없었지. 우리 모녀는 고서적수매상에 파철장사까지 겸하면서 근근히 살아갔는데 아무리 남조선땅에 있어봐야 너를 만날 날은 더 멀어만져가는듯했다.

한데 혜경의 나이는 벌써 20살을 넘어섰다. 고작고 고랑이 패인 초가지붕우에도 노란 호박꽃이 피어나듯 가난속에서도 꽃은 피여 혜경은 놀랄만치 곱게 번졌지. 너대중퇴생이라 돈많은 집 자식들도 람을 냈어. 중산층청년들은 물론이고...

그무렵, 해외에 사는 네 아버지 친구인 홍씨분이 왔었는데 그는 자기들이 사는곳에도 교포청년들이 있으니 거기서 혜경이를 결혼시키면 두루두루 의지해서 살아나갈수 있지 않겠느냐는것이였어. 그때는 들을만해 있었는데 홍씨분이 떠날 립박에야 나의 머리속에는 문득 제3국에 나가 살면 그게 믿음직한 연줄이 되여 너를 만날 길이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말이다.

혜경이가 해외에 있는 청년과 결혼하면? 하지만 딸의 미모를 재산으로 섬기며 그것으로 딸의 운명을 휘저어놓게 되는것 같아 나는 저혼자 머

리를 흔들었어.

난 그런 공리를 잊어버리려고 했으나 생각은 어찌는수 없이 그리로 돌아가더구나.

만일 딸한테 마음에 둔 청년이 없다면? 해외에 좋은 대상자가 있다면?

한데 이 단순한 생각이 결국 그 애를 잃어버리는것으로 될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

하지만 난 그때 그런 생각을 막을수가 없었어……어머니의 말을 듣고있는 황설규의 눈앞에는 모녀간에 벌어진 일이 너무도 방불히 그려졌다.

…밖에서 눈보라가 치는데 갑자기 정전까지 되어 집안이 캄캄해졌다.

어머니는 혜경에게 말했다.

《애야, 불을 켜선 뭘하겠니. 기름두 없는데…먹은 그릇 부시는건 이따가 하렴.》

그러면서 딸의 손을 구들아래목으로 끌어 곁에 앉히었다. 가뜰이나 좁은 집안이 캄캄나라로 되 고보니 움속같이 숨막히며 압박감만 생겼다.

어머니는 며칠째 줌거리던 말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 캄캄해서 서로 얼굴표정을 알아볼수 없는 이런 순간에 불시에 말할 용기가 생긴것이였다.

《애, 혜경아…》

《엄마, 뭐예요?》

《나는 말이다. 우리가 이제…》

딸이 재촉해서야 어머니는 말을 잇대었다.

《애야, 내 한가지 묻자, 너한테 봐둔 총각이 있냐?》

《없어요. 어머니…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요?》

어둠속에서 딸의 가쁜한 흰 이발들이 어슴푸레 보여서인지 딸이 미소를 짓고있다고 생각되였다.

《애야, 우린 아무래두 이 남조선땅을 떠야겠다. 여기서 살기두 어렵구… 유럽이건 남아메리카건 3국에 가 사느라면 차라리 거기서 네 오빠를 만날 길두 빨라질것 같구나.》

《어머니, 식구가 흩어진 가족이 어디 우리뿐이예요? 다 떠나가면… 통일 위해 싸울 사람은 누가 남겠어요?… 남북삼천리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원을 두고 말예요.》

그러다가 딸은 생각난듯

《한데 3국으로 가는것과 총각이요 애인이요 하는건 무슨 상관인지 도무지…》

하고 의문스레 머리를 긁거리는것이였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찾아쥐고 주저주저 말을 꺼냈다.

《애야, 아버지 친구되는 그 홍씨분 있지 않니. 거기에 똑똑한 청년이 있다는구나… 어때, 한번 사진이라두 주고받을 생각이 없냐?》

딸은 고개를 숙인채 듣고만 앉았을뿐이다.

어머니는 딸을 너무나 갑자기 딱한 립장에 몰아넣은듯싶어 배정한 처사를 뉘우치듯 우선우선한 어조로 말했다.

《그저 한번 생각해보라는거지… 마음에 둔 사람이 있으문 내 한번 보자꾸나.》

《그런 사람이 없어요.》

딸은 조용히 대답했다.

허나 어머니는 바로 그 이튿날, 자기가 얼마나 딸의 심정을 괴롭히였는가를 깨닫게 되였다. 책을 사러 온 딸의 동창생을 조용히 만나 물었더니 혜경이한테는 애인이 있는것 같다는것, 깊은 사이는 아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회사에 입직한 청년이 혜경을 따른다는것이였다.

먼지도 없는, 그저 구멍가게처럼 지게문을 안으로 당겨서 열여놓곤하는 고서적점포앞에 앉아 지나가는 행인들을 멍하니 바라보던 어머니는 움쪽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지게문으로 해서 허리를 굽히며 집안에 들어섰다.

딸은 웬일인지 낯은 책가위에 불질을 하던 일감을 구들에 퍼놓은채로 뒤돌아앉아 장농을 헤쳐놓고는 움직일줄을 몰랐다.

혜경은 어머니가 들어온줄도 모르고 오빠가 남기고 간 그 바이올린통을 내놓고 그것을 어루쓸어만지며 하염없이 앉아있었다. 집안의 가보처럼 장농의 밑바닥에 소중히 전사하는 바이올린통이였다.

어머니를 돌아보는 딸의 눈에는 이슬이 맺혀있었다.

어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면서 딸앞에 허물어지듯이 주저앉았다.

《혜경아, 이 예뵈 용서해라. 내가 널 괜히 마음을 괴롭히구… 》

그러자 혜경은 도리머리를 하며 《아네요. 아네요.》하고 연신 뇌이고 눈물이 가랑가랑해서 말했다.

《아네요. 어머니, 날 용서해줘요. 한순간이라두 주저했던 저를… 오빠를 만나는게 그게 어디 어머니만 바라는 소원인가요? 제 앞날두 사람두 오빠를 만나는 길에 있어야 해요. 난… 난… 모든걸 각오했어요.》

어머니는 딸을 와락 그리안았다.

《애야! 제발 그만뒀라.》

《어머니! … 》

모녀는 부둥켜안고 앉아 불을 맞비비며 서로의 얼굴에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통곡을 하며 이렇게 부르짖었다.

《하늘두 무심하다… 기차로 몇시간이면 가닿을 곳에… 아들을 두고… 글썄 그 애를 만나자구 너두 그런 결심을…》

…설규야, 그곳 3국에서의 생활도 근 20년이 흘러가더구나. 그동안 무슨 일인들 없었겠니?…

그때는 네 매부가 일하는 《아시아뉴스》잡지가

경영난으로 겨우 지탱해갔다.

게다가 혜경은 둘째녀석을 낳은 뒤로는 산후병이라면서 자주 앓아 눕곤하였다. 북의 소식을 알게 되면서부터 《아시아뉴스》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으나 네 동생의 병세는 나아지질 않고 더치여만갔다. 약보다도 그저 한증탕에나 가면 되는 것처럼말하곤했지.

난 얼마나 청맹과니였겠니. 딸이 숨기는 진짜 병을 몰랐으니 말이다. 그 애가 아예 몸져눕게 된다음에야, 더는 어쩔수 없이 집이 기운 다음에야 나는 그 애의 병이 산후탈이 아니라 수토병이란걸 알게 되었다. 금수강산 내 나라를 떠난것이 죄가 아니냐! 이역만리에서 흔히 만나는 수토병이 심하면 이렇게 된다는걸 난 모르고있었어. 어려서부터 그 애가 물도, 음식도 가리는것이 많고 좀 웬만한걸 먹어도 몸에 두드러기가 돋고 약도 부작용이 많은 《알레르기성체질》, 특이체질이라는것을 왜 모른단말이냐! 다른 사람은 모를수 있지만 이에미야 글썄... 그러니 내가 무슨 어머니란말이냐...범과 같은 미물도 제 새끼의 탈을 이렇게 모르진 않을거란 말이다. 다름아닌 내가 물종은 고향을 떠나 해외로 나오자고 했으니까 혜경이는 제 병때문에 내가 너를 만나는 길에서 조금이라도 물러설가봐 그랬던거다. 이 어미가 딸을 살리자고 굶어도 고향 가서 굶자고 하며 부랴부랴 이사집을 쌀가봐 나를 여직껏 속였던것이다.

마지막순간에 혜경은 간신히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저 애들두 인젠 클만큼 컸으니 어머니의 손을 바라지 않아도 될거구... 그리구 애들 아버지두 말하지 않았어요?... 북의 <해외동포원호위원회>에서 손길이 예까지 닿아 인젠 오라버니를 만날수 있는 길이 트일수 있다구... 어머니만 오빠를 만나면 난 유한이 없어요... 아, 보고 싶은 오빠! ...》

이렇게 그 애는 마지막에도 너를 부르며 갔어. 내 심정은 과연 그때 어땠겠니. 차라리 일찌기 너를 만날 결심을 완강히 품지 않았더라면 너의 아버지도, 누이동생도 잃지 않을수도 있었을것을... 하는 생각까지 들었겠다.

하여 나는 이 세상천지에 홀로 남게 되었구나. 딸 죽은 사위란 불꺼진 화로라고 하지만 너의 매부는 그렇지 않았어.

그 사람은 후취도 하지 않구 나를 장모가 아니라 친어머니처럼 의지하니 나두 힘이 생기구...

그는 내가 너를 만나는 길을 열어주려고 힘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조국통일을 위해 《아시아뉴스》지에 직접 글도 써냈고 너의 소식을 수소문하던 끝에 여기 《해외동포원호위원회》의 손길을 붙잡게 되었다. ...

마침내 우리는 네가 살아있을뿐아니라 공화국의 유명한 연주가, 작곡가로 활동하고있음을 알

게되었지...

그렇게 되어 아버지도, 혜경이도 못하고 결국 나만 이렇게 와서 너희들을 만나는가...

황실규는 눈을 감았다. 《오빠를 만나면 난 유한이 없어요... 유한이 없어요...보고싶은 오빠. 오빠...》 8살소녀의 목소리가 되어 누이동생의 말이 그냥 귀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안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있었다. 혜경은 할머니의 주름진 이마의 땀발을 손수건으로 살그니 훔쳐주고나서 어디서 듣고 보았는지 할머니가 등이 발라할가봐 어깨와 잔등을 두주먹으로 살작살작 두드려 안마를 해주는것이였다.

어머니는 숨을 가라앉히고나서 약간 거친 음성으로 열을 띠며 말했다.

《내가 올 때 거기 와있는 피뢰령사놈이 나보고 뭘했는지 아니? 북에 가면 랍치된다는거지. 그 래 내가 말해주었다. <랍치는 무슨 랍치. 난 거기 가면 대접받을 사람이야...랍치되면 아들집에서 살게되구 더 좋지. 그런데 당신들은 해외에 나와서까지 내가 아들한테 가는 길을 막자구 하니 그게 바로 통일하자는 심보가 아니지 않나> 하구 싸주었지.》

그러던 어머니는 갑자기 생각난듯 손녀더러 가 방과 함께 가져온 길쭉한 지함을 들고 오라고 일렀다.

《얘기만 하다나니 제일 귀중한걸 여태 잇구 앉았구만.》

설규가 지함의 끈을 칼로 끊어드리자 어머니는 두평을 제치였다. 그안에서 연회색수지주머니에 넣은것이 나왔고 수지주머니속에서는 한쪽이 불룩하니 퍼진 검은 빛갈의 통이 나왔다.

어머니는 그것을 두손으로 떠올리며 아들을 향해 내밀었다.

《이사람, 이게 그... 한달이면 돌아온다면서 떠날 때 두고 갔던 바이올린통이네.》

너무도 놀란 나머지 한걸음 물러서던 황실규는 급기야 달려들면서 통을 부여안았다. 그는 자꾸 손이 떨리기만 하여 통을 내려놓고도 얼른 열수가 없었다. 희속하니 모서리가 닳고 퇴색한, 거무스레한 통을 안해가 조심히 열어제끼었다.

구식바이올린이 통안에 조용히 누워있었다. 철이 벗겨지고 줄이 풀려진 그 바이올린이 오늘까지 형체를 보존할수 있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설규에게는 그것이 생소한 바이올린으로 보였다.

허나 눈여겨보느라니 아득한 그 시절이 불시에 가까와지며 바이올린의 울림통과 네개의 줄과 까만 윤이 흐르는 흑단목줄조이개의 손잡이, 토색빛의 반질반질한 턱받치개의 미세한 부분이 하나하나 되살아나며 눈곱에 핑그르 눈물이 돌았다. 바이올린과 얹혀진 그때의 온갖 생활이 뒤범벅이 되어 단꺼번에 머리속을 휘저어놓는다.

어머니는 용서를 비는듯한 어조로 말했다.

《애아비는 혜경이 그 통을 들춘다구 자물쇠를 채우려 하다 안되니까 활조이개를 따루 건사했었지. 그걸 어디다 잊었는지… 그래 그때 맞는걸 하나 구해서 이렇게… 맞춰놓았어.》

그러면서 어머니는 바이올린의 활을 어루만지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참, 이애 고모는 나이가 든 때에두 늘 이렇게 말했어. <어머니. 이 통을 들춘다구, 이 활루 쓸어본다구 다시 오빠한테 매를 맞아봤으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하구말이다… 남조선에서 떠날때 약간의 가장집물을 처리할 때도 그렇구 그 후 바다를 건너간 다음에두 몇번이나 이사를 하면서도 혜경이는 그것만은 못다치게 했지… 언젠가 네조카녀석이 어릴 때 난 그녀석 취미대로 외삼촌의 바이올린을 맡겨버리려고 했지… 한데 그때 혜경이 나보구 눈물을 머금고 <어머니, 그래서 안돼요!>하는 바람에 둘이 다 붙잡구 물었지. 제 애녀석한테는 다시는 이걸 뒤져내지 못하게 약속지르구말이다… 죽을 때두 마지막으로… 이걸 제가 누운 이불옆에 놓구 어루만져보면서…》

설규는 주먹을 짝 부르쥐고 뿔어오르는 오열을 강인히 참느라고 무진 애를 썼다. 제 고모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혜경이는 한번도 본적없는 고모를 생각하며 눈물이 그렇게 앓아있고…

바이올린의 활을 추켜들고 뒤부분에 꽂혀있는 조이개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던 황설규는 묵묵히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가서 두손에 자그마한 자개박이철함을 들고왔다. 훈장과 메달, 증서들을 넣어두는 통이었다. 그안에서 그는 웬 길쭉한 나사못같은것을 찾아내어 쥐고 들여다보며 혼자말처럼 되뇌었다.

《그러니 이 활조이개는 필요없게 되었군요…》

설규는 어머니에게 그것을 보이었다. 손매듭 하나만큼한 동그란 돌리개부분은 여전히 은빛으로 번쩍이었다.

《어머니… 그때 전… 옷을 갈아입으면서 호주머니안에서 이걸 보구… 그냥 가지구 왔어요. 오늘까지 보관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남아있게 됐는지 거두 믿어지지 않습니다.》

설규의 목소리는 떨리고있었다.

《아니, 그럼 그게… 이 바이올린의 활조이개란 말이나?》

어머니는 놀랐으나 조심히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들의 손바닥에서 그것을 들어올렸다. 안해는 알고있었지만 그 사연을 딱히 모르는 딸애는 할머니의 손에서 활조이개를 받아들고 진귀한 보물을 보듯 오래도록 들여다본다. 바이올린수인 그가 매일매일 너무도 자주 쥐게 되는 그런 활조이개였지만…

황설규는 경련을 일으키는듯 말을 듣지 않는 손가락들을 움직여 마른 천을 짚고 울림통과 줄,

활채의 기름기를 말끔히 닦아냈다. 그는 현줄들을 팽팽히 조이었다. 딸애가 제 한번 타보겠다고 나서는 눈치였으나 안해가 슬며시 딸의 팔을 잡는 것이었다.

황설규는 몇번 활을 쏘어보았다. 처음에는 생각tat인지 바이올린소리 같지 않고 그 무슨 신음같이 울리었다. 어느 한줄의 음이 틀리게 울렸으나 그게 무슨 대수랴…

《어머니… 아버지와 혜경이, 그리고 어머니와 나, 그때 우리 식구들이 부르던 노래를… 그 곡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황설규는 전혀 손에 익지 않은듯한 바이올린을 타기 시작했다. 매개 현들의 독특한 음색도, 활의 당김새에서 오는 고유한 촉감도 잊은지 이미 오래인, 자기것이면서 자기것이 아닌 바이올린이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계수나무 한나무 토끼 한마리
뚝대도 아니 달고 샷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어머니도 고개로 천천히 박자를 맞춰가며 조용히 입속으로 따라부른다.

황설규는 그 노래의 곡조를 세번이나 타고나서 문득 활을 줄우에 멈춘채 눈을 감았다. 그러다가 급하게 짝 활을 쏘아내려고 멈췄다가는 다시 그렇게 격조높이 쏘었다. 재차 더 한번… 흡사 흐느끼는듯 무엇인가 부르짖다가 목이 메이는듯 싫다.

허나 그것은 잠시뿐, 뒤미처 감격과 환호와 격정을 터치는 세찬 선율이 튀어오른다. 줄과 활의 맞부딪침속에서 빠르고 급한 음향이 어울려 몸부림을 치며 떨고있었다.

수난의 지난날을 더듬으며 만나지 못하고 가버린 아버지와 누이동생을 못내 그리는 애절한 울림이 흐르다가도 다시 선율은 세찬 강물처럼 장쾌한 울림이 되어 날아오르는 것이었다.

황설규는 여전히 눈을 감은채 팔을 세차게 움직이며 활을 쏘었다. 그는 눈앞에 환영처럼 일른 거리는 무수한 사람들을 보고있었다. 통일의 그 날처럼 그저 웃고 웨치고 우는 사람들의 물결, 서로 부둥켜안고 돌아가는 인산인해의 광장이 떠오른다…

어머니는 머느리와 손너사이에 앉아있었다. 감정의 폭발을 체험하는 작곡가, 연주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의 어릴적 바이올린숨씨를 대견해하듯 어머니는 얼굴의 주름살들조차 활짝 퍼지는 미소를 띄우고 아들을 바라본다.

설규는 활을 멈추었다. 가뜰이나 피곤할 어머니를 음악으로 더 흥분시키는것 같아 갑자기 격정스러워졌다.

《어머닌 지치셨어요. 오시느라구… 우선 오늘 밤은 빨리 쉬어야겠어요.》

《괜찮다. 난 그 바이올린소리가 좋구나… 지난날의 눈물두 있구, 앞날의 희망두 있구…》

어머니는 손가까이 열려진채로 있는, 바이올린을 꺼낸 빈통의 언저리를 매만져보며 조용히 말했다.

《애아비야, 그 아까… 애아비가 간수했던걸 좀 다시 보자구…》

진귀한 보물처럼 이 손에서 저 손으로 넘여가던 그것이 혜경의 손에서 어머니의 손에 다시 옮겨져갔다.

어머니는 손바닥우에 놓인 그 자그만 은빛의 쇠토막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꼭 감싸쥐고는 아들과 머느리, 손녀를 둘러보며 갈린 음성으로 천천히 말을 했다.

《애들아, 내 오랜 세월… 머나먼 나라들을 돌아서… 이렇게 와놓고보니… 너희들을 만났는데 두 소원은 가슴속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것 같구나. 남편도 딸도 다 잃고 나혼자 온게 죄스러워서만 아니다. 온 겨레가 만남을 이루지 못했는데 내 소원이란 향차 무엇이겠느냐… 그래 내 소망이 제아들 하나 만나는것으루 끝나야만 하겠느냐… 나는 일생을 아들을 찾아 헤매었다… 에미와 아들을 죽어서도, 살아서도 가를수 없듯이 조국두 한피줄로 이어진, 둘로 가를수 없는 하나이란 말이다. 그러니 난 이제 무엇을 해야겠느냐?!…》

《어머니!…》

황설규가 어머니를 마주보며 열띤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어머니는 손을 펴고 길쭉한 나사못같은 활조이개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애아비야… 네 조카들한테 이게 오늘까지두 여기 있었다는걸 꼭 얘기해줘야겠다. 그러구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두 이 사연을… 이것이 어떻게 단순히 바이올린의 활조이개이겠니?!》

황설규는 활조이개를 쥔 어머니의 손을 자기의 두손으로 꼭 감싸쥐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어머니!…》

설규는 어머니의 손을 움켜잡은채 한동안 놓을 줄을 몰랐다. 설규의 감싸진 두손안에는 어머니의 작은 손이, 어머니의 손안에는 그 활조이개가 있었다. 어릴적 어머니가 들려준 옛말속에서 나오는 행복의 열쇠처럼 이날 이때껏 소중히 간직했던 그것, 오랜 세월 애룩한 향수가 응결체처럼 굳어진듯한 판판한 쇠토막이 지금은 더 큰 열망과 신념으로 아들과 어머니를 떠미는 그 무엇으로 되는것만 같았다.

《어머니…》

설규는 조용히 목메이며 불러본다. 방금전까지

만 해도 어머니의 최잔한 늙음에 대한 동정과 편민의 정을 누를길 없었던 그는 이상하게도 이 순간 어릴 때처럼 여전히 자기를 손잡아 이끌어주는듯한 어머니에 대한 존경의 감정으로 가슴이 부푸는것을 느꼈다.

어느덧 방안에는 혜경이가 타는 바이올린의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처녀는 바이올린을 켜면서 그 곡조에 맞춰 아버지가 타던 노래의 2절을 입으로 조용히 부르는것이였다.

은하물을 건너서 구름나라로
구름나라 지나선 어디로 가나
멀리서 반짝반짝 비치는것
새별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그러던 혜경이는 후에 그자신이 명명한 《통일환상곡》, 아버지가 아까 타던 즉흥곡을 선율이 별로차이나지 않게 거의 그대로 재현하면서 바이올린의 활을 휘두르는것이였다…

…머칠이 흘렀다. 그동안 하루이틀 지나 백두산에 갔던 사돈도 오고 3대혁명소조에 나갔던 손자도 왔다.

온 가족이 모란봉이나 대성산에 가거나 기념관과 박물관들을 참관하느라고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면 손자와 손녀가 랑쪽에서 할머니의 팔을 끼여 부축해주곤하였다. 혜경은 할머니곁에 붙어서 친절히 설명하며 의젓하게 행동하다가도 집안에 들어서기만 하면 아예 음식동이 예닐곱살 철부지소녀로 돼버리고 만다. 꼭 여태 받아보지 못한 할머니의 사랑을 다 벌충하려는 심산인것만 같았다.

어머니는 그동안 사소한 부엌일도 머느리를 밀어놓고 제가 하려고 했으며 아들의 식성에 맞는 음식을 손수 제가 짓느라고 애썼다. 어머니에게서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는가보다.

손녀가 할머니한테 매달리면서 《떠나지 말아요. 우리와 영영 같이 살면안되나요?》 할 때 설규는 슬그머니 머리를 돌리었다. 어머니가 다시 떠나야만 한다는 그것이 이제 와서는 믿어지지않을 않았다. 손자손녀가 《하루만 더…》, 《이제 하루만 더…》 할 때도 어머니는 그저 《오냐 오냐.》 하고 웃으면서 그네들의 어떤 정도 다 들어주는 인자한 할머니로 되는것이였다.

다른 식구들이 잠든 깊은 밤, 어머니는 손자의 침대에서 흘러내린 모포를 제대로 덮어주고는 설규의 방으로 왔다. 어머니와 아들은 마주앉아 또다시 조용조용 끝없는 이야기를 시작한다.

문득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애아비야, 내 늙그막에 네곁에서, 저 애들곁에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니. 편안하구 근심이 없구…하지만 가야 한다.》

《어머니…》

설규는 뭐라고 말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어머니는 말을 이었다.
 《거기에 내 조카들이 있어서만 아니다. 여기 소식두 전하구, 북의 동포들의 마음두 전하구... 나를 막아나섰던 자들한테 똑똑히 말해줄것도 있으니... 나두 해외에서나마 통일성업에 무엇이든 보탬을 해알게 아니냐...》
 그 다음날 밤에도 어머니는 혼자생각에 잠긴듯 멍하니 앉았다가 느닷없이 중얼거린다.
 《나는 가야 한다. 가야 해...》
 단순히 오늘까지 제 아들 하나만을 찾아 떠난 길이 아닌듯 어머니는 어제날보다 더 굳세게 앞길을 걸어가려는것만 같았다. 그래서인지 설규는 어머니와 헤어지는 쓰라린 마음보다 어머니를 생전에 꼭 통일된 조국땅에 다시 모실수 있다는 확신이 더 강해지는것이다.
 ...비행장으로 나가는 승용차의 뒤좌석에는 어머니를 가운데 모시고 량옆에 아들과 손녀가 앉았다. 앞좌석에는 박사인 사돈령감이, 뒤에서 오는 다른 차에는 며느리와 손자가 탔다.
 황설규는 오른팔로 어머니의 섬약한 허리를 끌어안고 눈을 감은채 앉아서 아무 말도 못했다. 작별의 시각은 사정없이 박두하는데 차는 너무도 빨리 달리는것만 같았다. 마음의 준비는 되어있어도 막상 어머니를 다시 보내야만 하는 설규의 심정은 무던히도 괴로웠다.
 그동안 황설규는 고향에 심장병까지 있는 어머니를 종합검진도 시키고 해당하는 대책도 세우려고 애를 썼다. 장생불로의 산삼을 마련하여 다른 보약재들과 같이 지함안에 정히 싸넣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산삼록용도 무슨 그리 큰 효

힘이 있을상싶지를 앓았다. 분별의 비극에서 오는, 아들과 손자손녀, 며느리와 다시 헤어지는 심장의 아픔을 무엇으로 가실수가 있으며 진정시킬수가 있단말인가...
 승용차밖으로 줄지어 달려오는 은행나무들은 이미 스무날전의 그 나무들이 아니었다. 황금빛 잎사귀들은 다 떨어져 앙상한 가지들만 남고 이삭이 설레이던 논벌에도 벼동배기들이 생겨났다. 가을은 저물고 또다시 한해가 다 지나간다...
 어머니는 아들을 돌아보며 미소를 짓는다. 애잔하고 쓸쓸한 미소가 아니었다.
 설규는 어머니를 한팔로 다시금 싸안는다. 섬약한 허리에, 아니 어머니의 온몸에 깃든 굳센 힘과 넋을 감축하는듯하여 설규신이 다시 마음이 든든해지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손을 들어 자기의 가슴을 매만진다.
 어머니는 가느다란 끈을 목에 걸었다. 얼핏 보면 목걸이 같았다. 패물이나 호신부, 십자가는 더욱 아니었다. 어머니가 끈을 목에 걸고 품속에 넣은 자그만 비단천주머니속에는 바로 설규가 40년세월 간수해온 그 바이올린의 자그마한 활조이개가 있었다.
 어머니는 그것을 소중히 간수해가지고 간다. 미래에로 통일로로 사람들을 부르는 투쟁의 신념이 깃든것이거나 한듯...
 어쨌든 그것은 어머니한테서나 아들한테서 단순히 은빛의 쇠토막이 아니었으니 거기엔 어머니가 굳게 간직해가는 뜨거운 소원이, 조국의 하늘 아래에서 어머니를 다시 모시려는 아들의 소원이 함께 깃들어있었던것이다.
 차는 비행장을 향해 달리였다.

새벽

서진병

풀잎에 맺힌
 이슬 내리는 소리도 들릴듯
 고요한 새벽

다만 별한끝 어디선가
 가까이 들리다가는 멀어지고
 멀어졌다가는 다시 들리는
 프락푼소리

그 소리
 단잠 든 마을
 집집을 에도네
 에돌아 유독 한집의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네

동음소리에 심장의 말을 담아

지긋게도 처녀를 찾네
 -어서 나오렴
 내 사랑 내 정든 사랑

그만에야 잠을 깬 처녀
 서둘러 집을 나서네
 그 총각과 남몰래 만나던
 버들방천과 비길수 없는
 아름답 행복이 기다리는 논벌을 향해

그 총각이 전조등불빛으로 불러온
 그 새벽빛 보고싶어
 그 총각이 고무어놓은 논벌에
 모내는 기계의 동음
 선참으로 울리고싶어...

건설자

김해성

하나의 이슬방울에 우주가 비낀다는 말도 있듯이 자그마한 한토막의 사건이나 별치않은 생활세부에도 큰 폭과 깊이를 가진 시대상이 비낀다.

얼마전, 나는 출장길에 어느 한 신문사를 찾아가는 일이 있다.

목적했던 부서에 찾아가니 갱뿔한 얼굴에 안경을 낀 나이지숙한 사람이 책상위에 수북히 쌓아놓은 원고를 뒤적이고있었다. 보매 무척 분망한 듯싶은 그는 어떻게 왔는가고 묻는듯한 눈길을 얼핏 나에게 던지고는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팽팽한 태도에 주눅이 든 나는 저으기 갑자르며 말했다.

《저…신문에 낼 원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하던 일을 멈추었다. 하지만 그에게서는 여전히 반가움이라든가, 호기심같은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을 끄덕이며 실무적으로 물었울뿐이다.

《어데서 왔습니까?》

그는 기계적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한동안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거 정말 딱하구만. 지금 내 책상우엔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원고가 가득 쌓였소.》

아마 어느 로동통신원이 자기가 보낸 기사를 신문에 내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모양이었다.

이곳 신문사에는 그야말로 각지에서 보내온 보도감이나 긍정자료가 런던 들어와 쌓이는것이다.

나는 점점 당황해졌다. 내가 써가지고 온 자그마한 기사들을 신문사가 받아물겠는지 자신이 없었기때문이다.

물론 우리 건설자들의 영웅적인 투쟁이야기를 꼭 소개해야겠다는 충동에서 펜을 들긴 했으나 서투른 글재간으로 기사를 만들다보니 마치 고운 얼굴이 먼이 매끈하지 못한 거울에 비쳐진듯 보잘것없이 되어버렸다. 아무리 좋은 자료라도 글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가치가 많이 오르내리는 법이다.

이윽고 다음 기회에 보자는 말로 상대방을 설복하고 전화기를 놓은 그는 긴숨까지 내쉬었다.

《동문 어데서 왔다고 했던가?》

어쩐지 그는 못마땅한 눈길로 나를 보는것만 같았다. 나는 쭈뼛거리며 대답했다.

《저…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장에서 왔습니다.》

내 말에 그는 반색을 지었다.

《아, 그렇습니까? 정말 수고가 많겠습니다.》

그의 돌변한 태도에 나는 어안이 빙빙해졌다. 그는 서두르며 내가 쓴 기사들을 받아 주의깊게 읽었다.

《저…글이 변변치 않아서…필수 있을가요?》

내가 소심한 투로 묻자 그는 너그러운 미소를 입가에 띄웠다.

《건설자동무들이야 우선적으로 소개해야지요. 온 나라가 관심을 돌리는 중요대상건설을 맡아서 수고하는 동무들이 아닙니까.》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알고보니 그는 이 부서의 부장이었다.

부장에게 기사를 넘겨주고 돌아오는길에 나는 생각이 깊어졌다.

우리가 하고있는 건설이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일이어서 저렇듯 신문사의 부장이 우리 건설자들에게 호의를 품고 우선권을 부여하는것인가? …

건설은 지난날에도 역시 중요했다.

건설의 력사는 수백만년, 아마도 원시인들의 생의 유일한 보금자리였던 자연동굴을 버리고 땅 위에 움막을 짓고 살던 그때로부터 시작되었을것이다.

인류력사와 더불어 흘러온 그 기나긴 건설력사의 행로에는 얼마나 많은 피땀과 원한의 눈물이 얼룩져있는것인가.

원래 건설이란 인간의 생존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귀중하고 신성한 일이였건만 암흑의 시대에서는 건설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비천한 최하층인간으로 알려져있었다. 노예소유자 사회에서는 무권리한 노예들이, 봉건사회에서는 품팔이군들이 마소가 되어 건설이라는 엄청난 고역을 치르어야 했다.

저 애급의 황량한 사막위에 서있는 피라미트를 보아도 그렇다.

수천수만의 노예들이 주검이 되어 쓰러지면서 한층한층 쌓아올렸다는 피라미트는 고대건축술을 보여주는 인류문화의 재부이기전에 당대 사회에서 건설에 내몰린 노예들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보여주는 뚜렷한 력사의 증거물인것이다. 정녕 건설력사의 갈피갈피에 지배계급의 호화로운 고대광실을 짓기 위해, 령혼의 안식처를 만들기 위해 덧없는 운명을 바친이 그 얼마랴.

멀리 볼것도 없다. 해방전 우리 건설자들의 처지는 또 어떠했던가.

수많은 거리와 집을 일떠세우면서도 늘 찌그러

저가는 함바집에서 목침을 베고 살아야 했고 물질적부를 생산하는 수많은 공장을 건설하면서도 늘 헐벗고 굶주려야 했던 인생들...

수난의 그 세월 일제강점국의 채찍에 쓰러져 흙질통을 진채 피를 토하며 쓰러진 사람들은 그 얼마였으며 죽어서도 땅에 못묻히고 세멘트물탈과 함께 콘크리트언제속에 처박혔던 사람들은 그 얼마에 달하였는가?

허나 이 강산을 진감하면 해방만세의 환호성과 함께 피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건설의 역사는 영영 끝장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대중은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이며 역사의 창조자입니다.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과 투쟁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물질적부가 창조되며 사회적 변혁과 진보가 이룩됩니다. 그러므로 근로대중은 마땅히 사회의 주인으로 되여야 하며 모든 물질적부의 향유자로 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몸소 보통강개수 공사의 첫삽을 뜨시던 감격의 그날로부터 이 땅엔 창조와 건설의 새 역사가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온 나라가 새 조선 건설로 들끓던 그 나날에 어제날 것처럼 버림받고 천대받던 품팔이군들을 자애로운 한품에 안아 제일 먼저 새 조선의 건설자라는 값높은 이름으로 불러주시였다.

새 조선의 건설자!-바로 이 이름에는 우리 건설자들의 존엄과 긍지가 집약되어있다.

어제날엔 품팔이군, 막벌이군, 토목공, 뜨내기 인부로 불리우던 건설자들의 처지와 사회적지위는 이 달라진 이름과 함께 근본적으로 전환되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나라의 방방곡곡, 우리 건설자들이 일하는 건설장들을 일일이 다 찾아주시며 건설자들의 수고도 헤아려주시고 과분한 치하와 높은 칭호도, 값진 훈장도, 은정어린 선물도 먼저 우리 건설자들에게 안겨주시였다. 그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서 우리 건설자들은 모두가 건설의 영웅, 창조의 영웅으로 자라났다.

해주-하성의 기적도, 세상을 경탄시킨 《평양속도》와 《비날론속도》도, 해발 1,200미터의 험한 산정에서 1년동안에 세계적인 대선광장을 일떠세운 자랑찬 성과도 다 우리 건설자들이 창조했고 류례없이 거창한 서해감문과 광복거리 건설의 영웅서사시도 우리 군인건설자들이 주인공이 되어 역사에 아로새기였다. 하기에 오늘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 수풀처럼 일떠선 만년대계의 기념비들과 더불어 건설자라는 이름은 시대의 영웅성을 상징하는 대명사로 불리우고 우리 건설자들은 만사람의 축하와 찬사의 꽃다발우에 떠받들리어 존엄높은 삶, 긍지높은 삶을 누리고있다.

우리 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장에는 3대를 걸쳐 건설일을 해온 공훈건설자아바이가 있다.

리조말기의 한다하는 목수로서 봉건통치배들의 궁궐을 짓느라고 오십줄에 들어서기도전에 허리가 꼬부라들었다는 그의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목수기술을 굳이 배워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너는 나처럼 천한 목수가 되지 말라고.

하지만 목수기술이 없는 그 아들에겐 오히려 더더욱 불우한 운명이 차례졌다. 우리 조국의 재부를 깡그리 강탈하기에 미쳐날뛰던 일제침략자들이 삼천리강토의 곳곳에 벌려놓았던 공사판에서 젊음을 혹사당하던 그는 나이 삼십이 훨씬 넘도록 장가도 못들었다. 일정한 직업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천한 막벌이군이라고 하여 딸 가진 부모들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던것이다. 나이 마흔이 거의 되어서야 어느 심심산골의 처녀에게 늦장가를 든 그는 첫살림의 재미도 모르고 다시 공사판을 찾아 방랑객처럼 떠돌아다니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던 어느날, 아무런 안전대책도 없이 높은 굴뚝을 쌓는 일에 내몰렸던 그는 땅에 떨어져 젊은 안해와 피덩이같은 갓난 아들을 남겨둔채 한 많은 세상을 떠나고말았다. 인제는 남편을 대신하여 안해가 젖먹이를 업고 공사판에 나가 자갈이라도 추어야 했다.

모진 고역과 설움의 낮과 밤을 흘러보내며 어머니가 애오라지 바란 녀원이 있었으니 그것은 제발 아들만은 아버지처럼 고생스러운 건설로동을 하지않게 되었으면 하는것이였다. 해방이 된 후에도 이 녀원은 과거의 쓰라린 추억과 결부되어 웅고짐으로 굳어졌다.

그러나 전쟁이 일자 용약 전선에 달려나가 미국놈들을 쳐부시고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의 뜻과는 달리 건설로동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직종인 연공이 되였다. 어머니는 드디어 아들의 마음을 리해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재더미가 된 조국땅우에 지상락원을 일떠세우기 위한 벽찬 건설투쟁으로 온나라 인민을 불려일으키셨던것이다. 전승의 광장에서 내리신 걸음으로 복구건설의 위대한 설계도를 안으시고 벽돌공장부터 찾으신 아버지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받들어 남프로소 할것없이 모두가 건설자가 되어 떨쳐나섰다. 그 간고하고도 보람찬건설의 나날속에서 비천한 복수의 손자, 어제날의 불우한 토목공의 아들도 영웅건설자 된 영예를 안고 영광의 주석단에도 올랐고 신문과 방송을 통해 널리 이름을 떨치기도 했다.

오늘 공훈건설자아바이의 맏아들은 건설전재대학에 다니고 인민군대에 나간 둘째는 어느 간석지건설장에서, 셋째는 아버지와 함께 연공으로 일하고있다. 또한 건설장에서 기증기를 운전하던 두딸은 모두 건설자에게 시집을 갔다.

1대, 2대를 걸쳐 피땀한 한으로 되었던 건설자의 직업이 아바이의 대에 이르러서는 다른 직업과 바꿀수 없는 영예롭고 신성한 일로 된 이 건설자대가정의 집안력에는 비운과 영광의 두 시대가 그대로 비껴있다.

그렇다. 우리 시대에서 건설자의 영예감은 매우 크다. 이 영예감은 그 어떤 대우나 특전을 받는데서 생기는것이 아니다.

당이 부르는 사회주의건설의 전초선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보람찬 일을 한다는 자각, 때로는 가정의 아늑한 보금자리를 떠나 험한 산정에, 바람거치른 모래벌에, 물결사나운 바다기슭에 터전을 잡고 위훈의 탑을 쌓으며 가는곳마다에 만년대계의 창조물을 일떠세우는 이 크나큰 공지와 벅찬 로동의 희열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수 없는 우리의 고귀한 영예이며 자랑이며 생의 전부이다.

나라의 방방곡곡에 있는 들끓는 건설장 그 어디든 찾아가보아도 좋다.

그러면 시대의 창조물에 자기의 구슬땀을 바치는것을 더없는 행복으로, 랑만으로, 의무로 간주하고 스스로 달려와 건설자가 된 청춘들이며 갖가지 지성어린 지원물자를 가지고 찾아온 늙은이들과 가정부인들 그리고 나이도, 성격도, 직업도 각이한 지원자들을 보게 될것이다. 건설이 이처럼 신성시되고 온 나라 인민이 건설자들을 위해 주고 도와주고 내세워주는 이런 시대가 력사에 있어본적이 있었던가.

나는 말하고싶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이 안겨준 크나큰 영예와 공지가 우리 건설자들의 가슴에 간직되어있을진대 우리의 한몸이 그대로 땅속에 묻히여 만년대석이 되고 한몸이 그대로 굳어져 무쇠기둥이 되어, 창공높이 솟은 시대의 창조물을 떠받든들 무슨 한이 있겠는가고.

우리 건설자들은 이 두어깨로 고마운 우리 당과 우리 조국을 억년만년 떠받들어나갈것이라고.

너 없는 밤길 걸으며

김정임

네가 없는 밤길
나 홀로 걸으며
립수경아
너를 생각한다

그날처럼
문득 나타나
웃음 머금고
가벼이 손을 흔들듯

나는 이역에서
너는 남녘에서
우리 처음 만난곳이
평양 바로 여기가 아니더나

너의 손 내가 잡고
나의 손 네가 잡고
꿈만같이 울었지
친형제처럼 부둥켜안고

내가 가는곳엔
너 언제나 있었고
너 있는곳엔 나 항상 있었지
13차축전의 그 날에

주먹을 흔들며
너 조국통일을 웨칠 때
나는 박수갈채를 보내며

언제나 함께 있을 수경아

너는 지금 내곁에 없구나
나는 이역에서도
너와 헤어져 벌써 세번째
조국에 오는데
한나라 지척에 있는 너는...

너는 지금 내곁에 없구나
차디찬 달빛 스며드는
남녘땅 철창속에서도
뿔뿔이 통일의 꽃향기 풍기고있더니

더더욱 간절하구나
너에 대한 그리움
저 원한의 장벽을 마스고
통일의 새 아침 불러오는 길로
너와 나 언제나
함께 걸으려니

저기 불밝은 집집의 텔레비죤화면속에
네가 섰던 저 연단에서도
온 나라 어디서나 네 모습은 어려와
너는 내곁에 없어도 내 마음은
네가 있는 밤길을 걷는다

(필자는 총련 구라사끼 초중급학교
교무주임임)

조국방문의 나날에

-한 재일동포를 대신하여-

김남걸

문

금시 열릴듯싶어
문만
수령님 들어서실
문만 봅니다

벌써 그 몇번
옷깃도 여미고
손바닥 땀도 닦으며
문만 지켜봅니다

기쁨이면 그 기쁨 더해주고
아픔이면 그 아픔 다 가시여주고
이역만리 하늘아래 사무쳤던 그리움
한순간에 다 풀릴 문입니다

희망이면
더 큰 나라를 달아주는 문

우리 수령님 들어서실
문만 봅니다

먼 이역땅까지
빛을 끌고루 주시는
찬란한 태양을
꿈만같이 맞이할 문입니다

내 한생에 가장 소중한
그 소원이 풀릴 순간으로
이끌어가는 문
영생의 순간에 내 삶을 이어줄 문입니다

너와 나
우리모두의 운명을
참답게 빛내주는
사랑의 문입니다

수령님

사진으로만
눈에 익히고
마음에 새긴
우리 수령님이십니다

전설의 청년장군으로
이역에서 따르던
내 머리에든 흰서리 내려
걷기조차 힘겨운 이 몸

우릴 위해
먼길 헤쳐오셨으니
수령님 퍼그나
년로하시리라 내 생각했습니다

헌데 이렇듯 만나뵈우니
백두의 그 목소리 변함 없으시고
전승의 그날
열병식대오에 손들어 답례하시던
그 정력 그대로입니다

아직도 백두의 행군길
포화의 전선길 천만리라도
우리를 이끌어주실듯 정정하서
기쁩니다 그저 기쁘기만 합니다
온 세상이 다 내것인듯
그저
기쁘기만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래에도 그립고그립던
조국땅에 와 보기전에는
나는 절대로 눈감을수 없었던 사람

잔디 푸른 고향뒤동산
양지쪽에 물어달라던
아버지 어머니 유언을 안은 사람

지지리 매달리던 가난이
형제 7남매 앓아갈 때
막내인 내 손잡고 하던 그 부탁

고향에 가보고싶다고
죽어서라도
기어이 고향에 가겠다고

아, 한가정의 유언만이 아닌 그 넋
재부처럼 안은 가슴이어서
죽음을 백번 더 이겨야 했던 사람

이렇게 내 왔구나
사연많은 유골
고향의 부드러운 흙에 안치했구나

하루여, 조국의 이 하루여
반세기 가까이 살아온 날보다
이 하루가 더 귀중해
내 더더욱 한생을 다바쳐
조국을 심장으로 받들어야 할 사람

눈 오는 밤

송이송이 눈송이
어깨에
머리위에 받으며
창광산려관 마당에
내 지금 서있네

내리는 눈송이 꽃잎인듯
아이때처럼
혀끝 세워 받으며
이따금 두손도 펼치며

이역에서 맞을 때는
차거웁기만 하던 눈송이

조국에서 맞으니
그 따스함 류다르네

녹지만 앓는다면
한줌 흙을 안고간 투사들처럼
꽂꽂 다지고다져
한 트렁크 들고가고픈 눈

옷에 머리에 내리는 눈송이
단 한송이도 털고싶지 않네
그 어디 가도 이 눈송이
마음속에 고이 안고살리

언제나 수령님 가까이

이 아침
로동신문 들고
안해여
나는 감격에 젖어있소

수령님
바로 그옆에
내가 앉아 찍은
사진을 보며

당보의 한구석에
이름만 나도
더없는 기쁨이온데
내 위치가 지금 어디요

천만가닥의 빛을 가진
저 하늘의 태양도
마음에야 어떻게
빛을 주겠소

이역땅
한겨울밤도
남의 집 굴뚝 안고

쪽잡들군하던 이 몸이

아 세상 한모서리에서
마가을 락엽처럼
부는 바람에 날리워
시궁창에 박혔던 이 몸이

꿈만 같구려
민족의 태양이신
우리 수령님
바로 그옆에 내가 있다니

효자로 충신으로
가장 가까운 삶의 위치에
한생을 서야 할
나의 새 모습을 보며

단 한치 빗설수도
옳겨디딜수도 없는
영원히 빛내여야 할
나의 삶의 위치를 생각하며
내 울고있소

내이를 묻지마세요

작사 리정술
작곡 황진영

1. 내이를 묻지마세요 이름을 묻지마세요

그 무슨 큰일했다고 이름을 물으시나요

땀 흘려 언제를 높이쌓은- 꽃나이 청춘들이

그언제 이름을 남기려고- 위훈세웠던가요

그러니 나의 이름 묻-지 마-세-요

2. 내 이름 묻지 마세요 이름을 묻지 마세요

그 무슨 큰일 했다고 이름을 물으시나요

정들은 고향집 멀리 떠나 북변의 청춘들이

그 어이 눈바람 헤치면서 철길 놓았던가요

그러니 나의 이름 묻지 마세요

3. 내 이름 묻지 마시고 이 심정 알아주세요

가슴에 불타고있는 이 심정 알아주세요

날 안아키워준 우리 당에 충성을 다바쳐

그 위엄 빛내여 가고싶은 마음뿐이랍니다

그러니 나의 이름 묻지 마세요

학교가는 아들을 보며

박정순

아직은 창밖에 어스름이 짙은데
너는 벌써 잠에서 깬구나
단풍잎같은 두손으로 책을 고르며
학교갈 차비 서두르는구나

찬바람부는 문앞에 나서
학교길 채우쳐가는 너를 보노라니
대견스러운 네 모습에 앞서
이 어머니 마음에 깊어지는 생각

너처럼 걸었다, 나도 이 길을
너처럼 배려주더구나
이 어머니가 처음 학교가던 날
너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떠나면 오기를, 오면 떠나길 바라며

글, 제 나라 글
새 학습장에 새겨왔을 때
어째서인지 쏘아보고 다시 더듬어보며
외할아버진 뜨거운것을 삼키시더구나
말없이 말없이

아들아, 그날의 나처럼
너 지금
얼마나 행복한 길 걷는지
너 지금
얼마나 넓은 길 가는지
아직은 다 모르리

이 길을 그려보며
엄동설한 이역의 하늘 즐기며
안개처럼 사라진 생이 얼마인지
아, 그것을 알기엔 네 나이 너무도 어리구나

조선말을 했다고
조선옷을 입었다고
강패들과 반동들의 발길에 채워
병신이 되고 생을 잃은 사람들의 수
아, 네가 배우는 산수로는 계산도 할수 없으리

머리를 들고 살라고
조선사람 녀을 잃지 말라고
이역땅에도 민족교육의 대화원을
이렇듯 펼쳐준 나라가 두번다시 없다는걸
그 사랑의 깊이를 다 알기엔
아, 이 어머니의 생각도 모자라는구나

아들아 복받은 조국의 새 세대
귀여운 내 아들아
멀어도 이 길 가까워도 이 길
찬바람 불어도, 불파도 밀려와도
이 길만 에돌면 이 길만 비껴서면
너와 나 우리 삶 한줄의 재가루보다 못한것
이 길은 어버이수령님 펼쳐주신
사랑의 길이란다
(필자는 총련조선대학교 교원임)

광주사람들 문을 걸지 않는다

박원종

파쑸의 광풍 사나울수록
광주사람들
문을 걸지 않는다
5월 항쟁의 그날처럼 산다

식솔을 잃고
자유와 민주도 잃어
이제 남은건 복수 하나뿐
무엇때문에 대문을 걸랴

자유와 대문에 파쑸의 빗장 지르려
민주의 대문에 독재의 대못 박으려
흉악무도한 원쑤의 무리
총칼을 휘둘러대는 남녘

불타는 소원인 자유
목숨바쳐서라도 찾아야 할 민주
제집문을 닫아걸고
어찌 자유와 민주의 대문 열수 있으랴

식솔들이 돌아오지 못한 집문으로
남은 식솔 모두다 달려나가리라
달려나가 파쑈의 빗장 동강내고
독재의 대못 뽑아버리리라

오, 광주사람들은 살아있다
파쑈의 광풍 사나울수록
집마다 문을 걸지 않고 산다
5월 항쟁의 그날처럼 펼쳐나서려...

비 그친 뒤에 외1편

정룡순

씻은듯 파란 하늘에 해가 반기는
비 그친 들판에 나서니
이슬어린 이삭들 바람안고
내 마음처럼 어리광치누나

해빛 향해 키쑈구는 이삭들의 저 모양은
그리움 터치며 감격에 젖은듯
주알주알 흘러가는 보도랑 물소리
해를 반겨 터치는 들판의 노래인듯

아, 웃는 저 이삭들엔
아이적 내 모습도 비껴있는듯
잠시나마 곁에 없는 어머니 기다리다
동구밖 언덕으로 달려가던 그 모습이

개울가 빨래터에서 돌아오는 어머니
엎어질듯 달려가 그 품에 안기며
내 눈물고인채로 마주 웃던 그 모양
비 그친 들판에서 문득 생각함이어

소나기 지나갈 땐 그 해빛 잃는듯싶어
저 이삭들 하소하듯 늑실늑실 뒤채이고
변죽이는 번개와 우뢰 속엔 오히려 머리들고
찾는듯 찾아가듯 파도치던 이삭들

맑은 날에 더 못쾌운 이삭이 있고
례사로운 날에 더 못퐁긴 향기가 있어
하늘이 창창 비가 그친 뒤
들판이 청청 비가 그친 뒤

하늘의 해빛 가득가득 안아보며
끝없이 일어서고 일어서는 이삭들아
너는 지금 기뻐서
웃는가, 우는가

아, 티검볼 하나없이 미역감고
한결 더 따르듯 쑈구치며 웃는 이삭들아
너는 한시도 당의 품 떠나 못사는
우리모두의 웃는 얼굴같구나!

신천의 물

세월의 락엽도
타는 가슴 추기려 내리는듯
마가울 들꽃도 똑아래 고개 흔들며
물우에 비끼기 저어하는듯

샘, 신천의 샘가에 엎드려
차디찬 물 떠마셔도
물아, 신천의 물아
이 가슴 식힐수 없구나

아, 그날의 아이들이 못마시고 간
그 물을 지금 내가 마시는가
그 어머니들이 소원한 마지막 한모금을
나는 이리도 쉽게 다 마시는가

내 허리펴고 일어서는데

또다시 마음속에 뿌려지는 휘발유
물달라고 울어대던 천진한 어린것들
그 얼굴에 흐르던 눈물이 이 마음에 불을
지피누나

아니였구나, 신천의 물아
너는 물이 아니였구나
누구나 단가슴 여기서 식히자 함도

정녕 아니였구나
원한의 냇이 땅우에 고여
누구나의 가슴에 분노의 불을 지피
복수의 더운 피 끓여주는
신천의 물아
너는 불이다 불이다

김형에게

-아버지를 대신하여-

조창제

젖은 편지로도
이 가슴에 그리움
다 메울길 없어
김형, 내 때없이 이런 밤이면
부르다오, 《고향의 노래》를

이국의 어두운 골목
젊은 시절의 그 하숙집
굳어진 빵 한개를 서로 권하며
고향을 그려
함께 부르던 그 노래를

빛단련에 세방마저 잃고
한밤중 그대의 판자집문 두드릴 때
형제처럼 맞아주던 그 웃음
내 한가닥 따뜻이 간직했던
그 정을 못잊어서만도 아니요

내 손에는 지금도
김형이 쥐여준 《가가표》가 있소
《고향의 노래》를 부르던 그밤
내 가슴이 조국의 숨결로 뿔뿔히 하고
조국 위한 그 한길에 세워줄 때
약속처럼 맹세처럼 간직한것이어서
이런 때면 나도 몰래 꺼내든다오

내 머리에 이렇게

흰서리가 내리도록
그대는 《가가표》와 함께
내 마음속에 있었소

바다멀리 떨어져
우리는 헤어져있어도
오늘도 애국의 피끓는 심장으로
조국 위해 헌신하는 그 모습이
나를 지켜보는듯하오

날마다 커가는 행복속에
내 하는일 없이 문힐가봐
내 예수살이 지나도록
귀국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때없이 《가가표》를 꺼내보곤했소
애국의 한길에 어깨결고
뛰고 달리던 그 시절에 이 마음 세워보며
김형의 다정한 음성도 다시 듣고싶어서

나는 오늘도 마음속으로
그때의 노래를 불러보오
통일의 그날까지
상봉의 그날까지
놓을수 없는 몸이어서
언제나 이 한길에서
우리 서로 헤어지지 말자고